

2020

기본연구 2020-05

전북지역 가족 성평등 실태와 성인지성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전희진 · 전아람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0-05

전북지역 가족 성평등 실태와 성인지성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전희진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전아람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20GI0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구요약

연구의 목적

전라북도는 2018년 국가·지역성평등지수(2019. 12. 24 발표) 중 가족 분야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한 가족 관련 지표는 가사노동시간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육아휴직 성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가족 내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내의 역할 기대와 인식의 변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 성평등 문화 확대에 기여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를 통해, 가족 분야의 성인지성 개선을 위해 가족생활 및 역할에 관한 인식과 현황조사와 부부의 결혼생활 실태와 성평등 태도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 가족 내 성평등 인식과 실천에 관련한 가사노동과 자녀돌봄 분담 정도,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 등의 가족 내 관계에 관련된 사항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체감효과와 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가족 내 성평등 실태 조사는 가사분담과 양육의 문제로 가장 첨예한 갈등을 경험하는 30-40대의 가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가족 안에서의 성별, 세대, 지역, 계급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동일한 가구 내에서도 가족 구성원의 경험과 인식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족 내에서의 다양한 변이를 추적하고자 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가족 내의 삶의 변화를 통해, 재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층적임을 살피고자 했다.

전라북도 가족 현황

2019년 기준, 전라북도 인구는 1,818,917명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00년 대비 2019년은 약 9.0%가 감소하여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전라북도 인구 중 30~49세 연령의 3040세대는 472,424명으로, 해당 연령층은 여성(228,517명)보다 남성(243,907명) 인구가 조금 더 많으며, 전라북도 총 인구 중 26.0%를 구성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세대구성별 가구 추이에 따르면, 2세대 가구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32.3%, 1세대 가구 20.9%, 3세대 가구 4.0%, 비친족 가구 1.6%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 삶의 방식, 성역할 태도, 자녀양육, 부모부양 태도 및 실천,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대화시간, 갈등경험, 자녀돌봄, 가족정책에 대한 태도 등의 일반적인 사항 분석을 위해,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된 『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 분석과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전국과 전북의 차이를 분석하여 전북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3040세대의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천, 가족관계 만족도, 가정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등을 성별, 지역(동부, 읍면부), 지역과 성별의 조합에 따른 차이에 대해 2018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라북도 가족 성평등 실태조사

실질적인 분석을 위해, 「전북지역 가족 성평등실태 관련 설문」은 만 30~49세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인식, 가족 성평등을 위한 정책 제언,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관계 변화,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 개선을 위한 의견, 정책이나 사업제안 등에 대한 문항으로 진행되었다. 전북지역의 도시지역으로는 전주, 익산, 군산을,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는 순창, 고창, 부안을 선정하여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만 30~49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기혼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전라북도 지역 3040세대 설문 응답자들 중 과반 이상이 성차별이나 성별에 따른 역할부여, 기대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가족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는 10명 중 2-3인에 머물러, 가족 내 성평등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에 대부분의 응답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으로, 각 문항에서 30대와 40대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재산 분배, 가사노동 분배, 성별에 따른 교육에 대한 태도, 자녀교육에서의 엄마의 책임 등의 물음에 있어서 40대가 보수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 대비 성평등적인 지향을 보이고 있었다.

가족 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가사 등 집안일, 가족원 돌봄, 자녀교육에서의 결정권은 아내가 더 가진 경향을 보였고, 주택 구입은 남편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갈등에 대한 문항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 30대보다는 40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갈등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가구 수입별로는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갈등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나 확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만족도는 떨어져서, 5점 척도에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2점 가량으로 기대에 비해 제도나 사업의 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삭감, 임금 삭감, 재택근무의 경험 등에 있어서 아내보다는 남편의 경험률이 높게 났으나, 실직에 있어서는 부인의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서 여성의 직업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증가 경험에 대해서는 30대 여성의 증가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아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의 확대에 인한 돌봄노동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가족 경험 관련 심층면접

가족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던 경향성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혹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족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성차별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어린 시절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서술과는 달리 가족 구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들 선호의 경향성은 어떤 방식의 실천을 차별로 규정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사노동의 분배에 대한 인식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인이 가사노동을 많이 책임지고 있었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인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 근거로 부인의 노동 강도가 낮다는 언급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여성들이 일·생활 양립의 압력 속에서 노동 강도가 낮은 일을 선택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에게는 가계부양에 있어 주변부적인 위치를 부여하면서 이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의 많은 영역에서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 구분되어 있어 농사일의 많은 부분을 맡고 있음에도 가사노동도 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언급을 들을 수 있었다.

배우자와의 갈등은 육아가 시작되면서 확대되는 경험을 들을 수 있었고, 오히려 40대로 접어들면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기보다는 갈등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일정 정도는 포기하면서, 서로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의 확대 경험은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의 식사가 온전히 엄마의 몫으로 되어, 급격한 가사노동의 증가를 경험한 경우를 볼 수 있었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계의 악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 직장, 가족의 성평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고, 이런 가족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상에 맞는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특히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볼 수 있었다.

가족 내 성평등 확산방안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 확산을 위해서는 가족 내 성평등 문화의 변화, 고용과 기업 등 사회 환경 영역의 변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내 성평등 교육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교육자 확대가 요청되며, 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가족 관련 수당을 지급과 교육의 연계를 통해, 성평등 교육에 쉽게 다가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부와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만이 아닌 타인의 역할을 경험하면서 서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의 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경제활동 관련 지원정책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일자리 확산, 가족친화 기업의 확대, 코로나19 상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식의 근무환경과 돌봄 공백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의 필요를 들 수 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초중고 양성평등 교육 실시와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책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자발적 부문 등 사회의 각 영역이 서로 소통하고 상호 학습을 통해 공통의 과제를 발견하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나아질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코로나19 시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3040세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다양한 가족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및 다양한 가족에 맞는 맞춤 지원과 접근이 요청되며, 또한 이후에 다양한 가족 영역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 가족 성평등 문화 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연구가 작은 기여이기를 바란다.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7
가. 연구 범위	7
나. 주요 연구내용	8
다. 연구 추진체계	10
 제2장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11
1.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선행연구	13
2.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정책 및 사업	19
가. 가족 내 성평등 관련 법령 현황	19
나.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정책	23
 제3장 가족 내 성평등 관련 현황	 27
1. 전라북도 인구 및 가구 현황	29
가. 인구 현황	29
나. 가구 현황	33
다. 결혼 및 이혼 현황	35
2.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가족 내 성평등 현황	40
가. 가족에 대한 가치관	40
나. 가족 내 성평등	46
다. 가족 관련 정책 인식	54

3.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 현황	57
가. 전라북도 일반적 가족 성평등 현황	57
나. 전라북도 3040세대의 가족 성평등 현황	63
 제 4 장 전라북도 가족 성평등 실태	75
1. 전북지역 가족 성평등 실태조사	77
가. 설문조사 개요	77
나. 가족 내 성평등 설문조사 분석	80
다. 가족 내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	117
2.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가족 경험	119
가. 심층면접조사 개요	119
나. 심층면접 응답에서 나타난 가족 경험	121
다. 심층면접 결과	153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55
1.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 확산방안	157
가. 가족 내 성평등 교육사업 확대	157
나. 경제활동 관련 지원정책	158
다.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160
2. 가족 정책의 방향성	161
 참고문헌	163

표 목 차 | Contents

〈표 1-1〉 지역 성평등지수 분야별·지역별 현황	3
〈표 1-2〉 전라북도 가족 성평등 수준과 순위	5
〈표 2-1〉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선행연구	15
〈표 2-2〉 가족 내 성평등 관련 법령	20
〈표 2-3〉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보완	24
〈표 3-1〉 전라북도 성별 인구 추이	29
〈표 3-2〉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	30
〈표 3-3〉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	31
〈표 3-4〉 전라북도 세대구성별 가구 추이	33
〈표 3-5〉 전라북도 가족형태별 가구 추이	34
〈표 3-6〉 평균 초혼연령 추이	37
〈표 3-7〉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39
〈표 3-8〉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41
〈표 3-9〉 성역할 태도	42
〈표 3-10〉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43
〈표 3-11〉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에 대한 생각	44
〈표 3-12〉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45
〈표 3-13〉 부모님과의 관계	45
〈표 3-14〉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46
〈표 3-15〉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	47
〈표 3-16〉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47
〈표 3-17〉 부부의 갈등 경험	48
〈표 3-18〉 부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고민 경험	49

〈표 3-19〉 심각한 갈등에도 이혼하지 않은 이유 (1순위)	49
〈표 3-20〉 부부 간 자녀돌봄 분담 정도	50
〈표 3-21〉 배우자와의 자녀돌봄 분담방식에 대한 만족도	51
〈표 3-22〉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51
〈표 3-23〉 가사노동 항목의 수행비율 및 횟수	53
〈표 3-24〉 맞벌이 여부별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53
〈표 3-25〉 가족정책 주요제도에 대한 인지도	54
〈표 3-26〉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55
〈표 3-27〉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56
〈표 3-28〉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57
〈표 3-29〉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58
〈표 3-30〉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58
〈표 3-31〉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59
〈표 3-32〉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61
〈표 3-33〉 가사분담 실태	61
〈표 3-34〉 성별 가사노동 시간	62
〈표 3-3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64
〈표 3-36〉 가족 중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65
〈표 3-37〉 이혼에 대한 견해	66
〈표 3-38〉 재혼에 대한 견해	66
〈표 3-39〉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67
〈표 3-40〉 가사분담 실태	68
〈표 3-41〉 가족관계 만족도	69
〈표 3-42〉 관계별 가족관계 만족도	70
〈표 3-43〉 가정생활 스트레스 정도	71
〈표 3-44〉 초등학생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72
〈표 3-45〉 중학생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73

〈표 4-1〉 설문지 조사내용	78
〈표 4-2〉 응답자 일반특성	79
〈표 4-3〉 가족경험과 인식	81
〈표 4-4〉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1 : 나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딸/아 들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82
〈표 4-5〉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2 : 나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남자/ 여자답게 행동하라고 배웠다	83
〈표 4-6〉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3 :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	84
〈표 4-7〉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4 : 아들 딸 구별 없이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85
〈표 4-8〉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5 : 집안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86
〈표 4-9〉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6 : 아들과 딸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키워야 한다	87
〈표 4-10〉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7 : 엄마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편이 좋다	88
〈표 4-11〉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8 :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과 교육은 여성의 책임이 크다	90
〈표 4-12〉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9 :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91
〈표 4-13〉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10 : 힘들 때 배우자가 의지가 된다 ·	92
〈표 4-14〉 항목별 의사결정 주체	93
〈표 4-15〉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1 : 자녀 교육	94
〈표 4-16〉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2 : 주택 구입(주거지역, 구입 시기 등) ·	95
〈표 4-17〉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3 : 투자 및 재산관리	96
〈표 4-18〉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4 : 생활비 지출	97
〈표 4-19〉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5 : 배우자의 취업, 직장 이동	98
〈표 4-20〉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6 : 가사 등 집안일	99

〈표 4-21〉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7 : 가족원 돌봄	100
〈표 4-22〉 항목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100
〈표 4-23〉 성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101
〈표 4-24〉 연령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102
〈표 4-25〉 지역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103
〈표 4-26〉 맞벌이 여부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104
〈표 4-27〉 지역*성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105
〈표 4-28〉 가구수입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106
〈표 4-29〉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108
〈표 4-30〉 코로나 19 이후 직장 상태의 변화 경험	109
〈표 4-31〉 인구특성별 코로나 19 이후 가장 큰 변화	111
〈표 4-32〉 인구특성별 코로나 19 이후 가사노동 증가 경험	112
〈표 4-33〉 인구 특성별 코로나 19 이후 가사노동 증가 원인(다중응답) ...	113
〈표 4-34〉 인구 특성별 코로나 19 이후 부부 관계 만족도 변화	115
〈표 4-35〉 인구 특성별 코로나 19 이후 자녀 관계 만족도 변화	116
〈표 4-36〉 심층면접 조사내용	119
〈표 4-37〉 심층면접 대상자	120



〈그림 1-1〉 2019 맞벌이 외벌이 부부의 시간 활용	8
〈그림 2-1〉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 비전 및 목표	25
〈그림 3-1〉 전라북도 성별 인구 추이	29
〈그림 3-2〉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	30
〈그림 3-3〉 시도별 3040세대 인구	32
〈그림 3-4〉 시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35
〈그림 3-5〉 전라북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36
〈그림 3-6〉 시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37
〈그림 3-7〉 전라북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38
〈그림 3-8〉 전라북도 3040세대 성별 혼인상태	39
〈그림 3-9〉 성별 가사노동 수행 여부	52
〈그림 3-10〉 전라북도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60
〈그림 3-11〉 여성의 가사분담률 추이	62
〈그림 4-1〉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108

1

장

연구의 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2018년 국가·지역성평등지수(2019. 12. 24 발표)에서 전북지역은 8개 분야 중 가족 분야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여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등 지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청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국가성평등 지수는 2014년 69.3점 대비 3.6점 상승한 72.9점으로 전국적으로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나,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16개 지역 중 중하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가족(16위), 의사결정(15위), 문화·정보(15위) 분야의 성평등 지수가 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¹⁾

〈표 1-1〉 지역 성평등지수 분야별·지역별 현황

○ 경제활동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제주	대전	대구	충북	서울	인천	충남	전북	경기	강원	부산	광주	경북	전남	경남	울산
점수	78.1	75.7	75.7	75.5	75.0	74.4	73.6	73.6	73.6	73.5	72.7	72.1	70.7	70.6	69.5	64.2

○ 의사결정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광주	울산	서울	대전	부산	제주	경기	대구	인천	충북	충남	강원	전남	경남	전북	경북
점수	46.3	44.6	44.0	44.0	41.7	39.6	39.5	38.8	38.5	36.1	36.1	35.2	31.9	30.7	30.0	29.5

○ 교육·직업훈련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울산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제주	경남	충북	전북	충남	강원	경북	전남
점수	96.1	96.0	95.7	95.5	95.4	95.0	94.8	94.8	93.8	93.7	93.3	92.8	92.7	92.4	91.9	90.8

1) 구체적인 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 복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제주	강원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전북	대구	전남	경기	인천	충북	울산	경남	충남	경북
점수	93.3	93.3	90.7	90.5	89.5	89.0	88.7	88.2	88.1	87.7	87.5	87.2	86.2	85.8	84.9	82.5

○ 보건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제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충북	전북	대구	강원	경북	충남	전남	경남	울산
점수	99.2	98.8	98.4	98.2	98.1	97.9	97.9	97.7	97.6	97.5	97.0	96.8	96.7	96.4	96.2	96.1

○ 안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전남	전북	부산	대구	경북	충북	울산	경기	강원	인천	경남	제주	충남	대전	광주	서울
점수	80.9	80.7	77.2	76.9	74.4	74.4	74.0	71.3	71.0	70.7	70.6	69.8	69.6	67.3	64.9	63.2

○ 가족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울산	경남	전남	제주	경북	대구	충남	부산	강원	서울	경기	충북	광주	인천	대전	전북
점수	67.2	65.8	63.3	62.7	62.6	61.8	60.7	60.4	60.3	59.7	59.6	59.2	58.1	57.0	56.4	56.3

○ 문화·정보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대전	광주	대구	경기	울산	서울	충북	인천	부산	충남	경남	경북	제주	강원	전북	전남
점수	95.0	93.6	93.4	92.4	92.4	92.1	91.9	91.6	91.1	90.4	90.0	89.4	89.4	83.9	83.7	81.6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1.2점 오른 72.9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12. 23일)

지역성평등지수에서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한 가족 관련 지표는 가사노동시간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육아휴직 성비로 구성되는데, 이에 대한 전복의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7년 이래 계속 하위권에 위치하였고, 가족분야의 성평등 역시 점차 하락하여 2019년에는 하위권으로 자리하였다. 이에 대해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에 따르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의 악화와 육아휴직의 성비 개선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주재선 외, 2019: xix). 이에 대해 성평등한 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들이 요청되고, 이를 위한 실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표 1-2〉 전라북도 가족 성평등 수준과 순위

분야 및 구성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가족	55.4	8	54.0	16	55.3	16	58.4	4	58.1	11	56.3	16
가사노동 시간성비	23.5	15	23.9	15	24.3	15	24.7	15	25.1	15	25.5	14
가족관계 만족도성비	95.2	9	89.0	16	94.5	10	99.8	3	95.7	4	91.5	10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100.0	1	99.2	6	97.3	13	100.0	1	100.0	1	94.1	14
육아휴직자 성비	2.9	9	4.1	11	5.2	11	8.9	8	11.6	12	14.1	15

자료: 주재선 외 2019: 253

나. 연구 목적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으며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가족 내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내의 역할 기대와 인식의 변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 성평등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가

족은 성평등 실천의 기본 단위로, 가족 구성원이 동등하게 이바지하고, 대우 받을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의 확대는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성별 격차를 명확하게 만들었다. 정부의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의 회복, 즉 기업의 규제 완화에 집중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마비가 일으키는 돌봄 부담이나 가사노동의 증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업 별로는 전업주부의 59.9%가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고 응답하여(국민일보 2020. 5. 20), 이에 대한 검토와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 분야의 성인지성 개선을 위해 가족생활 및 역할에 관한 인식과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성평등 명절 체감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여성 평균은 46.1점인 반면, 남성 평균은 70.1점으로 가족 내 역할분담과 만족도에 있어, 부부가 24점의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²⁾ 가족 내의 성평등, 가사활동, 양육활동, 경제적 분담 등의 성별 갈등적 요소들이 세대, 가족이 위치하고 있는 거주 지역, 문화, 경제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과 결합되어 복합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 사회의 다른 영역과의 협조와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가족 내 성평등을 위한 가족을 비롯한 정치 사회적 영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구를 확장해보고자 한다.

2)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성평등 체감점수 조사에서 '지난해 추석 명절은 얼마나 평등하다고 느꼈나'라는 물음에 여성은 평균 46.1점, 남성은 평균 70.1점을 매겼습니다 (KBS뉴스 2020. 1. 22).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 범위

1)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정책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 ~2022)』과 『제3차 건강가족기본계획(2016~2020)』,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기본계획(2018~2022)』 등에서 진행되는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복귀 강화를 위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하는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및 인식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비롯하여, 전북 내의 성평등 실천 관련 법령과 사업을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제도적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 실태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 실태에 관해서는 부부의 일상적인 결혼생활 실태와 성평등 수준 조사를 통해 결혼유형, 결혼방식, 혼인기간, 자녀수, 자녀 결혼여부, 손주 돌봄여부, 주거형태, 최종학력, 부부의 월 소득, 종교, 근로여부, 고용형태와 같은 일반적인 가족 환경에 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족 내 성평등 인식과 실천에 관련한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분담 정도,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 의사결정 주체 등의 가족 내 관계에 관련된 사항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관련한 실천 실태와 태도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체감효과와 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가족 내 성평등 실태 조사에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가사분담과 양육의 문제로 가장 첨예한 갈등을 경험하는 30-40대의 가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사노동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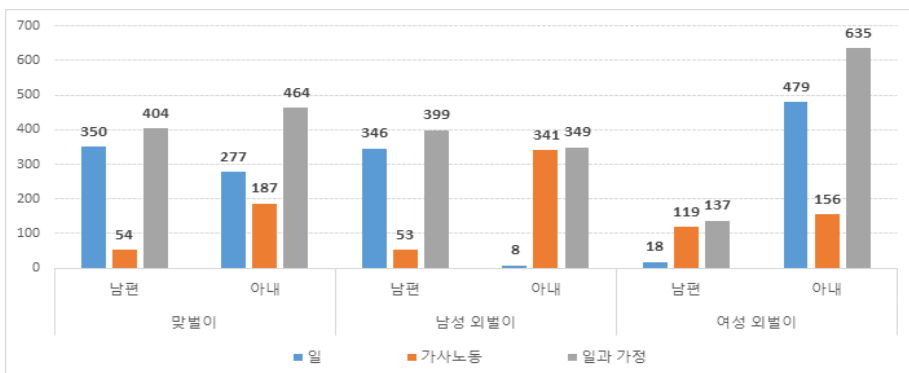
3) 전라북도 내 성평등 관련 사업 실행 방안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 실태 조사에 따른 성평등 현황과 가족 문화 개선을 위한 요청에 기반하여, 세대에 따른 성평등 교육과 사업을 제언하고, 성평등 확산을 위한 제도의 실천과 시행 확대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나. 주요 연구내용

1) 가족 경험의 교차성

가족 연구에 있어서, 동일한 가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 구성원의 동일한 경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구 안의 여성 빈곤의 규모가 과소 측정되거나, 여성의 숨겨진 빈곤을 감추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노혜진 2012: 69-70). 이에 따라 가구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여성이 가족 안에서 어느 정도 협상력을 지닐 수 있는지와 가족 내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젠더 플레이가 작동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노혜진 2012: 71-2). 빈곤 가구에서 여성이 생계를 부양함에 따라 가사 분담의 영역에서 협상력을 지닐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전통적 젠더 규범의 강화를 요구하는 가족 관계 속에서 심화된 가구 내 불평등을 경험하기도 한다(노혜진 2012; 안미영 2016). 201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맞벌이나, 여성 외벌이에 있어서도 가사노동 시간 투여가 남편에 비해 현격히 높아, 가정 내 노동 분화에 있어 젠더 불균등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2020

〈그림 1-1〉 2019 맞벌이 외벌이 부부의 시간 활용

또한, 일·가족양립 정책의 혜택이 전문직-중상소득층-여성들에게 집중되는 반면, 오히려 돌봄노동의 부담이 가중되기 쉬운 저소득층이 그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갈등의 심화를 경험한다는 연구(김영미 2014: 1-2)는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 제안에 있어, 가구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세심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2) 재난과 가족

일본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재난 사태 뒤에 국난 극복, 국가의 재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재건의 노력과 국민, 국가, 군대, 제국 등의 견제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남성성의 강화(Re-masculinizing)에 대한 연구(Koikari 2019)는 한국의 코로나19 이후의 극복 노력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경제 위기 극복 중심의 논의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제외되기 쉬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성평등 실현의 의지를 중심에 두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김현미 2020.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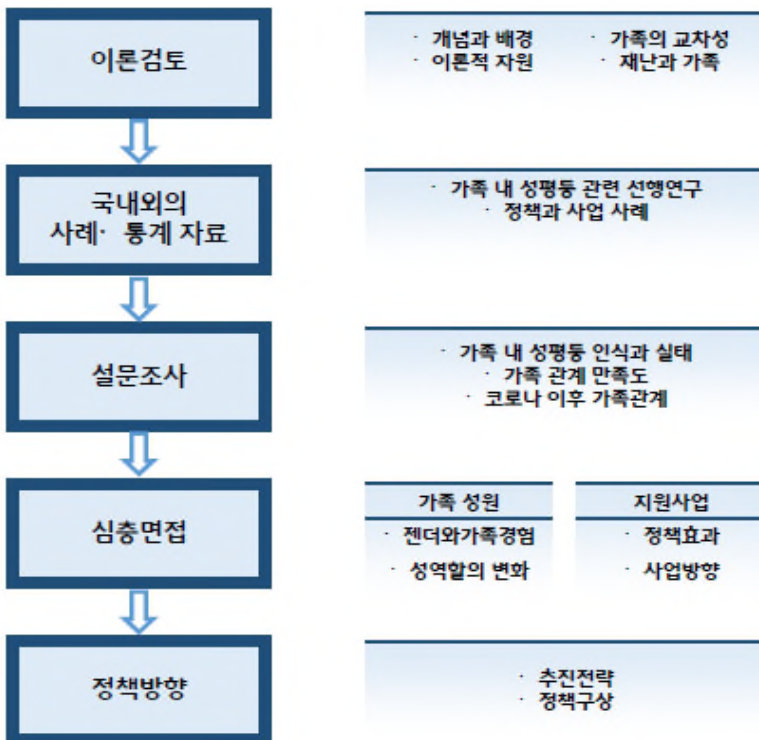
UN이 발간한 코로나19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United Nations 2019)는 경제적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적게 벌고, 적게 저축하고, 불안정한 직업으로 빈곤선 가까이에 위치한 여성이나 소녀들이 일자리 지속에 있어 더욱 불안정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United Nations 2019, 신경아 2020. 5. 19). 또한 건강에 있어서도 재생산권 관련 건강 문제는 의료 시스템의 재편 속에서 후순위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United Nations 2019, 여성신문 2020. 5. 8).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의 문제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긴 시간을 가족 안에서 보내면서 여성들은 더 긴 시간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United Nations 2019).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일정 정도 공교육과 분담하거나 민간서비스에 위탁했던 양육과 돌봄이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경우 남성보다 저임금인 여성들은 일을 그만두는 것을 ‘선택’하거나 ‘자의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거나, 가족 내의 다른 가족 및 친족 여성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프리티안 2020. 5. 16; 일다 2020. 5. 22).

가정 폭력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이후 가족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국내 첫 확진자 발생시점인 1월 20일 이후 4월 1일까지 112로 접수된 가정 폭력 신고건수는 45,065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47,378건 대비 4.9% 감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가정폭력 상담 전화의 감소는 부부가 같이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신고가 어려워진 위험신호로 파악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0).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가족의 내·외적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통해 주의 깊게 접근되지 않는다면, 성주류화 정책 실현의 난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 연구 추진체계



2

장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Jeonbuk Institute

-
1.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선행연구
 2.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정책 및 사업

제2장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1.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선행연구

가족 내 성평등에 관한 정책연구는 가족구성, 태도, 성평등 인식, 가족 내 만족도 등의 영역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족 내 성평등과 가사분담, 돌봄 참여를 통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연구는 남성에 대한 의식조사와 가사분담 참여 실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충남의 경우, 남성의 성평등 의식과 가사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참여도 등을 조사하여 가사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성평등 마을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김종철·정숙정, 2015). 경상남도의 경우는 연령, 직업, 학력별 구분을 통해 여성의 지위, 사회활동, 결혼관, 부모 부양 등에 대한 태도의 차이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참여에 대해 분석하였고, 가족생활 참여 장려와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제안하고 있다(배옥현 2016).

대구지역 남성의 일·가정양립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가사나 육아에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도 여전히 강한 편이어서 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성지혜 2017). 제주 지역 남성의 돌봄 참여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제주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남성의 돌봄 참여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성 돌봄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간주되는 ‘장시간 근무’라는 관점이 제주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성권과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제안하였다(강경숙·김선희, 2017).

부산지역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 내 성평등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크고, 연령에 따른 차이 역시 존재함을 보였다. 인식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역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성평등지수의 가족 영역 지표에 대

한 개선을 건의하였다(임현정·박지영 2018). 대구지역에서는 생애주기 중 ‘신중년’이라는 시기에 집중하여 결혼 실태를 조사하였다(성지혜 2019).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이모작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요청되었고, 부부의 소통과 취미와 여가활동 공동 참여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성지혜 2019).

서울시 관련 연구에서는 가족문화를 측정함에 있어서 가족관계(가족 내 의사소통, 갈등경험, 전반적인 만족도 등), 가족 가치(성역할 기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 수용도 등), 가족 행동(가족의례에서의 성차별 경험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기존의 가사 및 양육의 성평등 관점보다 확장된 연구를 진행하였다(강은애·고은비, 2019).

한편으로 여성정책연구원의 ‘가사노동’ 측정 문제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사노동 분업에 대한 연구에서 쉽게 의존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대한 투입시간 중심의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획이나 가사노동의 질적인 차이, 그리고 주, 월, 분기, 년 단위에 따른 기획이나 활동의 영역을 확대 고려하여 가사노동의 새로운 측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장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시간 비교에 비해, 기획 노동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 집밖 외출 동행이나 운전 등의 특정 항목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사노동의 성별 분업에 대해 재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다(김영란 외, 2018).

〈표 2-1〉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선행연구

연구과제	연도	주요 연구내용	정책제언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15	충남지역 남성의 성평등 의식 수준과 실천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함.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은 학교생활 영역, 가정생활 영역, 직장생활 영역, 사회생활 영역 순으로 높으며 가사활동에 대해서는 식생활과 재정 관리, 자녀 양육/교육 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나 참여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가사활동 중요성 인식이 높고,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가사활동 참여 정도가 높으나 재정관리 참여와 자녀양육 참여 정도는 성평등 의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농어촌 지역 방문 성 평등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성평등 의식과 가사활동 참여를 고양시킴. 또한 기업체 유치 지역의 낮은 가사활동 참여도 개선을 위하여 중장년 세대의 남성, 부부, 가족을 위한 젠더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 마지막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세대주(할아버지) 일수록 성평등 의식이 낮고 가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조사 결과에 따라 3세대 이상 혹은 6인 이상 거주 가구의 성평등 시범 가정을 선정하여 홍보함
경상북도 남성의 가족생활 및 역할에 관한 실태조사(경북 여성정책개발원)	2016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경상북도 남성의 가족생활과 가족 내 역할 실태 파악을 통해 경상북도의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경상북도 남성은 지역에 대해 보수적, 배타적, 남성 우호적으로 평가했으나 개인적 성향은 감정이 풍부하고 인정이 많으며 다문화 수용도가 높다고 평가함.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동거 가구원이 많거나 저연령대, 고학력, 고소득인 경우 높게 나타남. 자녀 돌봄은 배우자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령대가 낮고 동거가구원이 많을수록 남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 남성의 가사 및 자녀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가족정책, 남성 대상 인식/인성교육, 근로시간 단축/정시퇴근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경상북도에서 향후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도 단위 여성플라자 공간 내 '남녀평등추진센터'를 운영하여 남성 대상 교육과 성평등 의식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함. 또한 남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재확인하고 평등한 성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가 필요함. 가사노동과 관련한 캠페인 전개를 통하여 남녀 모두가 가족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 과 근로시간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을 지원함. 또한 남성이 가사일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가사 일에 대한 지식이 없고, 보고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타났으므로 남성들이 가정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함

연구과제	연도	주요 연구내용	정책제언
대구 남성의 일가정양립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대구 여성가족재단)	2017	일가정양립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남성의 참여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경향이 높은 대구 남성의 일가정양립 참여를 독려하고 일가정양립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대구 남성의 가사활동 참여가 낮은 이유는 업무 때문에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 아직 남자가 가사를 하는 것이 이상해서 응답률이 높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대구 남성의 인식은 공평하게 집안일을 나누기 보다는 휴식 후에 집안일을 도우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대구 남성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용률은 상당히 낮으며 특히 공무원과 그 외 직업군의 활용률이 확연히 구분됨	대구 남성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모델 강화를 통해 성평등을 지향하며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에 있어 호의적인 기업문화 변화가 이루어지는 등 대구 남성의 일가정양립 활성화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 일가정양립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정책으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의 일가정양립 지원 근거를 마련, 캐치플레이즈 공모·국제적 규모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남성의 일가정양립을 독려하고 가부장적인 대구 남성의 이미지 변화 홍보, 아빠와 아이,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정보 제공, 일가정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음
제주 지역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방안(제주 여성가족연구원)	2017	남성의 일-삶 양립 및 낮은 가사&양육은 성차별적인 문화, 노동 환경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남성의 돌봄 경험과 정책요구 등을 통해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주 도민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생계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가사와 양육 역시 여성이 전담하고 있으며 남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과 개인적인 용무에 할애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노동참여가 남성의 가사양육참여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함. 3040세대 남성들의 돌봄 참여 계기는 다양했으나 돌봄 참여 후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돌봄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은 돌봄 노동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것이었음. 제주 3040세대 남성은 '보육정책과 부모 양육 지원 강화', '직장 내 돌봄 친화 제도 강화', '돌봄 친화 환경 및 문화 조성' 등의 정책 지원을 요구함	제주 지역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3가지로 캠페인과 남성 대상 사업 실시를 통한 '부성권 관련 인식 개선', 남성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돌봄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성인지적 돌봄 및 일-삶 양립 지원 정책 강화', 성평등 교육, 성평등 여가문화 지원, 가족 친화적 캠페인 등을 통한 '성 평등한 여가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이며 이러한 정책은 정보 전달의 다각화를 통하여 '정책 접근성 강화'를 해야 함. 향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연동하여 제주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제주 지역 공동체의 성 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인 차이와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또한 제주 남성의 삶에 대한 기초적이고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 남성 연구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함

연구과제	연도	주요 연구내용	정책제언
부산지역 가족 내 성평등 실태와 개선방안(부산 여성가족개발원)	2018	부산 지역의 가족 내 성평등 인식, 가사 및 양육활동, 경제적 분담 등을 통해 가족 내 성평등 실태를 분석하여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 내 성평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내가 남편 보다 가족 내 성평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일가정양립 제도는 모든 항목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맞벌이인 경우 외벌이보다 가사와 양육의 분담 정도가 높았으나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또한 부산 시민은 가족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제도화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지역의 가족 내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육 강화가 중요함. 아동청소년기부터 성평등 의식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생애주기별, 교육대상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야 함. 또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통계 생산 체계를 개편하여 가족 내 성평등 실천을 위한 제도들을 개선해야하는데 특히 출산·양육·돌봄제도와 유연근무제도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부산 성평등보이스단 구성, 성평등 관련 언론 매뉴얼 제작, 성평등 체험관 설치 등 가족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여건을 조성해야 함
가사노동 시간 측정 및 행동평가 기준의 젠더불평등성 개선 방안(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18	현행 측정도구인 생활조사시간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 관련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 하고 있었음. 그러나 현행의 측정 도구는 기획시간, 질적 측면, 비정기적 노동의 불측정으로 인해 실제보다 가사노동 시간을 과소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한계점 보완을 위해 가사노동의 범주를 확대해야 함. 따라서 가사노동의 항목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계운영, 가족교류 및 행사, 자녀 관련 활동, 가족 돌봄 7개 영역 64개 항목으로 재구성함. 재구성 항목으로 성별 가사노동 수행 비율을 확인한 결과 여성은 64개 항목 중 44개 항목, 남성은 6개 항목의 수행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남. 수행주기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여성은 정기적 이고 빈번하게 해야 하는 가사노동 수행 비율이 높았으며 비정기적인 가사노동 활동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음. 수행주기별 수행 시간량 역시 여성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기존의 측정도구에 구체성을 보완하고 기획 등 확장된 가사노동 포함을 위하여 의생활(5항목), 식생활(8항목), 주생활(15항목), 가계 재무 설계(10항목), 가족교류 및 행사(8항목), 자녀 관련 활동 (12항목), 가족 돌봄(6항목) 7영역 63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제안함. 또한 비정기적 가사노동의 측정을 위하여 항목별 수행주기와 주기별 수행횟수, 소요시간을 측정해야하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례조사가 필요함.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이상적 가사분담을 위해서는 개인 단위에서는 가사 수행의 주체로서 남성의 주체성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가족 차원에서는 가정생활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구성원의 주체적의식을 강화해야하며 가족 내 역할 수행을 위한 구성원 간 협상력 강화가 필요함.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고 되어야하며 가사노동의 최소·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연구과제	연도	주요 연구내용	정책제언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원방안 연구(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9	정부, 서울시는 민주적 가족관계와 가족 내 양성평등을 강조하였으나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으로 가부장적 결혼·가족제도에 대한 기혼여성의 고충과 청년들의 인식 파악을 통해 성 평등한 가족문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서울시 가족 문화 설문조사 결과 가족 내 의사소통 만족도는 미혼보다 기혼, 여성보다 남성이 높으며 가족 내 갈등은 기혼자의 경우 '가사분담', 비혼자의 경우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기대'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은 비혼자와 여성 응답자가 기혼자와 남성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남. 가족 의례는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과거보다는 의식이 개선된 상태였으며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평등 정도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그 차이가 상당히 크고, 결혼 및 출산 의향이 없는 응답자가 의향이 있는 응답자보다 한국사회 가족 문화의 성평등 정도를 낮게 평가함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설정된 정책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결혼과 양육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비혼 가구,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등 다양한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한 가족문화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개선 방안은 가족 구성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중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 확산시켜야하며 남성이 가족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해야함.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성평등한 가족 의례 문화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며 서울시 성평등 가족지표 개발을 통해 가족문화의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대구지역 신중년 부부의 결혼생활 실태와 정책 대응방안(대구 여성가족재단)	2019	생애주기상 부모, 자녀 부양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큰 대구의 '신중년'의 결혼생활을 살펴보고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대구 지역 신중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여성이 수행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의 주요 결정상황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생활은 매우 부족한 편이며 갈등을 대화로 해결 하는 비중은 30%에 못 미침. 이혼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이혼하면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은 남성이 높음. 배우자에 대한 애정은 보통 이상 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이 높게 나타남. 여성은 결혼에서 경제적 안정이 남성은 결혼에서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함	신중년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단기 과제로 '대구 신중년플러스센터(가칭)' 설치를 제안함. 이는 전국적으로 신중년의 위치와 사회적 역할이 중시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신중년의 가족, 사회적 관계망, 노년의 삶의 질 상생을 위한 전반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임. 중장기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해야함. 과거와 현대의 결혼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며 부부 갈등의 중심에는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소유물이 아닌 평등한 관계임을 받아들여야 함. 또한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는 신중년의 노년을 위해 노인이 스스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는 다양한 노인 공동체 확산이 이루어져야 함

2.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정책 및 사업

가. 가족 내 성평등 관련 법령 현황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명시하고(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시책과 활동 영역을 제시한다. 특히 가족 내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제26조의 일·가정양립 지원과 제35조의 양성평등한 가족 조항과 제36조의 양성 평등한 교육에서 가족에서부터의 양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제1조 목적), 가족 내 성평등을 위해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장함에 의미가 있다(임현정 2018: 17).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건강가정’이라고 정의하고(제3조 정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명시하고(제1조 목적), 구체적인 가정에 대한 지원(제21조)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제26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제28조), 그리고 건강가족교육(제32조)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친화법)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가족친화 사회환경’으로 정의하고(제2조), 이러한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제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 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제4조). 또한, ‘제3장의 2 일·가정의

양립지원’에서 육아휴직, 육아지원, 및 가족돌봄 제도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법률에 더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 조례’와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 내의 성평등 실현과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

〈표 2-2〉 가족 내 성평등 관련 법령

법령	주요항목
양성평등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가정 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주요항목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가·폭력 등 위험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주요항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24조(일·가정 양립 지원) 도지사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노력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공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나.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정책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기관과 지자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법) 제정을 통해 가부장적인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기로 의무화되어있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이 2006년에 시작되어, 2016년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정책의 대상과 범주를 확대하고, 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가족정책 대응”을 위해 남성, 여성, 기업이 참여하는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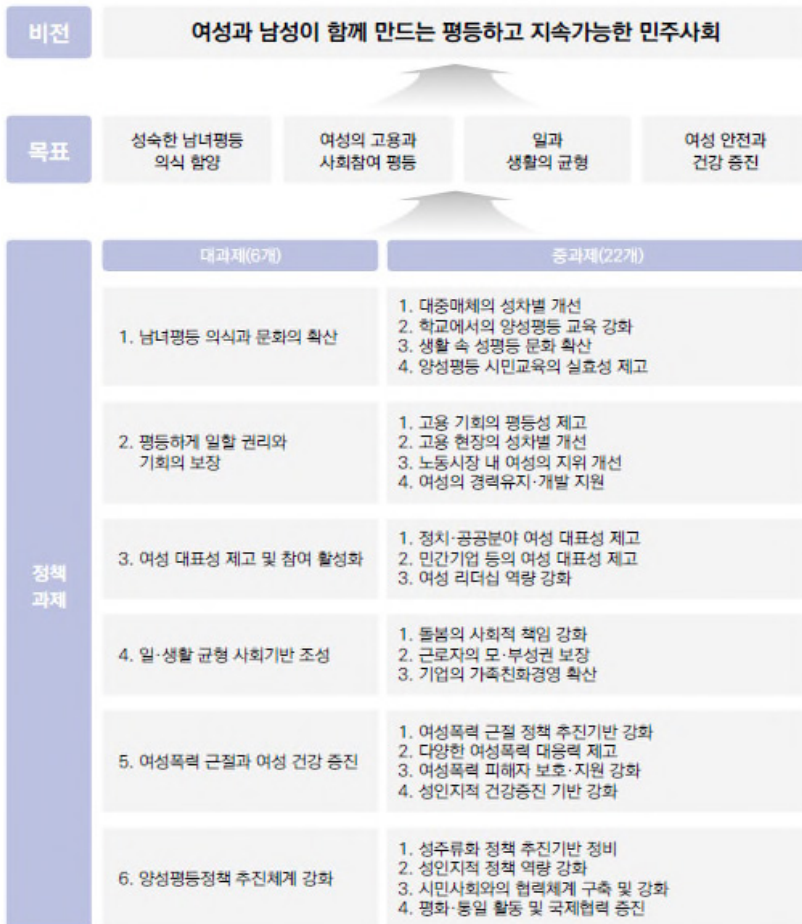
그러나 2015년에 수립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18년 8월 한부모·다문화 가족·1인 가구 등 가족 및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국민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보완하여 발표되었다(여성가족부, 2019)

〈표 2-3〉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보완

	2016	2018
정책 비전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정책 목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정책 과제	1.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1-1.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1-2. 가족상담 활성화 1-3. 가족여가활동 확대	1.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1-1. 평등한 가족생활 여건 조성 1-2.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3.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강화 3-1.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3-2.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 3-3. 가족돌봄 여건 조성	2. 함께 돌봄 체계 구축 2-1.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 2-2. 가족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2.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2-1. 맞벌이 가족 지원 2-2. 한부모가족 지원 2-3. 다문화가족 지원 2-4. 취약·위기 가족 지원	3.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 3-2.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4.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4-1.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 4-2.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4-3.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촉진	4.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4-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4-2. 기업의 일·생활 균형 촉진
	6.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6-1. 가족정책 법·제도 정비 6-2.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6-3.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5. 가족정책 기반 조성 5-1. 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5-2.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5.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5-1.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5-2. 임신부 배려문화 조성 5-3. 행복한 육아문화 확산 5-4.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1.2점 오른 72.9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12. 23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족기본계획』 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추진하고 있다. 남녀평등 의식·문화의 확산과 성별 고용격차 해소 및 여성대표성 제고,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정착,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일·생활균형 사회기반조성을 위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 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13

〈그림 2-1〉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 비전 및 목표

고용노동부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과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나 아빠육아 참여 확산을 위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

전라북도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가정양립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돌봄 지원과 일·가족양립 기반 구축을 위해 “일·가정양립, 아빠 육아 참여 캠페인 및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장

가족 내 성평등 관련 현황

-
1. 전라북도 인구 및 가구 현황
 2.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가족 내 성평등 현황
 3.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 현황

제 3 장 가족 내 성평등 관련 현황

1. 전라북도 인구 및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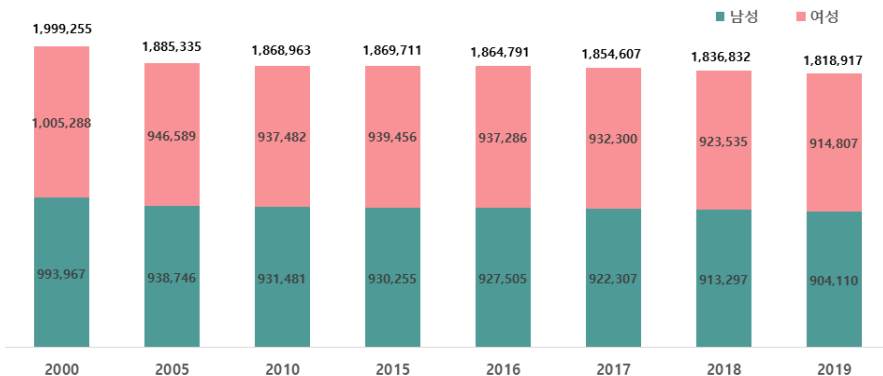
가. 인구 현황

2019년 기준 전라북도 인구는 1,818,917명이며 그 중 남성은 904,110명(49.7%), 여성은 914,807명(50.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 1,999,255명이었던 전라북도 인구는 2019년 1,818,917명으로 2000년 대비 약 9.0%가 감소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전국의 추세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 전라북도 성별 인구 추이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999,255	1,885,335	1,868,963	1,869,711	1,864,791	1,854,607	1,836,832	1,818,917
남성	993,967	938,746	931,481	930,255	927,505	922,307	913,297	904,110
여성	1,005,288	946,589	937,482	939,456	937,286	932,300	923,535	914,807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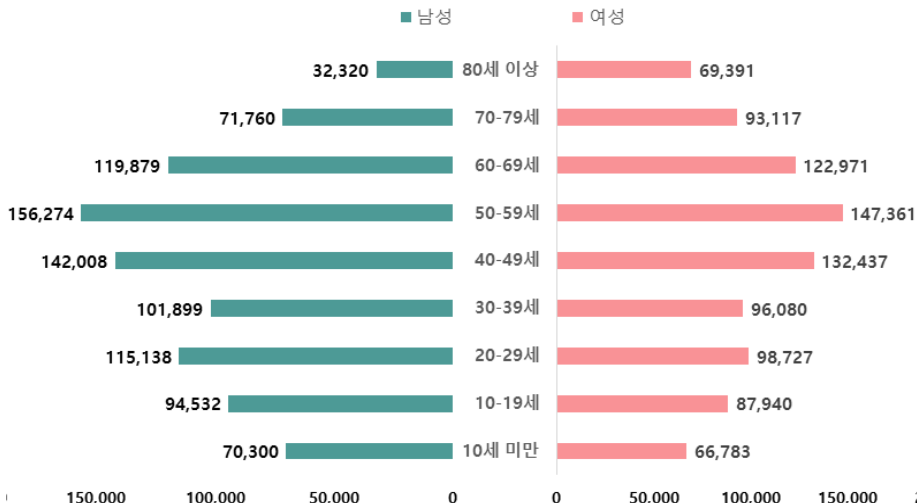
〈그림 3-1〉 전라북도 성별 인구 추이

전라북도의 연령별 인구 구성을 살펴본 결과, 50대 인구가 303,635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274,445명, 60대 242,850명 순으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60대 중장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라북도 인구의 45.1%로 나타났으며 19세 이하의 유소년·청소년층 인구는 17.6%, 20~30대 청년층은 22.6%, 70대 이상 노년 인구는 14.7%를 구성하여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20~30대 청년층 구성비가 낮고, 70대 이상 노년층 구성비가 높았다. 성별로는 50대까지는 전 연령층에서 여성보다 남성인구가 많았으나 60대 이상부터는 여성인구가 더 많았으며 8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여성인구가 남성인구의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137,083	182,472	213,865	197,979	274,445	303,635	242,850	164,877	101,711
남성	70,300	94,532	115,138	101,899	142,008	156,274	119,879	71,760	32,320
여성	66,783	87,940	98,727	96,080	132,437	147,361	122,971	93,117	69,391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그림 3-2〉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654,394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287,771명, 군산시 270,131명 순으로 인구가 많이 나타났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장수군으로 22,441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군(24,303명)과 진안군(25,697명)도 거주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6개 시지역 인구는 1,488,173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81.8%가 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개의 군지역 중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92,220명)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군지역에는 전라북도 인구 중 13.1%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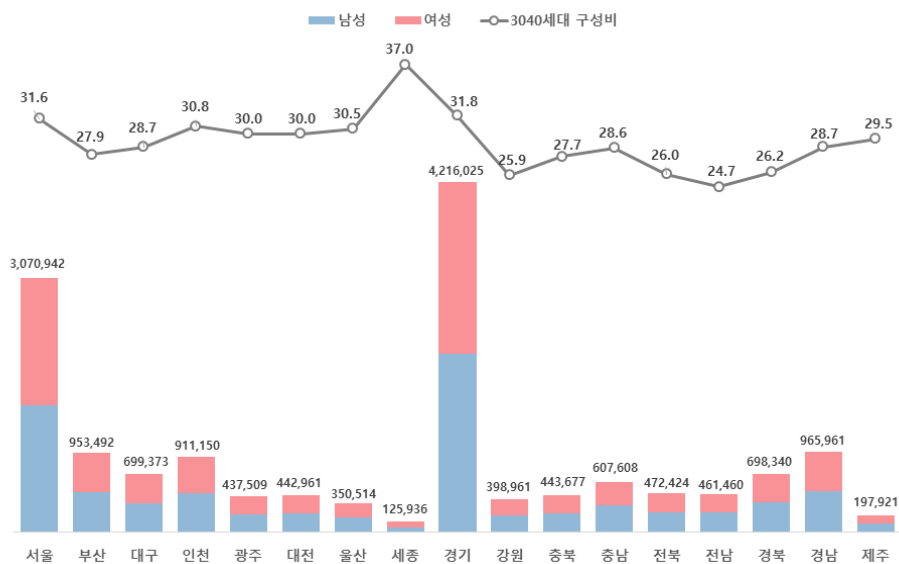
〈표 3-3〉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

	2010			2019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라북도	1,868,963	931,481	937,482	1,818,917	904,110	914,807
전주시	641,525	316,749	324,776	654,394	322,236	332,158
군산시	272,601	138,380	134,221	270,131	136,421	133,710
익산시	307,289	153,673	153,616	287,771	143,392	144,379
정읍시	122,000	60,396	61,604	110,541	54,736	55,805
남원시	87,775	43,236	44,539	81,441	39,884	41,557
김제시	94,346	46,941	47,405	83,895	41,624	42,271
완주군	85,119	43,775	41,344	92,220	47,290	44,930
진안군	27,543	13,880	13,663	25,697	12,966	12,731
무주군	25,578	12,684	12,894	24,303	12,090	12,213
장수군	23,386	11,653	11,733	22,441	11,165	11,276
임실군	30,593	15,488	15,105	28,902	14,659	14,243
순창군	30,209	14,829	15,380	28,382	13,756	14,626
고창군	60,861	30,030	30,831	55,504	27,418	28,086
부안군	60,138	29,767	30,371	53,295	26,473	26,822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전라북도 인구 중 30~49세 연령에 해당하는 3040세대는 472,4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층은 여성(228,517명)보다 남성(243,907명) 인구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총 인구 중 26.0%를 구성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3040세대 구성비는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준인데

가장 3040세대 구성비가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24.7%)이며 강원도(25.9%)와 전라북도(26.0%)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3040세대의 구성비가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체 인구 중 37.0%가 304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31.8%), 서울특별시(31.6%), 인천광역시(30.8%) 등도 3040세대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그림 3-3〉 시도별 3040세대 인구

나. 가구 현황

전라북도의 세대구성별 가구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라북도의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00년(601,965가구)에 비해 2019년(738,307가구) 전라북도의 일반 가구는 약 22.6%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세대구성별 가구는 2세대 가구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32.3%, 1세대 가구 20.9%, 3세대 가구 4.0%, 비친족 가구 1.6%, 4세대 이상 가구 0.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중이 큰 가구는 2세대 가구였으나 2세대 가구의 비중은 2000년(54.2%)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3세대 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가구의 수와 비중 모두 감소하고 있다. 반면 1세대 가구와 비친족 가구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가구의 경우도 2000년 104,780가구에 불과하던 가구가 2019년 238,746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구성비 역시 2000년 17.4%에서 2019년 32.3%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3-4〉 전라북도 세대구성별 가구 추이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 가구	601,965 (100.0)	619,958 (100.0)	659,946 (100.0)	717,311 (100.0)	724,678 (100.0)	728,871 (100.0)	732,980 (100.0)	738,307 (100.0)
1세대 가구	110,318 (18.3)	128,000 (20.6)	142,318 (21.6)	142,173 (19.8)	140,645 (19.4)	145,724 (20.0)	149,507 (20.4)	154,246 (20.9)
2세대 가구	326,249 (54.2)	303,695 (49.0)	296,116 (44.9)	314,324 (43.8)	314,613 (43.4)	310,575 (42.6)	307,884 (42.0)	303,319 (41.1)
3세대 가구	53,177 (8.8)	44,029 (7.1)	39,902 (6.0)	38,684 (5.4)	37,749 (5.2)	34,707 (4.8)	32,268 (4.4)	29,672 (4.0)
4세대 이상 가구	1,184 (0.2)	836 (0.1)	555 (0.1)	540 (0.1)	517 (0.1)	411 (0.1)	337 (0.0)	291 (0.0)
1인 가구	104,780 (17.4)	136,754 (22.1)	175,026 (26.5)	213,750 (29.8)	222,201 (30.7)	227,600 (31.2)	232,587 (31.7)	238,746 (32.3)
비친족 가구	6,257 (1.0)	6,644 (1.1)	6,029 (0.9)	7,840 (1.2)	8,953 (1.2)	9,854 (1.4)	10,397 (1.4)	12,033 (1.6)

주 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2)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가족형태별 가구는 2000년 기준으로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가 247,122가구로 가장 많았으나 해당 형태의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9년에는 177,572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구 중 부부와 미혼자녀 형태의 가족이 구성하는 비율은 2000년 41.1%에서 2019년 24.1%로 해당 기간 동안 약 17.0%p 감소하였다. 부부+양(편)친, 부부+미혼자녀+양(편)친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부부, 한부모+미혼자녀, 조부모+미혼 손자녀, 1인가구, 비친족 가구 등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가장 증가 추세가 뚜렷한 가족형태는 1인가구로 나타났다.

〈표 3-5〉 전라북도 가족형태별 가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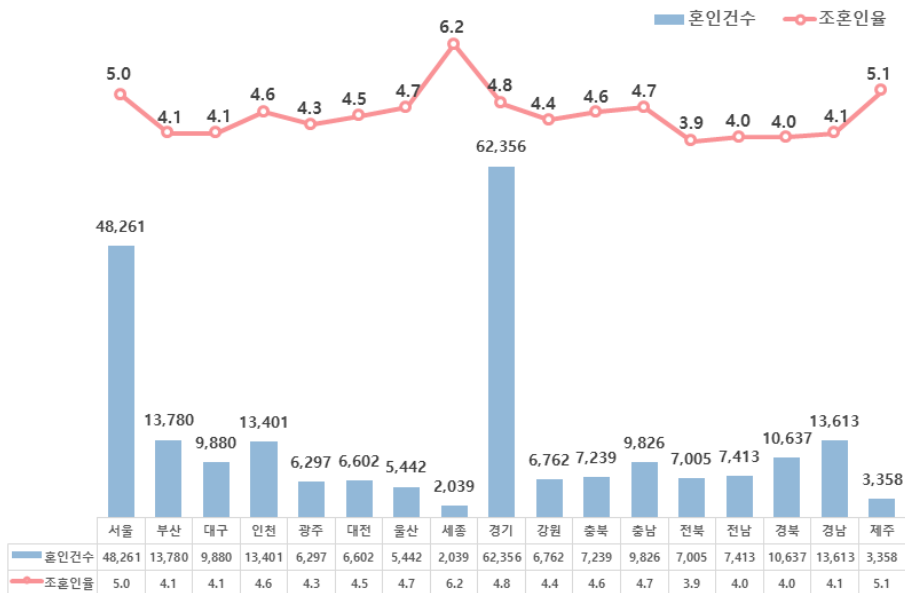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가구	601,965 (100.0)	619,958 (100.0)	659,946 (100.0)	717,311 (100.0)	724,678 (100.0)	728,871 (100.0)	732,980 (100.0)	738,307 (100.0)
부부	100,911 (16.8)	119,014 (19.2)	132,177 (20.0)	130,239 (18.2)	128,876 (17.8)	133,329 (18.3)	136,715 (18.7)	141,230 (19.1)
부부+ 미혼자녀	247,122 (41.1)	220,363 (35.5)	203,703 (30.9)	185,516 (25.9)	185,165 (25.6)	183,536 (25.)	180,840 (24.7)	177,572 (24.1)
한부모+ 미혼자녀	45,746 (7.6)	49,884 (8.0)	55,797 (8.5)	77,426 (10.4)	75,606 (10.4)	75,442 (10.4)	75,827 (10.3)	75,265 (10.2)
조부모+ 미혼 손자녀	3,266 (0.5)	3,862 (0.6)	6,572 (1.0)	6,046 (0.8)	5,605 (0.8)	5,632 (0.8)	5,460 (0.7)	5,229 (0.7)
부부+ 양(편)친	8,994 (1.5)	9,311 (1.5)	8,216 (1.2)	6,694 (0.9)	6,760 (0.9)	5,963 (0.8)	5,804 (0.8)	5,740 (0.8)
부부+미혼자 녀+양(편)친	36,013 (6.0)	28,078 (4.5)	24,396 (3.7)	20,583 (2.8)	20,482 (2.5)	18,558 (2.5)	17,168 (2.3)	15,442 (2.1)
1인가구	104,780 (17.4)	136,754 (22.1)	175,026 (26.5)	213,750 (30.7)	222,201 (31.2)	227,600 (31.2)	232,587 (31.7)	238,746 (32.3)
비친족 가구	6,257 (1.0)	6,644 (1.1)	6,029 (0.9)	7,840 (1.2)	8,953 (1.4)	9,854 (1.4)	10,397 (1.4)	12,033 (1.6)
기타 가족	48,876 (8.1)	46,048 (7.4)	48,030 (7.3)	69,217 (9.8)	71,030 (9.5)	68,957 (9.5)	68,182 (9.3)	67,050 (9.1)

주 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2)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
 3) 기타가족에는 부부+미혼형제자매, 부부+기타친인척, 부부+미혼자녀+미혼형제자매 등이 포함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다. 결혼 및 이혼 현황

17개 시도의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을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전라북도의 혼인건수는 7,005건이며 조혼인율은 3.9%로 나타났다. 2019년 혼인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2,356건이며 서울특별시가 48,261건으로 혼인건수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인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2,039건), 제주특별자치도(3,358건), 울산광역시(5,44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17개 시도 중 7번째로 혼인건수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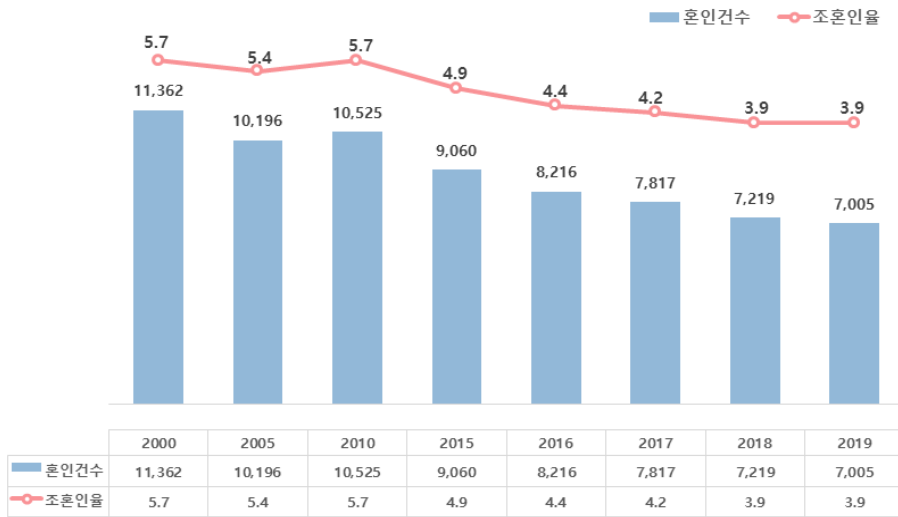
조혼인율은 전국 평균이 4.7%이었으나 전북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3.9%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조혼인율로 나타나 전라북도가 인구 대비 혼인율이 매우 적은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혼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조혼인율이 6.2%이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5.1%, 서울특별시 5.0% 순으로 조혼인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9

〈그림 3-4〉 시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전라북도의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기준 11,362건이었던 전라북도의 혼인건수는 2019년 기준 7,005건으로 38.3%가 감소하였다. 인구 천 명당 혼인율을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2000년 기준 5.7%에서 2019년 3.9%로 해당 기간 동안 1.8%p가 감소하여 혼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3-5〉 전라북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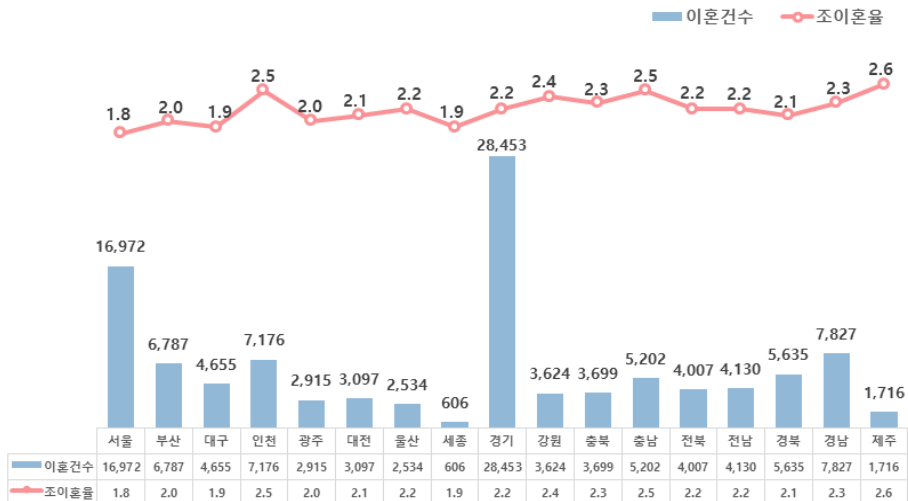
평균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혼연령의 증가 속도는 전국보다 전라북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전라북도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67세, 여성 30.34세로 전국 평균(남성 33.37세, 여성 30.59세)과 비교했을 때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라북도가 더 높고, 여성의 초혼연령은 전국 평균이 더 높았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0년 기준 남성은 28.81세, 여성은 25.72세가 평균 초혼연령이었으나 약 20여 년간 남성의 초혼연령은 4.86세, 여성의 초혼연령은 4.62세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가 정도(남성 4.09세, 여성 4.1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3-6〉 평균 초혼연령 추이

	전국		전라북도	
	남편	아내	남편	아내
2000	29.28	26.49	28.81	25.72
2005	30.87	27.72	30.76	27.19
2010	31.84	28.91	31.77	28.48
2015	32.57	29.96	32.58	29.40
2019	33.37	30.59	33.67	30.3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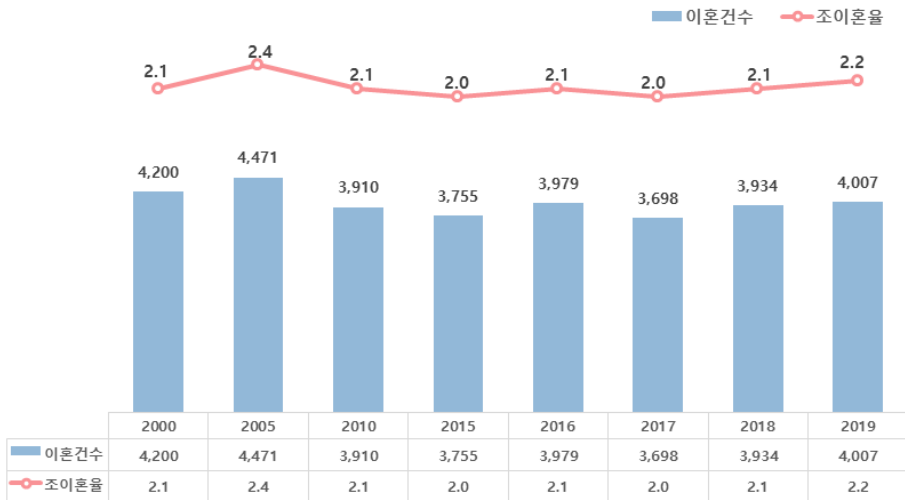
2019년 기준 시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을 살펴본 결과, 전라북도의 이혼건수는 4,007건이며 가장 이혼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8,453건, 가장 이혼건수가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606건으로 나타났다.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의 경우 전라북도는 2.2%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가 2.5%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특별시가 1.8%, 대구광역시와 세종시가 각각 1.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이혼율을 보였다.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9

〈그림 3-6〉 시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2000년 이후 전라북도의 이혼건수는 등락을 반복하기는 하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4,200건이던 이혼건수는 2005년 4,471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 다시 3,910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3,000건 중후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9년 4,007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조이혼율 역시 2000년 2.1%에서 2005년 2.4%로 소폭 증가하였고, 이후 2.0~2.1%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9년 2.2%로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3-7〉 전라북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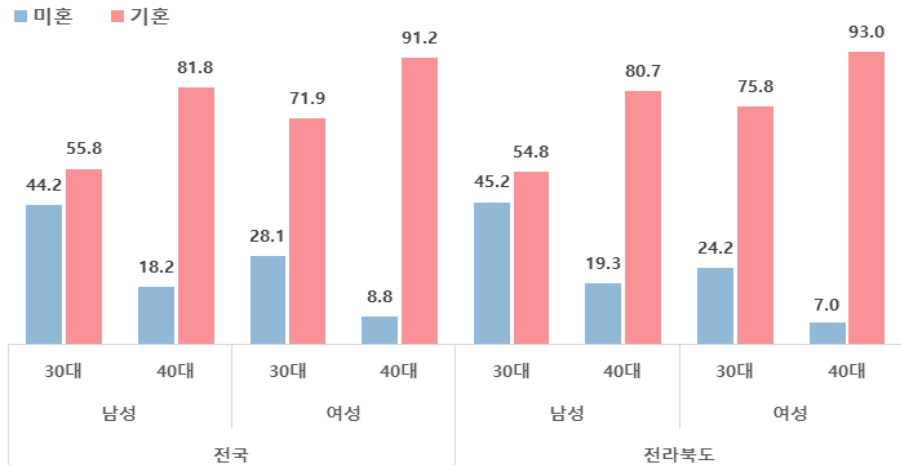
이혼건수는 등락을 반복하며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혼인 대비 이혼비율은 2000년 37.0%에서 2019년 57.2%로 20.2%p 증가하였다. 전국의 경우 2000년 36.0%에서 2019년 46.3%로 약 10.3%p만이 증가하여 전북의 혼인 대비 이혼비율의 증가세가 전국과 비교할 때 2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전국			전라북도		
	혼인건수	이혼건수	혼인 대비 이혼비율	혼인건수	이혼건수	혼인 대비 이혼비율
2000	332,090	119,455	36.0	11,362	4,200	37.0
2005	314,304	128,035	40.7	10,196	4,471	43.9
2010	326,104	116,858	35.8	10,525	3,910	37.1
2015	302,828	109,153	36.0	9,060	3,755	41.4
2016	281,635	107,328	38.1	8,216	3,979	48.4
2017	264,455	106,032	40.1	7,817	3,698	47.3
2018	257,622	108,684	42.2	7,219	3,934	54.5
2019	239,159	110,831	46.3	7,005	4,007	57.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전라북도 3040세대의 혼인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의 30대 남성 중 미혼은 45.2%, 기혼은 54.8%로 기혼자가 절반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24.2%가 미혼, 75.8%가 기혼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기혼자의 비율이 약 20%p 더 높았다. 40대의 경우 남성은 19.3%, 여성은 7.0%만이 미혼으로 나타나 기혼자의 비율이 30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그림 3-8〉 전라북도 3040세대 성별 혼인상태

2.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가족 내 성평등 현황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된 『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 분석을 통해, 전 북지역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 삶의 방식, 성역할태도, 자녀양육, 부모부양 태도 및 실천,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대화시간, 갈등경험, 자녀돌봄, 가족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가. 가족에 대한 가치관

1)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10가지 문항 중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는 문항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남성의 66.1%, 여성의 71.6%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응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과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문항이었으며 남성 38.5%, 여성 41.8%가 동의하였다. 성별 응답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이혼 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재혼하는 것이 좋다’로 남성은 29.7%만이 부정적 응답을 한 반면 여성은 41.3%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재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문항은 남성의 27.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여성은 38.0%가 응답하여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과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남성	100.0	29.7	31.8	38.5
	여성	100.0	28.9	29.4	41.8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남성	100.0	45.2	27.9	27.0
	여성	100.0	35.6	26.4	38.0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남성	100.0	49.8	29.5	20.7
	여성	100.0	51.5	27.1	21.4
이혼 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재혼하는 것이 낫다	남성	100.0	29.7	40.0	30.2
	여성	100.0	41.3	36.9	21.7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	남성	100.0	40.4	28.0	31.6
	여성	100.0	33.1	26.0	40.9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남성	100.0	55.3	26.1	18.6
	여성	100.0	50.6	25.3	24.1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	남성	100.0	66.1	23.5	10.4
	여성	100.0	71.6	19.6	8.7
부부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다	남성	100.0	58.8	29.0	12.3
	여성	100.0	52.5	31.2	16.3
외국인과 결혼해도 괜찮다	남성	100.0	30.0	35.4	34.6
	여성	100.0	29.8	32.5	37.7
입양한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만큼 잘 키울 수 있다	남성	100.0	34.1	34.4	31.4
	여성	100.0	35.1	31.9	32.9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2)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은 38.5%, 여성은 41.8%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49.8%, 여성은 51.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남성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그렇다는 응답률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의 시댁에 대

한 의무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과거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집안일의 역할이나 부양의 책무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9〉 성역할 태도

		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남성	100.0	29.7	31.8	38.5
	여성	100.0	28.9	29.4	41.8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다	남성	100.0	45.2	27.9	27.0
	여성	100.0	35.6	26.4	38.0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남성	100.0	49.8	29.5	20.7
	여성	100.0	51.5	27.1	21.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한다	남성	100.0	29.7	40.0	30.2
	여성	100.0	41.3	36.9	21.7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한다	남성	100.0	40.4	28.0	31.6
	여성	100.0	33.1	26.0	40.9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3) 자녀와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항목에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의 70.0%, 남성의 67.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항목은 부정적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 24.3%, 남성 25.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남성(60.0%)보다 여성(67.4%)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있다’는 응답률도 남성(44.6%)보다 여성(52.6%)이 8.0%p 높게 나타났다.

〈표 3-10〉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남성	100.0	7.5	24.6	67.9
	여성	100.0	7.5	22.4	70.0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남성	100.0	25.8	34.2	40.0
	여성	100.0	24.3	30.5	45.2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남성	100.0	17.0	31	52.0
	여성	100.0	17.7	27.1	55.2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남성	100.0	15.5	32.2	52.3
	여성	100.0	15.0	26.6	58.4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있다	남성	100.0	20.2	35.2	44.6
	여성	100.0	17.8	29.5	52.6
자녀를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남성	100.0	10.7	29.3	60.0
	여성	100.0	9.1	23.5	67.4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4)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에 대한 생각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에 대한 생각을 확인한 결과 부모 부양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먼저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남성은 절반에 가까운 48.2%가 동의하였지만 여성은 36.9%만이 동의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31.9%로 남성보다 10%p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남성은 60.3%, 여성은 54.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남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으며 ‘아들, 딸 구분 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은 남성(65.2%)과 여성(67.4%)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1〉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에 대한 생각

		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남성	100.0	22.6	29.2	48.2
	여성	100.0	31.9	31.3	36.9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남성	100.0	12.0	27.6	60.3
	여성	100.0	15.7	29.8	54.5
아들, 딸 구분 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남성	100.0	7.8	27	65.2
	여성	100.0	8.3	24.3	67.4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남성	100.0	19.2	32.1	48.7
	여성	100.0	20.0	30.7	49.3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남성	100.0	32.8	34.1	33.0
	여성	100.0	35.9	29.7	34.3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남성	100.0	40.8	39.1	20.0
	여성	100.0	45.2	35.7	19.1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경제적, 돌봄 도움)	남성	100.0	53.7	33.1	13.3
	여성	100.0	54.5	31.4	14.1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5) 부모님과과의 접촉빈도

부모님과의 접촉빈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모님과의 연락은 거의 매일 한다는 응답률은 남성 7.1%, 여성 12.9%로 여성이 더 높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는 응답률 역시 남성(27.0%)보다 여성(31.8%)이 더 높았다. 본인 부모님과의 만남 역시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다는 응답률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 부모님과 거의 매일 연락한다는 응답률은 남성 1.3%, 여성 2.9%이며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한다는 응답률 역시 남성 9.9%, 여성 17.4%로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 부모님과 더 자주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부모님과의 만남 빈도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12〉 부모님과과의 접촉 빈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해당 없음
나의 부모님과과의 연락	남성	7.1	27.0	22.2	6.1	2.8	34.8
	여성	12.9	31.8	22.5	6.2	2.5	24.1
나의 부모님과과의 만남	남성	3.2	10.9	25.9	22.7	2.6	34.8
	여성	4.2	12.4	27.4	28.9	3.0	24.1
배우자의 부모님과과의 연락	남성	1.3	9.9	23.4	17.7	7.0	40.6
	여성	2.9	17.4	22.8	8.2	3.9	44.7
배우자의 부모님과과의 만남	남성	1.1	6.0	18.9	29.4	3.9	40.6
	여성	1.8	7.5	20.1	23.3	2.5	44.7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6) 부모님과과의 관계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는 문항에 있어서는 본인 부모님의 경우 5점 만점에 남성 2.49점, 여성 2.77점으로 여성이 더 높았으며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에도 남성은 1.95점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2.08점으로 남성보다는 배우자의 부모에게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나는 부모님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문항 역시 나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평점이 높아 남성보다 여성이 양가 부모님의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다.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나의 부모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평점이 나타났지만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점이 높았으며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갈등이 있다)’ 문항에서는 나의 부모님은 여성보다 남성이, 배우자의 부모님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그렇다는 응답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부모님과과의 관계

	나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	2.49	2.77	1.95	2.08
나는 부모님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46	3.59	2.87	3.09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3.45	3.64	2.98	2.93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갈등이 있다)	2.44	2.31	2.33	2.60

주 :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나. 가족 내 성평등

1)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을 확인한 결과, 자녀의 교육과 생활비 지출, 가사 등 집안일, 가족원 돌봄은 아내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주택 구입문제나 투자 및 재산관리, 배우자의 취업/직장이동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에 관여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그 외에는 아내보다는 남편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 등 집안일의 경우 아내가 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이 74.5%에 달하였으며 가족원 돌봄(63.7%), 생활비 지출(59.0%)도 과반 이상이 아내 위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14〉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 아내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 없음
자녀 교육	100.0	2.8	4.6	36.8	30.9	18.7	6.1
주택 구입문제	100.0	7.7	18.1	57.5	10.8	5.9	0
투자 및 재산관리	100.0	8.4	20.3	43.6	18.1	9.7	0
생활비 지출	100.0	3.5	8.4	29.1	39.0	20.0	0
배우자의 취업, 직장이동	100.0	11.8	23.7	51.7	7.4	5.3	0
가사 등 집안일	100.0	0.7	1.5	23.4	42.6	31.9	0
가족원 돌봄	100.0	0.9	2.6	32.8	37.6	26.1	0.1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2) 부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및 만족도

20대부터 4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50대 이후부터는 다시 평균 대화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

		계	전혀 하지 않음	30분미만	30분~ 1시간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연령	20세 미만	100.0	0.0	34.6	0.0	33.1	32.3
	20대	100.0	0.7	7.9	27.3	36.6	27.4
	30대	100.0	0.3	24.5	38.3	24.7	12.3
	40대	100.0	2.3	34.4	37.3	17.3	8.8
	50대	100.0	2.0	34.1	33.3	18.3	12.3
	60대	100.0	1.8	26.4	31.9	22.1	17.8
	70세 이상	100.0	2.3	21.9	27.7	23.9	24.2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여성(37.7%)보다 남성(44.5%)이 더 만족하고 있었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여성(6.5%)의 응답률이 남성(2.3%)의 3배 가까이 높았다. 배우자와 의사소통 만족도는 평균 대화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대화 시간이 많은 편이었던 20대의 만족도가 60.8%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점 감소하여 50대의 만족도가 37.3%로 가장 낮았다.

〈표 3-16〉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계	불만족	보통	만족
성별	남성	100.0	2.3	41.5	44.5
	여성	100.0	6.5	37.6	37.7
연령	20세 미만	100.0	0.0	67.7	32.3
	20대	100.0	4.0	26.5	60.8
	30대	100.0	3.4	33.2	46.9
	40대	100.0	5.2	40.9	38.8
	50대	100.0	5.3	41.0	37.3
	60대	100.0	3.5	43.8	40.0
	70세 이상	100.0	2.9	42.7	42.3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3) 부부의 갈등경험

부부의 갈등 경험을 전혀 없음(1점)부터 매우 자주 있음(5점)으로 측정해 본 결과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경우(남성 2.49점, 여성 2.70점)가 다른 영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정도(남성 2.51점, 여성 2.58점)도 높았다. 성별 간 응답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영역은 ‘배우자의 부모/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의 생활방식’,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으로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해당 영역에서 갈등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부부의 갈등 경험

	남성	여성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2.25	2.16
배우자의 부모/형제와의 관계	2.10	2.32
배우자의 생활방식	2.27	2.52
자녀교육 문제	2.31	2.39
경제적 문제	2.51	2.58
가사 및 육아분담	2.21	2.28
배우자와의 성생활	2.16	2.15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2.49	2.70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부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남성의 15.1%, 여성의 22.6%가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보다 여성이 이혼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응답자들의 이혼 고민 경험이 33.1%로 가장 높았고, 40대 23.7%, 50대 20.9%, 30대 19.9%, 20대 18.5%, 60대 12.5%, 70세 이상 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부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고민 경험

		계	있음	없음
성별	남성	100.0	15.1	84.9
	여성	100.0	22.6	77.4
연령	20세 미만	100.0	33.1	66.9
	20대	100.0	18.5	81.5
	30대	100.0	19.9	80.1
	40대	100.0	23.7	76.3
	50대	100.0	20.9	79.1
	60대	100.0	12.5	87.5
	70세 이상	100.0	5.5	94.5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이혼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이혼한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외로울 것 같아서’, ‘혼자서 자녀양육과 살림을 하기 어려워서’, ‘주변의 시선, 가족의 실망 때문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자식 때문에’, ‘경제적으로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응답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경우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후부터는 ‘주변의 시선, 가족의 실망 때문에’, ‘이혼한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외로울 것 같아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9〉 심각한 갈등에도 이혼하지 않은 이유 (1순위)

		계	주변의 시선, 가족의 실망 때문에	경제적으로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혼자서 자녀양육과 살림을 하기 어려워서	이혼한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외로울 것 같아서	자식 때문에	기타
성별	남성	100.0	20.3	5.1	8.0	19.3	43.5	3.8
	여성	100.0	17.2	9.3	4.6	14.7	51.5	2.8
연령	20세 미만	100.0	100.0	0.0	0.0	0.0	0.0	0.0
	20대	100.0	24.6	2.9	11.4	8.0	53.1	0.0
	30대	100.0	10.2	6.6	7.6	11.4	61.7	2.5
	40대	100.0	17.3	5.2	6.7	14.9	52.2	3.8
	50대	100.0	23.4	10.9	5.2	20.6	37.3	2.6
	60대	100.0	21.1	8.5	1.9	24.8	38.0	5.9
	70세 이상	100.0	28.7	10.0	3.3	15.5	39.5	2.8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4) 부부 간 자녀돌봄 분담 정도

부부 간 자녀돌봄 분담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함께 놀아주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률이 60~80%로 나타나 자녀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남편보다는 아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주로 담당하는 자녀돌봄 영역은 ‘학교나 보육 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82.6%), ‘교육(보육) 시설 알아보기’(77.5%), ‘학교와 보육시설 등의 행사 참여, 방문, 봉사활동 등’(77.0%), ‘옷 입는 것 도와주기’(75.3%), ‘밥 먹는 것 도와주기’(73.3%),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73.1%), ‘취침준비 및 재워주기’(72.0%) 등으로 나타났다. ‘함께 놀아주기’는 자녀돌봄 영역 중 부부 간의 분담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나타났는데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분담한다는 응답률이 40.1%, 남편이 담당한다는 응답률이 12.4%로 나타나 다른 돌봄 영역과 차이를 보였으나 역시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률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0〉 부부 간 자녀돌봄 분담 정도

	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 아내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 없음
밥 먹는 것 도와주기	100.0	0.8	2.3	18.2	36.8	36.5	5.3
옷 입는 것 도와주기	100.0	0.4	1.8	16.7	36	39.3	5.8
취침준비 및 재워주기	100.0	0.7	3.2	18.6	32.3	39.7	5.5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100.0	0.7	2.7	27.8	32.1	36.3	0.3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100.0	0.9	2.5	17	33.4	39.7	6.5
함께 놀아주기	100.0	1.6	10.8	40.1	28.8	17.2	1.5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교 등 데려다주기/데려오기	100.0	1.1	2.7	15.5	27.3	40.5	13
목욕시키기	100.0	3.6	7.3	23.3	28.7	32.8	4.3
교육(보육) 시설 알아보기	100.0	0.8	2.2	14.7	31.6	45.9	4.7
학교나 보육 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100.0	0.2	0.9	9	30.8	51.8	7.4
학교와 보육시설 등의 행사 참여, 방문, 봉사활동 등	100.0	0.2	1.3	13.6	29.6	47.4	7.9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배우자와의 자녀돌봄 분담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57.5%로 과반 이상인 반면 여성은 38.1%에 불과하여 남성보다 약 20% 가까이 응답률이 낮았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남성은 5.1%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24.8%로 나타나 남성의 응답률보다 5배 가까이 불만족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배우자와의 자녀돌봄 분담방식에 대한 만족도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남성	100.0	0.6	4.5	37.4	49.3	8.2
여성	100.0	5.6	19.2	37.1	34.0	4.1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은 남성의 36.3%, 여성의 35.1%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진로 문제(남성 21.8%, 여성 24.1%), ‘학업 성적’(남성 15.3%, 여성 16.5%), 대화 단절(남성 6.4%, 여성 3.9%)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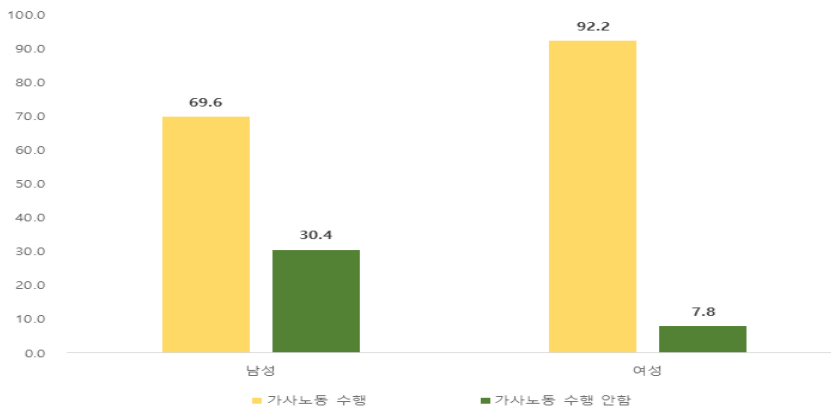
〈표 3-22〉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경제적 부담	학업 성적	대화 단절	자녀의 이성 및 성 문제	진로 문제	친구 관계	생활태도 음주 흡연 약물 등	게임 중독	기타	없음
남성	36.3	15.3	6.4	1.6	21.8	2.5	0.6	3.1	0.2	12.2
여성	35.1	16.5	3.9	2.1	24.1	2.3	1.4	3.6	0.7	10.3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5) 성별 가사노동 수행

성별 가사노동 수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중 가사노동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9.6%이며 나머지 30.4%는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92.2%가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8%에 불과하여 성별 가사노동 수행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22.6%p 높게 나타났다.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그림 3-9〉 성별 가사노동 수행 여부

가사노동을 8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성별 수행 비율과 수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우 ‘다림질’을 제외한 모든 가사노동 항목을 전체 응답자 중 70% 이상의 응답자가 수행하고 있었으며 가장 비율이 높은 항목은 ‘설거지’(86.7%), 집안청소(85.3%), 식사준비(84.8%) 등이었다. 반면 남성은 ‘집안청소’를 수행하는 비율이 50.8%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가사노동 항목은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40%대만이 수행하고 있었다. 1주 평균 수행 횟수 역시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수행 횟수가 많았는데 특히 식사준비와 설거지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수행 횟수가 2배 이상 많았다.

〈표 3-23〉 가사노동 항목의 수행비율 및 횟수

	수행 비율		1주 평균 수행 횟수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식사준비	38.5	84.8	5.1	11.3
설거지	45.0	86.7	4.9	11.3
세탁	27.8	78.7	2	3.1
다림질	8.4	30.9	1.5	1.6
집안청소	50.8	85.3	2.3	3.8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40.8	72.0	2.1	2.8
쓰레기분리수거	47.4	70.7	1.6	1.8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6) 맞벌이 여부별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맞벌이 여부별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가장 큰 어려움은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직장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항목에 평점이 높게 나타나 대부분 직장으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응답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직장일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듣는다’로 이는 남성의 응답 평점이 여성에 비해 맞벌이는 0.28점, 외벌이는 0.25점 높아 해당 항목에 대한 어려움을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24〉 맞벌이 여부별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맞벌이		외벌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2.54	2.59	2.52	2.36
직장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2.45	2.56	2.44	2.30
직장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1.96	1.70	1.93	1.96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2.52	2.55	2.46	2.34
직장일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듣는다	2.27	1.99	2.21	1.96
가사나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다	1.70	1.71	1.71	1.79

	맞벌이		외벌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족적 책임(육아, 가사활동 등) 때문에 상관이나 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다	1.71	1.80	1.74	1.82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1.65	1.63	1.66	1.71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 있다	1.54	1.53	1.59	1.57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업무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다	1.58	1.55	1.60	1.67

주 :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다. 가족 관련 정책 인식

가족정책과 관련된 주요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모든 정책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제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남성의 45.8%, 여성의 52.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남성의 39.5%, 여성의 52.7%가 인지하고 있어 다른 제도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반면 ‘공동육아나눔터’와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서비스’는 남성의 경우 80% 가까이, 여성은 70% 이상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가족정책 주요제도에 대한 인지도

		계	전혀 모른다	조금은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남성	100.0	60.6	35.0	4.5
	여성	100.0	47.3	42.9	9.8
공동육아나눔터	남성	100.0	79.5	18.2	2.3
	여성	100.0	72.2	23.9	3.9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서비스	남성	100.0	78.2	19.6	2.2
	여성	100.0	71.5	24.4	4.1
건강가정지원센터	남성	100.0	70.6	25.9	3.5
	여성	100.0	64.3	29.9	5.8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남성	100.0	64.9	31.2	3.9
	여성	100.0	54.4	38.2	7.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성	100.0	54.1	40.3	5.5
	여성	100.0	47.4	44.2	8.4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에 대해서는 성별로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초과근로 시간의 단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연근무제 확산’과 ‘일하는 여성의 보육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도 각각 14.8%, 14.6%로 나타나 높은 편이었다. 반면 여성은 ‘일하는 여성의 보육지원 확대’가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연근무제 확산’(13.7%), ‘초과근로 시간의 단축’(13.0%) 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과 40대에서 ‘초과근로 시간의 단축’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보육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30대에게서는 ‘남성들의 육아/가사 참여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11.0%로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60대(10.5%)와 40대(9.7%)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3-26〉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초과근로 시간의 단축	유연 근무제 확산	남성들의 육아/가사 참여지원	일하는 여성의 보육지원 확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확산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강화	기타	잘 모르 겠음
성별	남성	21.9	14.8	8.5	14.6	8.9	8.6	2.9	0.6	19.2
	여성	13.0	13.7	10.6	25.2	4.5	6.5	7.0	0.3	19.3
연령	30세 미만	27.5	15.7	7.7	21.5	5.8	7.9	3.7	1.0	9.2
	30대	21.9	16.8	11.0	23.4	5.3	8.6	5.1	0.7	7.1
	40대	18.4	16.5	9.7	18.2	8.8	9.2	6.3	0.4	12.5
	50대	16.6	14.4	8.7	18.6	7.8	8.0	5.4	0.3	20.0
	60대	10.1	12.3	10.5	22.4	6.4	5.2	5.1	0.2	27.8
	70세 이상	9.5	5.8	8.4	15.6	3.9	3.7	2.1	0.2	50.8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남성의 가사와 육아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에 대해서는 성별로 다른 응답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는 응답률이 24.6%로 가장 높았

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이 16.3%로 나타나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직장과 근로의 행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여성은 ‘남성의 가사, 육아 분담 인식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남성의 인식 자체가 변화해야한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40대 이상부터는 ‘남성의 가사, 육아 분담인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률도 12.2%로 다른 연령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0대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10.3%로 나타나 다른 집단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3-27〉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남성의 가사, 육아 분담인식 확대	아빠교실 등 함께하는 육아/가사 참여교육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기타	잘 모르 겠음
성별	남성	24.6	16.3	18.2	6.9	8.4	7.5	0.2	18.0
	여성	16.4	11.1	25.7	9.4	9.7	8.9	0.2	18.5
연령	30세 미만	25.4	10.4	22.7	9.6	15.4	7.0	0.1	9.3
	30대	27.2	14.8	21.1	9.6	12.2	7.4	0.4	7.2
	40대	21.2	16.6	24.2	9.1	6.7	10.3	0.1	11.9
	50대	18.3	15.2	22.3	8.2	8.2	9.1	0.1	18.6
	60대	15.6	12.9	21.8	7.0	8.9	7.7	0.0	26.1
	70세 이상	12.2	6.6	18.9	3.9	5.2	5.5	0.2	47.6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3.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 현황

가. 전라북도 일반적 가족 성평등 현황

전라북도의 가족 성평등 관련, 가족관계 만족도, 성별 노동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전국과 전북의 차이를 분석하여, 전북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1) 가족관계 만족도

2018년 전북의 가족관계 만족도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북 여성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55.0%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며 남성의 만족도는 60.1%로 여성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전국과 전북의 성별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를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전북의 만족도가 전국의 만족도보다 약간 높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전국보다 전북의 만족도가 여성은 0.6%p, 남성은 1.1%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8〉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남성	100.0	59.0	24.1	34.9	38.3	2.7	2.2	0.5
	여성	100.0	54.4	19.7	34.7	42.6	3.0	2.5	0.5
전북	남성	100.0	60.1	28.1	32.0	37.6	2.2	1.9	0.3
	여성	100.0	55.0	22.3	32.7	43.2	1.8	1.5	0.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가족 구성원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보다 전북이 다소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의 차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전북의 경우 여성의 만족도는 64.9%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만족도는 76.5%로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11.6%p 높았다. 전국 역시 남성 75.9%, 여성

63.0%로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의 만족도보다 12.9%p 높게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다.

〈표 3-29〉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남성	100.0	75.9	40.0	35.9	21.0	3.2	2.6	0.6
	여성	100.0	63.0	26.7	36.3	28.5	8.5	6.1	2.4
전북	남성	100.0	76.5	40.2	36.3	22.0	1.5	1.4	0.1
	여성	100.0	64.9	29.9	35.0	30.3	4.7	3.7	1.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자기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로 나누어 확인해 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남성은 자기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65.1%,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60.2%로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4.9%p 낮게 나타난 반면, 전북 여성은 자기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60.9%,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49.3%로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11.6%p 낮아 남성보다 두 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자기 부모와 배우자 부모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은 전국 여성으로 자기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66.6%로 나타난 반면,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49.1%로 나타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17.5%p 낮았다.

〈표 3-30〉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자기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남성	100.0	67.2	31.8	35.4	28.4	4.4	3.4	1.0
	여성	100.0	66.6	28.9	37.7	28.6	4.8	3.9	0.9
전북	남성	100.0	65.1	33.9	31.2	31.3	3.6	2.7	0.9
	여성	100.0	60.9	28.1	32.8	35.9	3.2	2.6	0.6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남성	100.0	62.9	27.4	35.5	33.8	3.3	2.7	0.6
	여성	100.0	49.1	17.2	31.9	39.8	10.9	7.3	3.6
전북	남성	100.0	60.2	25.3	34.9	36.2	3.6	3.0	0.6
	여성	100.0	49.3	18.9	30.4	40.7	9.9	7.0	2.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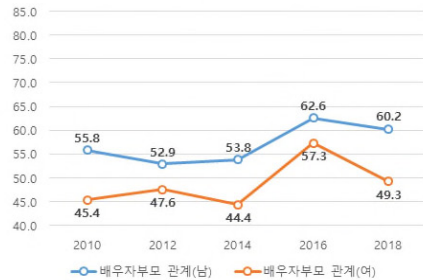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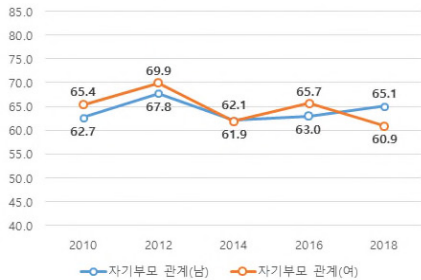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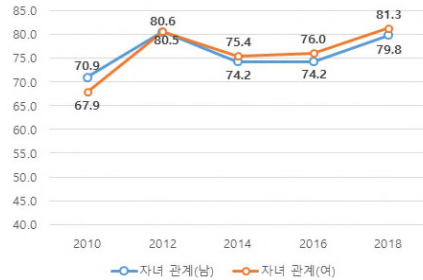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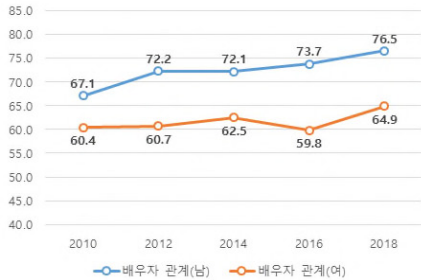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국보다 전북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남성보다 전북 여성의 만족도가 높았다. 전북 여성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81.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남성 역시 79.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북 여성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 75.5%, 75.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북보다는 낮지만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표 3-31〉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남성	100.0	75.5	38.4	37.1	20.9	3.6	2.9	0.7
	여성	100.0	75.6	35.2	40.4	20.9	3.5	2.9	0.6
전북	남성	100.0	79.8	41.3	38.5	18.2	1.9	1.3	0.6
	여성	100.0	81.3	35.9	45.4	17.4	1.4	1.3	0.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전라북도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등락을 반복하기는 하나 2010년에 비해 2018년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가장 만족도가 높아진 가족과의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로 2018년의 만족도는 2010년 대비 남성 8.9%p, 여성 13.4%p가 증가하였다. 반면 만족도가 낮아진 관계는 자기 부모와의 관계로 2010년 대비 2018년도의 만족도는 남성 0.3%p, 여성 1.8%p 낮게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그림 3-10〉 전라북도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2) 가사분담 현황

부부 사이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부인의 위주로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0~40%에 달하는 반면 남편 위주로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3%에 불과하여 여전히 가사를 여성의 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성별로 남성은 부인의 위주로 가사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률이, 여성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전북의 경우 남성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3.9%로 과반 이상이었으나 부인의 위주로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2.9%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62.2%, 부인 위주로 분담해야 한다 35.4%로 응답률이 나타나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8.3%p 높았고, 부인 위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7.5%p 높았다.

〈표 3-32〉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계	부인 위주			공평하게 분담	남편 위주		
			부인이 전적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분담	남편이 주로 부인이 분담		남편이 주로 부인이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전적으로
전국	남성	100.0	42.7	5.2	37.5	54.6	2.7	2.1	0.6
	여성	100.0	34.2	2.5	31.7	63.4	2.4	1.8	0.6
전북	남성	100.0	42.9	4.9	38.0	53.9	3.3	2.3	1.0
	여성	100.0	35.4	2.4	33.0	62.2	2.5	2.0	0.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만 실제 가사는 부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 실태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 각각 비슷한 평가를 하여 응답률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사분담 견해에서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과반을 넘은 반면, 실제 가사가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20% 전후에 불과하였으며 부인 위주로 가사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75%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남편 위주로 가사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2~4% 수준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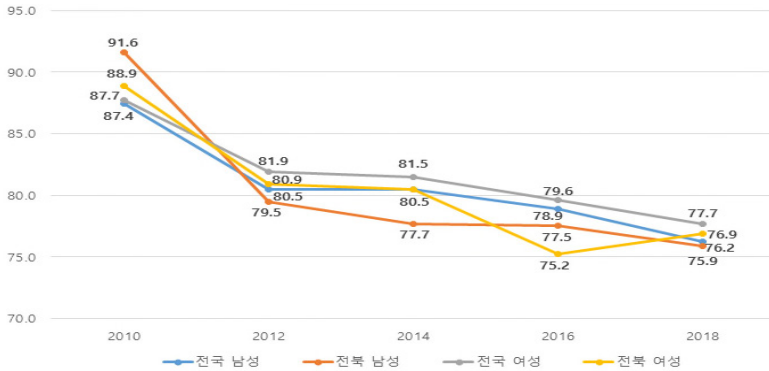
〈표 3-33〉 가사분담 실태

		계	부인 위주			공평하게 분담	남편 위주		
			부인이 전적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분담	남편이 주로 부인이 분담		남편이 주로 부인이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	전국	100.0	76.2	21.9	54.3	20.2	3.7	2.9	0.8
	전북	100.0	75.9	22.5	53.4	20.1	4.0	3.0	1.0
아내	전국	100.0	77.7	26.9	50.8	19.5	2.8	2.4	0.4
	전북	100.0	76.9	26.2	50.7	20.4	2.8	2.2	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가사분담을 부인 위주로 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018년 기준으로 75% 이상으로 높기는 하나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을 부인의 위주로 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010년 80% 후반에서 90% 초반에 형성되어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이 부인의 몫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가장 급격하게 부

인 위주의 가사분담을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북 남성의 경우 2010년 91.6%가 부인 위주의 가사분담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2018년에는 75.9%만이 부인 위주의 가사 분담을 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보다 감소율이 높았다.



주 : 가사분담 실태 중 여성이 전적으로 한다와 여성이 주로 한다는 응답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그림 3-11〉 여성의 가사분담률 추이

하루 중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은 성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전국 51분, 전북 59분인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전국 2시간 58분, 전북 3시간 6분으로 각각 남성보다 2시간 07분이 많아 일평균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보다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3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증가하고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15년 간 줄어든 성별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는 약 30분에 불과하여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성별 가사노동 시간

	2004			2009			2014			2019		
	남성	여성	차이	남성	여성	차이	남성	여성	차이	남성	여성	차이
전국	0:33	3:14	2:41	0:38	3:09	2:31	0:42	3:05	2:23	0:51	2:58	2:07
전북	0:40	3:25	2:45	0:43	3:18	2:35	0:42	3:08	2:26	0:59	3:06	2:07

주 : 가사노동 시간은 행동분류 중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임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나. 전라북도 3040세대의 가족 성평등 현황

앞 절에서는 전라북도와 전국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전라북도 3040세대의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천, 가족관계 만족도, 가정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등을 성별, 지역(동부, 읍면부), 지역과 성별의 조합을 통해 살펴보았다.

1)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전북의 3040세대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8.3%로 과반 이상이었으며 가족이 부양해야한다는 응답률이 16.7%,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16.6%, 정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8.4%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특성별로 분석해보았을 때 성별로는 응답률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부는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18.3%로 읍면부(11.3%)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읍면부는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2.8%로 동부(14.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성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동부 남성(18.4%)이 가장 높고, 읍면부 남성(10.2%)이 가장 낮았으며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읍면부 여성(24.4%)이 가장 높고 동부 여성(14.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과 정부·사회가 통합적으로 함께해야한다는 응답률이 동부 여성(60.5%)이 가장 높고 읍면부 여성(54.1%)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3-3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χ^2 (p)
전체		81,712 (16.6)	82,037 (16.7)	286,041 (58.3)	41,008 (8.4)	-
성별	남성	42,041 (16.3)	44,401 (17.2)	148,645 (57.5)	23,298 (9.0)	457.337*** (.000)
	여성	39,671 (17.1)	37,636 (16.2)	137,396 (59.1)	17,710 (7.6)	
지역	동부	68,585 (18.3)	55,457 (14.8)	219,965 (58.8)	30,280 (8.1)	6,254.155*** (.000)
	읍면부	13,127 (11.3)	26,579 (22.8)	66,076 (56.7)	10,729 (9.2)	
지역*성별	동부 남성	35,244 (18.4)	30,001 (15.6)	109,625 (57.1)	16,980 (8.9)	7,210.141*** (.000)
	동부 여성	33,341 (18.3)	25,457 (14.0)	110,341 (60.5)	13,299 (7.3)	
	읍면부 남성	6,797 (10.2)	14,401 (21.6)	39,020 (58.6)	6,318 (9.5)	
	읍면부 여성	6,330 (12.7)	12,179 (24.4)	27,056 (54.1)	4,411 (8.8)	

자료 : 통계청, 2018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가족 중 부모 부양을 누가 해야되냐는 질문에는 전체 79.6%의 응답자가 아들과 딸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식 중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14.9%로 나타나 특정성별의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응답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인구특성별로 분석해보았을 때 성별로 남성은 아들이, 여성은 딸이 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동부보다 읍면부에서 장남과 아들이 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조금 더 보수적인 인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성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장남이나 아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률의 경우 읍면부 남성이 7.2%로 가장 높았고, 동부 남성이 6.8%, 읍면부 여성이 4.0%, 동부 여성이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딸이 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응답률은 동부 여성 2.3%, 읍면부 여성 1.2%만이 응답하여 성별로는 남성, 지역별로는 읍면부의 응답자들이 부모 부양의 주체를 아들로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가족 중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장남 또는 만매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아들과 딸)	자식 중 능력 있는 사람	χ^2 (p)
전체		7452 (2.0)	9109 (2.5)	3596 (1.0)	292978 (79.6)	54945 (14.9)	-
성별	남성	5260 (2.7)	8050 (4.2)	0 (0.0)	149071 (77.2)	30666 (15.9)	10,200.859*** (.000)
	여성	2192 (1.3)	1059 (0.6)	3596 (2.1)	143907 (82.2)	24279 (13.9)	
지역	동부	5125 (1.9)	6014 (2.2)	3116 (1.1)	220070 (79.9)	41098 (14.9)	799.694*** (.000)
	읍면부	2327 (2.5)	3095 (3.3)	480 (0.5)	72908 (78.7)	13847 (14.9)	
지역*성별	동부 남성	3434 (2.5)	6014 (4.3)	0 (0.0)	109065 (78.1)	21112 (15.1)	12,224.479*** (.000)
	동부 여성	1691 (1.2)	0 (0.0)	3116 (2.3)	111005 (81.7)	19986 (14.7)	
	읍면부 남성	1826 (3.4)	2036 (3.8)	0 (0.0)	40006 (74.9)	9554 (17.9)	
	읍면부 여성	501 (1.3)	1059 (2.7)	480 (1.2)	32902 (83.9)	4293 (10.9)	

자료 : 통계청, 2018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2)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견해

전북의 3040세대의 이혼에 대한 견해는 4점 만점에 2.74점으로 나타나 이혼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2.66점)보다 여성(2.83점)이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읍면부보다 동부에서 이혼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성별을 나누어보면 이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은 동부 남성(2.61점)에게서 나타났으며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은 읍면부 여성(2.91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7〉 이혼에 대한 견해

		N	M	SD	F/t	p
전체		474,019	2.74	0.762	-	-
성별	남성	249,873	2.66	0.816	-77.346	.000***
	여성	224,146	2.83	0.686		
지역	동부	363,612	2.71	0.745	-51.467	.000***
	읍면부	110,408	2.85	0.807		
지역*성별	동부 남성	185,620	2.61	0.795	3,243.788	.000***
	동부 여성	177,992	2.81	0.674		
	읍면부 남성	64,253	2.81	0.856		
	읍면부 여성	46,154	2.91	0.728		

주 : 1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 4.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자료 : 통계청, 2018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재혼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점 2.87점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2.77점)보다 남성(2.96점)의 평점이 높게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두 평점이 3점을 넘기지 않아 재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2.84점)보다 읍면부(2.96점)의 응답자들의 평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성별을 나누어보면 재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응답은 동부 여성(2.74점)에게서 나타났으며 재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인식은 읍면부 남성(3.05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8〉 재혼에 대한 견해

		N	M	SD	F/t	p
전체		460,647	2.87	0.648	-	-
성별	남성	243,745	2.96	0.611	104.902	.000***
	여성	216,903	2.77	0.672		
지역	동부	352,022	2.84	0.639	-53.469	.000***
	읍면부	108,625	2.96	0.670		
지역*성별	동부 남성	181,091	2.93	0.604	4,563.643	.000***
	동부 여성	170,932	2.74	0.659		
	읍면부 남성	62,654	3.05	0.622		
	읍면부 여성	45,971	2.85	0.714		

주 : 1 하지 말아야 한다 ~ 5. 반드시 해야 한다

자료 : 통계청, 2018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3)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가사분담에 대해서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을 1점,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5점으로 두고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전국의 3040세대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사분담을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평점이 3.40점으로 높지 않아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한다는 인식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은 3.44점, 여성의 평균은 3.36점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사분담이 부인 위주로 분담되어야한다는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동부와 읍면부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동부 남성(3.46점)과 동부 여성(3.34점)의 응답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3-39〉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N	M	SD	F/t	p
전체		490,798	3.40	0.588	-	-
성별	남성	258,385	3.44	0.626	50.156	.000***
	여성	232,413	3.36	0.538		
지역	동부	374,288	3.40	0.555	-2.799	.005**
	읍면부	116,511	3.40	0.681		
지역*성별	동부 남성	191,850	3.46	0.591	1,354.532	.000***
	동부 여성	182,437	3.34	0.508		
	읍면부 남성	66,535	3.39	0.716		
	읍면부 여성	49,976	3.42	0.632		

주 : 1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5.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자료 : 통계청, 2018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실제 가사분담 실태에 대해서는 평점이 5점 만점에 3.94점으로 나타나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3.40점)보다 실제 가사분담은 여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로 남성은 가사분담 실태에 대해 3.90점, 여성은 3.98점의 평점이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실제 가사가 부인 위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동부(3.94점)보다 읍면부(3.96점)에서 부인 위주로 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 응답자의 응답 평점이 4.02점으로 가사분담이 부인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부 여성 3.96점, 동부 남성 3.91점, 읍면부 남성 3.89점 순으로 평점이 나타나 읍면부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가사분담 실태에 대한 평가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3-40〉 가사분담 실태

		N	M	SD	F/t	p
전체		385,245	3.94	0.761	-	-
성별	남성	186,348	3.90	0.750	-29.296	.000***
	여성	198,897	3.98	0.769		
지역	동부	299,302	3.94	0.701	-6.454	.000***
	읍면부	85,944	3.96	0.939		
지역*성별	동부 남성	144,832	3.91	0.664	370.909	.000***
	동부 여성	154,470	3.96	0.733		
	읍면부 남성	41,516	3.89	0.995		
	읍면부 여성	44,428	4.02	0.879		

주 : 1.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 5.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자료 : 통계청, 2018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4) 가족관계 만족도

전북의 3040세대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해 전체 5점 만점 중 평점이 3.79점으로 나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3.86점, 여성이 3.70점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동부(3.74점)보다 읍면부(3.93점) 거주자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다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집단 간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읍면부 남성의 경우 평점이 4.04점으로 전체 평균을

웃도는 평점이 나타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동부 여성은 평점이 3.68점에 불과하여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 가족관계 만족도

		N	M	SD	F/t	p
전체		490,798	3.79	0.818	-	-
성별	남성	258,385	3.86	0.828	69.671	.000***
	여성	232,413	3.70	0.797		
지역	동부	374,288	3.74	0.804	-68.793	.000***
	읍면부	116,511	3.93	0.843		
지역*성별	동부 남성	191,850	3.80	0.814	3,287.512	.000***
	동부 여성	182,437	3.68	0.788		
	읍면부 남성	66,535	4.04	0.844		
	읍면부 여성	49,976	3.80	0.823		

주 : 1 매우 불만족한다 ~ 5. 매우 만족한다

자료 : 통계청, 2018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관계별 만족도는 총 5점 만점에 자녀가 4.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4.08점, 자기 부모 3.86점, 자기 형제자매 3.76점, 배우자 부모 3.68점, 배우자 형제자매 3.58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로는 남성이 4.20점, 여성이 3.97점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동부 4.09점, 읍면부 4.06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고,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읍면부의 여성(3.95점)이 배우자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동부 남성(4.20점)의 배우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았고 지역별로는 읍면부 응답자가 동부 응답자보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읍면부 여성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4.47점으로 다른 집단보다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배우자 부모보다 자기 부모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응답을 비교해보면 자기 부모와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이나 배우자 부모에 대해서는 남성(3.80점)에 비해 여성(3.56점)의 평점이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 자기 부모와 배우자 부모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읍면부가 동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을 성별로 나누면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읍면부 남성이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부 여성이 3.7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배우자 부모와의 만족도 역시 읍면부 남성이 3.96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부 여성이 3.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형제자매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로 비교했을 때 배우자 형제자매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남성(3.73점)보다 여성(3.45점)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자기 형제자매와 배우자 형제자매 모두 동부보다 읍면부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을 다시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읍면부 남성이 자기와 배우자 형제자매 모두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기 형제자매는 동부 남성이, 배우자 형제자매는 동부 여성이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표 3-42〉 관계별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자녀	자기 부모	배우자 부모	자기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전체		4.08	4.24	3.86	3.68	3.76	3.58
성별	남성	4.20****	4.25***	3.88***	3.80***	3.77**	3.73***
	여성	3.97***	4.22***	3.84***	3.56***	3.76**	3.45***
지역	동부	4.09***	4.20***	3.80***	3.64***	3.70***	3.55***
	읍면부	4.06***	4.37***	4.06***	3.81***	3.96***	3.72***
지역*성별	동부 남성	4.20***	4.25***	3.81***	3.75***	3.69***	3.70***
	동부 여성	3.98***	4.15***	3.79***	3.53***	3.72***	3.40***
	읍면부 남성	4.18***	4.25***	4.11***	3.96***	4.00***	3.81***
	읍면부 여성	3.95***	4.47***	4.00***	3.66***	3.91***	3.64***

주 : 1 매우 불만족한다 ~ 5. 매우 만족한다

자료 : 통계청, 2018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5) 가정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가정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42점으로 전북의 3040세대는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일정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27점, 여성이 2.58점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가정생활에 있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읍면부 2.37점, 동부 2.43점으로 동부가 읍면부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가장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집단은 동부의 여성으로 평점이 2.60점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부 여성 2.50점, 읍면부 남성 2.28점, 동부 남성 2.26점 순으로 동부 남성과 여성 간에 스트레스 정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3-43〉 가정생활 스트레스 정도

		N	M	SD	F/t	p
전체		490,798	2.42	0.738	-	-
성별	남성	258,385	2.27	0.706	-151.970	.000***
	여성	232,413	2.58	0.736		
지역	동부	374,288	2.43	0.701	20.834	.000***
	읍면부	116,511	2.37	0.843		
지역*성별	동부 남성	191,850	2.26	0.659	8,051.826	.000***
	동부 여성	182,437	2.60	0.701		
	읍면부 남성	66,535	2.28	0.827		
	읍면부 여성	49,976	2.50	0.847		

주 : 1 전혀 느끼지 않았다 ~ 4. 매우 많이 느꼈다

자료 : 통계청, 2018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6)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전국의 3040세대 응답자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는 5점 만점에 평점 2.95점으로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로 나누어서 확인해보면 여성은 3.32점, 남성은 2.59점으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부(2.82점)보다 동부(3.00점)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참여도가 더 높았으며 지역을 성별로 나뉜 결과 동부 여성의 학교 운영 참여도가 3.31점으로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읍면부 남성의 학교 운영 참여도는 2.2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평점도 1점 이상 큰 차이가 나타났다.

〈표 3-44〉 초등학생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N	M	SD	F/t	p
전체		141,876	2.95	1.160	-	-
성별	남성	72,384	2.59	1.129	-124.632	.000***
	여성	69,492	3.32	1.072		
지역	동부	102,658	3.00	1.119	24.210	.000***
	읍면부	39,218	2.82	1.251		
지역*성별	동부 남성	52,757	2.70	1.087	5,925.749	.000***
	동부 여성	49,901	3.31	1.068		
	읍면부 남성	19,627	2.29	1.182		
	읍면부 여성	19,591	2.95	1.081		

주 : 1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5.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료 : 통계청, 2018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중학생 자녀의 학교 운영 참여도는 5점 만점에 2.44점으로 초등학생 자녀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 학교 운영 참여도는 초등학생 자녀와 동일하게 남성(2.20점)보다 여성(2.64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별로는 동부(2.36점)보다 읍면부(2.66점) 응답자들의 평점이 더 높아 초등학생 자녀 참여도와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을 성별로 나뉜 확인한 결과 읍면부 여성(2.89점)의 참여도가 가장 높았고, 동부 남성(2.10점)의 참여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45〉 중학생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N	M	SD	F/t	p
전체		86,336	2.44	1.086	-	-
성별	남성	40,189	2.20	1.087	-60.898	.000***
	여성	46,147	2.64	1.042		
지역	동부	64,932	2.36	0.993	-30.982	.000***
	읍면부	21,403	2.66	1.303		
지역*성별	동부 남성	29,203	2.10	1.013	1,793.314	.000***
	동부 여성	35,730	2.57	0.924		
	읍면부 남성	10,986	2.50	1.228		
	읍면부 여성	10,417	2.89	1.342		

주 : 1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5.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료 : 통계청, 2018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4

장

전라북도 가족 성평등 실태

Jeonbuk Institute

-
1. 전북지역 가족 성평등 실태조사
 2.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가족 경험

제 4 장 전라북도 가족 성평등 실태

1. 전북지역 가족 성평등 실태조사

가.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방법 및 조사내용

「전북지역 가족 성평등실태 관련 설문」은 만 30~49세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인식, 가족 성평등을 위한 정책 제언,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관계 변화,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 개선을 위한 의견, 정책이나 사업제안 등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전북도민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 부부와 가족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 자료 구축하고, 전라북도 내 가족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통한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가족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의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도시지역으로는 전주, 익산, 군산지역을 배정하고,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는 순창, 고창, 부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만 30~49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기혼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조사였고, 조사원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방문한 1:1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 '〈표4-1〉 설문지 조사내용'과 같다.

〈표 4-1〉 설문지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인식 및 경험	· 성장과정에서의 성차별 경험 유무 · 성장과정에서 성역할 교육 경험 유무 · 노후생활을 위한 자녀 필요 여부 · 재산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성차별 경험 유무와 태도 · 가사노동 분배 의식 ·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성역할 규범 · 가족 내에서의 엄마의 역할 ·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 내 결정권	· 자녀교육 · 주택구입 (주거지역, 구입 시기 등) · 투자 및 재산관리 · 생활비 지출 · 배우자의 취업, 직장이동 · 가사 등 집안일 · 가족원 돌봄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 배우자의 생활 방식 · 자녀 교육 문제 · 경제적 문제 · 가사 및 육아 분담 · 배우자의 성격, 사고방식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접근성	· 방송, 언론의 성차별 내용과 표현 근절 · 인터넷, 온라인상의 성차별적 내용과 표현 근절 ·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 학교, 직장 내 성평등 교육 · 가족 대상 성평등 교육 · 가족돌봄 친화 시설공간 확충 ·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지원 · 일생활균형을 위한 근로제도 ·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코로나 이후의 가족 관계 변화	· 직장 상태의 변화 · 가사노동의 부담 변화 · 돌봄노동의 부담 변화 · 부부 관계 만족도의 변화 · 부모 자식관계 만족도의 변화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0대가 37.4%, 40대가 62.6%였으며, 도시지역은 50.4%, 농촌지역은 49.6%였다. 또한 성별은 여성은 50.4%, 남성이 49.6%였으며, 맞벌이의 경우는 78.8%, 외벌이의 경우는 21.2%였다. 지역과 성별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나, 연령별로는 40대가 좀 더 많이 나타났고, 맞벌이가 거의 외벌이의 3배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응답자 일반특성

구분		명	%	구분		명	%
성별	남성	195	49.6	맞벌이 여부	맞벌이	294	78.8
	여성	198	50.4		외벌이	79	21.2
	계	393	100		계	373	100
연령	30대	147	37.4	지역*성별	도시남성	98	24.9
	40대	246	62.6		도시여성	100	25.4
					농촌남성	97	24.7
					농촌여성	96	24.9
	계	393	100		계	393	100
지역	도시	198	50.4	가구수입	300만원 이하	46	15.5
	농촌	195	49.6		300~499만원	145	48.8
					500만원 이상	106	35.7
	계	393	100		계	297	100

나. 가족 내 성평등 설문조사 분석

1) 가족경험과 인식

가족경험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북 3040세대 응답자들 중 과반 이상은 과거 성차별이나 성별에 따른 역할에 대한 경험을 가졌으며 현재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 10명 중 2~3명은 여전히 보수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률은 40.0%로 보통이다를 합하면 성차별을 경험한 응답자가 60%에 육박하였으며 ‘자라는 과정에서 남자/여자답게 행동라고 배웠다’는 응답률은 그렇다는 응답률이 36.7%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를 합하면 해당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6.5%로 나타났다.

현재의 가족에 대한 인식으로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49.4%, 그렇다는 응답률은 28.1%로 나타났으며 ‘아들, 딸 구별 없이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 51.8%, 그렇지 않다 28.1%로 나타났다. ‘집안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4.0%, 그렇다는 응답이 22.3%이고 ‘아들과 딸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키워야 한다’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2.9%, 그렇다는 응답이 17.4%이며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과 교육은 여성의 책임이 크다’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2.4%, 그렇다는 응답이 16.7%로 나타났다.

‘엄마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편이 좋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72.8%, 그렇다는 응답률이 10.0%로 나타난 반면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42.3%,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19.7%로 나타났다. ‘힘들 때 배우자가 의지가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56.2%,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10.7%로 나타났다.

〈표 4-3〉 가족경험과 인식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딸/아들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13.7	27.2	19.1	31.3	8.7
나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남자/여자답게 행동하라고 배웠다	9.9	23.7	29.8	32.1	4.6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19.7	29.7	22.5	24.3	3.8
아들 딸 구별 없이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7.7	20.4	20.2	33.7	18.1
집안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12.3	31.7	33.8	21.0	1.3
아들과 딸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키워야 한다	13.8	39.1	29.7	16.1	1.3
엄마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편이 좋다	29.0	43.8	17.3	9.2	0.8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과 교육은 여성의 책임이 크다	29.9	32.5	21.0	14.1	2.6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4.6	15.1	38.0	27.0	15.3
힘들 때 배우자가 의지가 된다	2.8	7.9	33.1	37.2	19.0

가) 어린 시절 차별 경험

‘나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딸/아들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40대,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의 성별로는 도시 남성에게서, 가구수입별로는 수입이 300~499만원인 응답자에게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률(41.0%)은 여성(38.9%)보다 약 2%p 높았으며 연령별로 40대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률(48.8%)이 30대(25.1%)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40대보다 30대가 25%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 응답자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률(42.4%)이 농촌 응답자(37.5%)보다 약 5%p 높았으며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농촌 응답자가 도시 응답자보다 약 10%p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도시 남성인 응답자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농촌 남성(45.4%)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수입별로는 300~499만원의 가구수입이 있는 집단에서 42.0%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300만원

미만의 가구수입이 있는 집단(47.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특성은 연령, 지역, 지역*성별 변수이다.

〈표 4-4〉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1 : 나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딸/아들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p)
계		13.7	27.2	19.1	31.3	8.7	
성별	남성	14.4	27.2	17.4	31.3	9.7	1.193 (.879)
	여성	13.1	27.3	20.7	31.3	7.6	
연령	30대	20.4	37.4	17.0	23.1	2.0	33.952*** (.000)
	40대	9.8	21.1	20.3	36.2	12.6	
지역	도시	9.1	27.3	21.2	31.3	11.1	10.016* (.040)
	농촌	18.5	27.2	16.9	31.3	6.2	
지역*성별	도시 남성	9.2	28.6	15.3	30.6	16.3	22.971* (.028)
	도시 여성	9.0	26.0	27.0	32.0	6.0	
	농촌 남성	19.6	25.8	19.6	32.0	3.1	
	농촌 여성	17.3	28.6	14.3	30.6	9.2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19.6	28.3	13.0	26.1	13.0	11.565 (.172)
	300~499만원	13.8	27.6	16.6	37.2	4.8	
	500만원 이상	16.0	24.5	26.4	27.4	5.7	

나) 어린 시절 성역할 교육 경험

‘나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남자/여자답게 행동하라고 배웠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40대가, 지역별로는 도시가, 지역의 성별로는 도시 남성, 가구수입별로는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여자답게 행동하라고 배웠다는 응답률은 남성(40.0%)이 여성(33.3%)보다 7%p 가까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44.7%)의 응답률이 30대(23.2%)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43.0%)가 농촌에 거주하는 응답자(30.3%)보다 해당 경험률이 높았으며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률은 도시 남성(47.0%)이 다른 집단보다 적게는 8%p에서 많게는 20%p 가까이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농촌 여성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수입별로는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5〉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2 : 나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남자/여자답게 행동하라고 배웠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p)
계		9.9	23.7	29.8	32.1	4.6	
성별	남성	9.2	21.0	29.7	33.8	6.2	3.803 (.433)
	여성	10.6	26.3	29.8	30.3	3.0	
연령	30대	16.3	27.9	32.7	21.8	1.4	25.205*** (.000)
	40대	6.1	21.1	28.0	38.2	6.5	
지역	도시	7.6	22.7	26.8	36.9	6.1	8.360 (.079)
	농촌	12.3	24.6	32.8	27.2	3.1	
지역*성별	도시 남성	8.2	19.4	25.5	38.8	8.2	13.347 (.344)
	도시 여성	7.0	26.0	28.0	35.0	4.0	
	농촌 남성	10.3	22.7	34.0	28.9	4.1	
	농촌 여성	14.3	26.5	31.6	25.5	2.0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4.3	26.1	37.0	28.3	4.3	8.061 (.428)
	300~499만원	11.0	24.1	29.7	33.1	2.1	
	500만원 이상	11.3	17.0	29.2	35.8	6.6	

다) 노후에 대한 태도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40대가, 지역별로는 도시가, 지역의 성별로는 도시 남성, 가구수입별로는 500만 원 이상 집단에게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32.1%로 여성(24.2%)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35.2%로 30대의 응답률인 16.3%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30대가 62.6%, 40대가 41.4%로 20%p 이상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 거주자(30.4%)가 농촌 거주자(25.7%)보다 그렇다는 응답률

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률은 도시 남성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농촌 여성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수입별로는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62.2%로 과반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수입이 있는 집단에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34.9%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 변수로 나타났다.

〈표 4-6〉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3 :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p)
계		19.7	29.7	22.5	24.3	3.8	
성별	남성	18.7	28.5	20.7	26.9	5.2	3.818 (.431)
	여성	20.7	30.8	24.2	21.7	2.5	
연령	30대	27.2	35.4	21.1	13.6	2.7	21.402*** (.000)
	40대	15.2	26.2	23.4	30.7	4.5	
지역	도시	19.8	24.4	25.4	27.4	3.0	7.454 (.114)
	농촌	19.6	35.1	19.6	21.1	4.6	
지역*성별	도시 남성	19.6	21.6	23.7	30.9	4.1	11.903 (.453)
	도시 여성	20.0	27.0	27.0	24.0	2.0	
	농촌 남성	17.7	35.4	17.7	22.9	6.3	
	농촌 여성	21.4	34.7	21.4	19.4	3.1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17.8	44.4	22.2	13.3	2.2	12.431 (.133)
	300~499만원	20.8	27.8	22.9	22.2	6.3	
	500만원 이상	17.9	21.7	25.5	31.1	3.8	

라) 재산분배

‘아들 딸 구별 없이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30대가, 지역별로는 농촌이, 지역의 성별로는 도시 여성이, 가구수입별로는 500만 원 이상 고소득 집단에게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아들 딸 구별 없이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7.6%로 남성(45.8%)보다 10%p 이상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60.5%로 40대의 응답률인 46.5%보다 14.0%p 높

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 거주자(57.4%)가 도시 거주자(46.2%)보다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보다 10%p 이상 높았다.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률은 도시 여성이 58.0%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도시 남성이 41.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수입별로는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성별 구분 없이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65.7%로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원 미만 소득 집단이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34.8%로 높은 편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지역*성별 변수로 나타났다.

〈표 4-7〉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4 : 아들 딸 구별 없이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p)
계		7.7	20.4	20.2	33.7	18.1	
성별	남성	7.7	24.2	22.2	31.4	14.4	6.957 (.138)
	여성	7.6	16.7	18.2	35.9	21.7	
연령	30대	7.5	17.0	15.0	38.1	22.4	8.290 (.082)
	40대	7.8	22.4	23.3	31.0	15.5	
지역	도시	10.2	23.4	20.3	31.5	14.7	8.001 (.092)
	농촌	5.1	17.4	20.0	35.9	21.5	
지역*성별	도시 남성	12.4	28.9	24.7	25.8	8.2	21.884* (.039)
	도시 여성	8.0	18.0	16.0	37.0	21.0	
	농촌 남성	3.1	19.6	19.6	37.1	20.6	
	농촌 여성	7.1	15.3	20.4	34.7	22.4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8.7	26.1	21.7	26.1	17.4	12.507 (.130)
	300~499만원	7.6	20.7	21.4	34.5	15.9	
	500만원 이상	7.6	14.3	12.4	36.2	29.5	

마) 가사노동 분배 인식

‘집안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문항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과 지역, 가구수입 변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40대가, 지역별로는 농촌이, 지역의 성별로는 농촌 여성이, 가구수입

별로는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응답률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27.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30대(13%)보다 응답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30대가 55.5%로 40대(37.2%)보다 20%p 가까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 거주자와 도시 거주자 간의 그렇다는 응답률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농촌 거주자(49.0%)가 도시 거주자(39.0%)보다 10%p 높았다.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률은 농촌 여성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농촌 남성(52.6%)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수입별로는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42.2%로 다른 집단의 2배 정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4-8〉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5 : 집안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p)
계		12.3	31.7	33.8	21.0	1.3	
성별	남성	8.8	35.1	35.1	19.6	1.5	5.982 (.200)
	여성	15.7	28.4	32.5	22.3	1.0	
연령	30대	17.1	38.4	31.5	11.6	1.4	17.734** (.001)
	40대	9.4	27.8	35.1	26.5	1.2	
지역	도시	9.1	29.9	39.6	19.3	2.0	9.871* (.043)
	농촌	15.5	33.5	27.8	22.7	0.5	
지역*성별	도시 남성	5.2	29.9	42.3	20.6	2.1	19.141 (.085)
	도시 여성	13.0	30.0	37.0	18.0	2.0	
	농촌 남성	12.4	40.2	27.8	18.6	1.0	
	농촌 여성	18.6	26.8	27.8	26.8	0.0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15.6	20.0	22.2	42.2	0.0	19.231* (.014)
	300~499만원	10.4	35.4	31.3	22.2	0.7	
	500만원 이상	18.9	27.4	34.0	17.0	2.8	

바) 성별에 따른 교육 태도

‘아들과 딸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키워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40대가, 지역별로는 도시에서, 지역의 성별로는 도시 여성이, 가구수입별로는 수입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지역*성별 변수로 나타났다. 성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성(16.4%)에 비해 여성(18.3%)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65.3%로 과반 이상인 반면 40대는 45.5%에 불과하였으며 그렇다는 응답률도 40대(20.9%)가 30대(11.6%)보다 10%p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촌(15.0%)보다 도시 거주자(19.8%)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도시 여성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22.2%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수입별로는 수입이 높은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 54.3%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9〉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6 : 아들과 딸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키워야 한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p)
계		13.8	39.1	29.7	16.1	1.3	
성별	남성	10.8	43.3	29.4	14.9	1.5	6.957 (.138)
	여성	16.8	35.0	29.9	17.3	1.0	
연령	30대	16.3	49.0	23.1	10.2	1.4	8.290 (.082)
	40대	12.3	33.2	33.6	19.7	1.2	
지역	도시	12.7	36.5	31.0	19.8	0.0	8.001 (.092)
	농촌	14.9	41.8	28.4	12.4	2.6	
지역*성별	도시 남성	10.2	40.8	31.6	17.3	0.0	21.884* (.039)
	도시 여성	15.2	32.3	30.3	22.2	0.0	
	농촌 남성	11.5	45.8	27.1	12.5	3.1	
	농촌 여성	18.4	37.8	29.6	12.2	2.0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15.2	39.1	26.1	17.4	2.2	3.994 (.858)
	300~499만원	11.2	36.4	33.6	17.5	1.4	
	500만원 이상	17.0	32.1	28.3	21.7	0.9	

사) 엄마의 직장 찬성 여부

‘엄마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편이 좋다’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을 보수적 응답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수적이지 않은 응답으로 봤을 때 연령별로는 30대보다 40대가,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 거주자가, 지역을 성별로 나누었을 때 다른 집단보다 도시 여성, 가구수입별로는 500만 원 이상 고소득 집단이 더 보수적인 응답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응답이 양 극단으로 나뉜 반면 남성은 중립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83.0%로 매우 높은 반면 40대는 66.7%로 15%p 이상 낮았으며 그렇다는 응답률은 40대(12.6%)가 30대(5.4%) 응답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농촌 거주자(6.1%)보다 도시 거주자(13.6%)가 더 높아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도시 여성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18.0%로 다른 집단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높았다. 가구수입별로는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22.6%로 보수적인 응답 경향이 다른 집단보다 2.5배~6배 이상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과 지역, 가구수입 변수로 나타났다.

〈표 4-10〉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7 : 엄마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편이 좋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p)
계		29.0	43.8	17.3	9.2	0.8	
성별	남성	27.2	44.6	20.5	7.2	0.5	4.791 (.309)
	여성	30.8	42.9	14.1	11.1	1.0	
연령	30대	40.8	42.2	11.6	5.4	0.0	21.231*** (.000)
	40대	22.0	44.7	20.7	11.4	1.2	
지역	도시	27.3	38.9	20.2	12.6	1.0	10.073* (.039)
	농촌	30.8	48.7	14.4	5.6	0.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p)
지역*성별	도시 남성	27.6	41.8	21.4	9.2	0.0	20.634 (.056)
	도시 여성	27.0	36.0	19.0	16.0	2.0	
	농촌 남성	26.8	47.4	19.6	5.2	1.0	
	농촌 여성	34.7	50.0	9.2	6.1	0.0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23.9	52.2	15.2	8.7	0.0	31.762*** (.000)
	300~499만원	34.5	48.3	13.8	3.4	0.0	
	500만원 이상	22.6	33.0	21.7	19.8	2.8	

아) 자녀교육에서의 엄마의 책임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과 교육은 엄마의 책임이 크다’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30대보다 40대가, 농촌보다 도시가, 다른 집단보다 도시의 남성, 가구수입별로 300만원 미만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응답률이 17.6%, 여성의 응답률이 15.6%로 그렇다는 응답률은 남성이 더 높았으며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응답률이 약 10%p 높아 해당 문항에 대한 여성의 비동의 경향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그렇다는 응답률은 30대(10.9%)보다 40대(20.0%)의 응답률이 두 배 가까이 높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40대보다 30대가 15%p 이상 높게 나타나 30대의 비동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 거주자(14.5%)보다 도시 거주자(18.7%)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도시 남성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23.7%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 30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26.1%로 다른 집단보다 약 2배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72.6%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 변수로 나타났다.

〈표 4-11〉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8 :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과 교육은 여성의 책임이 크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p)
계		29.9	32.5	21.0	14.1	2.6	
성별	남성	24.9	36.3	21.2	14.5	3.1	5.455 (.244)
	여성	34.8	28.8	20.7	13.6	2.0	
연령	30대	39.7	27.4	21.9	8.2	2.7	15.130** (.004)
	40대	24.1	35.5	20.4	17.6	2.4	
지역	도시	31.0	31.5	18.8	16.2	2.5	2.515 (.642)
	농촌	28.9	33.5	23.2	11.9	2.6	
지역*성별	도시 남성	22.7	35.1	18.6	19.6	4.1	13.254 (.351)
	도시 여성	39.0	28.0	19.0	13.0	1.0	
	농촌 남성	27.1	37.5	24.0	9.4	2.1	
	농촌 여성	30.6	29.6	22.4	14.3	3.1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21.7	32.6	19.6	23.9	2.2	11.596 (.170)
	300~499만원	33.3	27.8	25.0	12.5	1.4	
	500만원 이상	36.8	35.8	13.2	12.3	1.9	

자)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률은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30대가, 지역별로는 농촌 거주자가 지역의 성별로는 농촌 여성이, 가구수입별로는 500만 원 이상 고소득 집단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과 연령, 지역*성별 변수로 나타났다. 여성의 응답률은 50.0%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을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34.5%로 여성보다 15%p 정도 낮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30대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51.3%로 과반을 넘었으며 40대는 37.0%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30대의 동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농촌 거주자(47.1%)가 도시 거주자(37.6%)보다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각 지역을 다시 성별로 나누어 본 결과 농촌 여성의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57.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농촌 남성(27.9%)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수입별로는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0~499만원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19.3%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2〉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9 :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p)
계		4.6	15.1	38.0	27.0	15.3	
성별	남성	5.7	19.1	40.7	26.3	8.2	18.425** (.001)
	여성	3.5	11.1	35.4	27.8	22.2	
연령	30대	6.2	13.0	29.5	30.1	21.2	12.541* (.014)
	40대	3.7	16.3	43.1	25.2	11.8	
지역	도시	3.0	17.3	42.1	24.9	12.7	7.573 (.109)
	농촌	6.2	12.8	33.8	29.2	17.9	
지역*성별	도시 남성	2.1	19.6	46.4	23.7	8.2	32.410** (.001)
	도시 여성	4.0	15.0	38.0	26.0	17.0	
	농촌 남성	9.3	18.6	35.1	28.9	8.2	
	농촌 여성	3.1	7.1	32.7	29.6	27.6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4.3	8.7	45.7	23.9	17.4	6.284 (.615)
	300~499만원	6.2	13.1	36.6	24.8	19.3	
	500만원 이상	2.8	17.9	32.1	30.2	17.0	

차) 배우자와의 관계

‘힘들 때 배우자가 의지가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연령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30대가, 지역별로는 농촌이, 지역*성별로는 농촌 남성, 가구수입별로는 500만 원 이상 집단이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59.9%로 여성(52.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67.1%로 40대(49.6%)보다 15%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 거주자(62.2%)가 도시 거주자(50.3%)보다 그렇다는 응답률이 10%p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각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본 결과 농촌 남성의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70.6%로 매우 높았으며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적게는 15%p 이상, 많게는 20%p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5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 응답자 64.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입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률은 낮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3〉 인구특성별 가족경험과 인식 10 : 힘들 때 배우자가 의지가 된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p)
계		2.8	7.9	33.1	37.2	19.0	
성별	남성	1.6	8.3	30.2	39.6	20.3	4.078 (.396)
	여성	4.0	7.6	35.9	34.8	17.7	
연령	30대	3.4	6.2	23.3	44.5	22.6	12.999* (.011)
	40대	2.5	9.0	38.9	32.8	16.8	
지역	도시	2.5	7.6	39.6	33.0	17.3	7.772 (.100)
	농촌	3.1	8.3	26.4	41.5	20.7	
지역*성별	도시 남성	0.0	9.3	41.2	34.0	15.5	19.463 (.078)
	도시 여성	5.0	6.0	38.0	32.0	19.0	
	농촌 남성	3.2	7.4	18.9	45.3	25.3	
	농촌 여성	3.1	9.2	33.7	37.8	16.3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6.5	10.9	39.1	26.1	17.4	13.011 (.111)
	300~499만원	3.4	9.7	29.0	39.3	18.6	
	500만원 이상	1.9	1.9	31.4	39.0	25.7	

가족경험과 인식에 대한 문항을 분석했을 때 자라는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경험은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40대가, 거주 지역별로는 도시 거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 있어 보수적인 응답 경향은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40대가, 거주 지역별로는 도시 거주자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2) 가족 내 의사결정 주체

부부 중 각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는 주택구입과 배우자의 취업, 직장 이동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률이 과반 이상이었으며 남편과 아내 중에서는 남편이 주체라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가사 등 집안 일, 생활비 지출, 가족원 돌봄의 경우 아내가 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75.7%, 74.2%, 65.3% 순으로 주로 아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교육과 투자 및 재산관리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률이 40% 이상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나 아내가 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46.2%, 29.5%로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항목별 의사결정 주체

(단위: %)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 아내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자녀교육	1.4	4.6	47.9	34.7	11.5
주택 구입(주거지역, 구입 시기 등)	1.9	23.0	60.1	11.9	3.0
투자 및 재산관리	2.6	24.0	43.9	23.4	6.1
생활비 지출	0.5	3.5	21.8	57.3	16.9
배우자의 취업, 직장 이동	2.8	22.4	56.4	11.5	6.9
가사 등 집안일	0.0	1.4	23.0	58.4	17.3
가족원 돌봄	0.3	1.4	33.1	48.8	16.5

가) 자녀교육

자녀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를 인구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든 인구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30대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률이 60.8%로 과반 이상이었으나 40대는 40.6%에 불과하여 약 20%p의 차이가 났으며 40대의 경우 아내가 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이 51.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아내가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 거주자의 경우 56.8%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농촌의 경우 해당 응답률이 38.0%에 그쳤으며 주로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이

59.1%로 과반 이상이였다. 맞벌이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이 52.2%로 가장 높았으나 외벌이부부의 경우 아내가 의사결정 주체라는 응답이 63.0%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지역별로는 농촌이, 맞벌이여부로는 외벌이 부부 집단에서 아내가 자녀 교육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구수입별로는 가구 수입이 적을수록 대체로 아내가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수입이 많은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남편이 자녀 교육에서의 의사결정 주체라는 응답률은 11.8%로 다른 집단의 3~4배 이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5〉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1 : 자녀 교육

(단위: %)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아내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χ^2 (p)
계		1.4	4.6	47.9	34.7	11.5	
연령	30대	0.8	1.6	60.8	24.0	12.8	17.853** (.001)
	40대	1.8	6.3	40.6	40.6	10.7	
지역	도시	2.2	6.6	56.8	30.1	4.4	30.510*** (.000)
	농촌	0.6	2.4	38.0	39.8	19.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	4.7	52.2	29.6	12.0	15.376** (.004)
	외벌이	0.0	4.1	32.9	53.4	9.6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2.7	0.0	24.3	56.8	16.2	28.671*** (.000)
	300~499만원	1.5	2.3	55.6	34.6	6.0	
	500만원 이상	2.0	9.8	55.9	22.5	9.8	

나) 주택구입(주거지역, 구입 시기 등)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는 가구수입을 제외한 모든 인구학적 특성별 집단에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30대는 62.7%, 40대는 58.4%가, 지역별로 도시 거주자는 54.1%, 농촌 거주자는 66.1%가, 맞벌이 여부로는 맞벌이 부부의 58.2%, 외벌이 부부의 68.1%가 주택 구입에 있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300~499만원 집단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이 63.2%로 가장 높았으며 300만원 미만 집단도 56.8%로 과반 이상이었으나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는 46.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똑같이 의사결정 한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남편과 아내 중에서는 대체로 남편이 주택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구수입별로 5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 집단의 경우 남편이 주택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이 41.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16〉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2 : 주택 구입(주거지역, 구입 시기 등)

(단위: %)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아내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χ^2 (p)
계		1.9	23.0	60.1	11.9	3.0	
연령	30대	1.4	23.2	62.7	9.9	2.8	1.471 (.832)
	40대	2.3	22.8	58.4	13.2	3.2	
지역	도시	2.2	29.3	54.1	11.0	3.3	8.846 (.065)
	농촌	1.7	16.7	66.1	12.8	2.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	24.0	58.2	12.2	3.1	3.901 (.420)
	외벌이	0.0	19.4	68.1	11.1	1.4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2.7	13.5	56.8	16.2	10.8	21.024** (.007)
	300~499만원	1.5	21.3	63.2	11.8	2.2	
	500만원 이상	2.9	39.0	46.7	8.6	2.9	

다) 투자 및 재산관리

투자 및 재산관리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주택 구입처럼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는 않았으며 인구특성별로 응답 경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는 연령과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30대는 남편(20.1%)보다 아내(34.3%)가, 40대는 아내(26.5%)보다 남편(30.7%)이 투자 및 재산관리에 있어 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도시 거주자의 경우 아내(26.2%)보

다 남편(31.0%)이, 농촌 거주자의 경우 남편(22.4%)보다는 아내(32.8%)가 주로 의사결정 주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3 : 투자 및 재산관리

(단위: %)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아내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χ^2 (p)
계		2.6	24.0	43.9	23.4	6.1	
연령	30대	0.7	19.4	45.5	30.6	3.7	12.009* (.017)
	40대	3.8	26.9	42.8	18.8	7.7	
지역	도시	5.4	25.6	42.9	20.8	5.4	11.012* (.026)
	농촌	0.0	22.4	44.8	25.9	6.9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	24.5	41.2	25.2	6.6	4.201 (.380)
	외벌이	3.0	22.4	53.7	16.4	4.5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0.0	22.2	55.6	11.1	11.1	10.759 (.216)
	300~499만원	3.9	29.1	43.3	21.3	2.4	
	500만원 이상	4.0	26.7	38.6	22.8	7.9	

라) 생활비 지출

생활비 지출은 모든 인구특성별 집단에서 주로 아내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지역이었다. 연령별로 30대는 72.2%가 아내가 생활비 지출을 담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0대는 75.5%가 아내가 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시 거주자의 74.8%, 농촌 거주자의 73.6%가 아내가 생활비 지출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73.4%, 외벌이 부부의 경우 76.9%가 주로 아내가 생활비 지출을 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가구수입이 낮을수록 생활비 지출을 아내가 담당하는 경향이 나타나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81.6%가 주로 아내가 담당한다고 응답하였고,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63.2%만이 아내가 생활비 지출을 담당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인구특성보다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4-18〉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4 : 생활비 지출

(단위: %)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아내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χ^2 (p)
계		0.5	3.5	21.8	57.3	16.9	
연령	30대	0.0	1.4	26.4	56.9	15.3	6.927 (.140)
	40대	0.9	4.8	18.9	57.5	18.0	
지역	도시	1.1	3.2	21.1	63.2	11.6	11.075* (.026)
	농촌	0.0	3.8	22.5	51.1	2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0.3	2.7	23.5	57.7	15.7	6.691 (.153)
	외벌이	1.3	6.4	15.4	55.1	21.8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0.0	0.0	18.4	42.1	39.5	20.366** (.009)
	300~499만원	0.7	2.8	19.0	59.9	17.6	
	500만원 이상	0.9	5.7	30.2	50.9	12.3	

마) 배우자의 취업과 직장이동

배우자의 취업과 직장 이동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이 모든 인구특성별 집단에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아내 중에는 남편이 배우자의 취업, 직장 이동에 더 관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30대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응답률이 62.1%, 40대는 52.4%로 약 10%p 차이가 나타났고 남편이 결정한다는 응답률은 40대(29.1%)가 30대(19.7%)보다 약 10%p 높았다. 지역별로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결정한다는 응답률이 도시는 59.9%, 농촌은 52.6%로 도시의 응답률이 더 높았으며 농촌의 경우 아내가 결정한다는 응답률이 24.6%로 도시(12.6%)의 2배 가까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별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응답률이 맞벌이 부부 56.5%, 외벌이 부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수입별로는 수입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대체로 남편이 결정한다는 응답률은 수입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9〉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5 : 배우자의 취업, 직장 이동

(단위: %)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아내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χ^2 (p)
계		2.8	22.4	56.4	11.5	6.9	
연령	30대	2.3	17.4	62.1	10.6	7.6	4.373 (.358)
	40대	3.2	25.9	52.4	12.2	6.3	
지역	도시	1.8	25.7	59.9	10.8	1.8	16.881** (.002)
	농촌	3.9	18.8	52.6	12.3	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	21.5	56.5	11.9	7.3	0.868 (.929)
	외벌이	3.3	25.0	56.7	10.0	5.0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7.1	25.0	53.6	0.0	14.3	12.835 (.118)
	300~499만원	3.3	21.3	60.7	12.3	2.5	
	500만원 이상	2.2	20.7	64.1	7.6	5.4	

바) 가사 등 집안일 결정

가사 등 집안일은 모든 인구특성별 집단에서 주로 아내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지역 변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30대는 가사 등 집안일을 결정하는 주체로 아내가 65.8%,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33.6%로 나타난 반면 40대는 아내가 82.0%로 대다수였으며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은 16.3%에 불과하여 30대 응답률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아내가 가사 등 집안일에 주체라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도시 거주자의 81.0%가, 농촌 거주자의 70.2%가 아내가 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은 농촌이 28.7%로 도시(17.5%)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 부부(12.8%)보다 맞벌이 부부(25.8%)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사 등 집안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는 72.9%, 외벌이는 85.9%가 주로 아내가 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수입이 낮을수록 아내가 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응답률이 28.3%로 가장 높았다.

〈표 4-20〉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6 : 가사 등 집안일

(단위: %)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아내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χ^2 (p)
계		0.0	1.4	23.0	58.4	17.3	
연령	30대	0.0	0.7	33.6	49.7	16.1	15.359** (.002)
	40대	0.0	1.8	16.3	63.9	18.1	
지역	도시	0.0	1.6	17.5	68.8	12.2	18.308*** (.000)
	농촌	0.0	1.1	28.7	47.5	2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1.4	25.8	56.4	16.5	5.917 (.116)
	외벌이	0.0	1.3	12.8	65.4	20.5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0.0	2.6	21.1	42.1	34.2	12.119 (.059)
	300~499만원	0.0	1.4	22.9	62.1	13.6	
	500만원 이상	0.0	1.9	28.3	56.6	13.2	

사) 가족원 돌봄

가족원 돌봄은 모든 인구특성별 집단에서 주로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률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맞벌이, 가구수입 변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30대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률이 44.4%, 아내가 주로 한다는 응답률이 55.7%로 나타난 반면 40대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률이 26.0%로 30대의 절반 수준이었고,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률이 71.4%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과 도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 부부(15.4%)보다 맞벌이 부부(38.2%)가 가족원을 돌봄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맞벌이 부부 역시 남편(1.7%)보다는 주로 아내(60.1%)가 가족원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300~499만원 집단에서 아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응답률이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이 44.8%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1〉 인구특성별 의사결정 주체 7 : 가족원 돌봄

(단위: %)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아내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χ^2 (p)
계		0.3	1.4	33.1	48.8	16.5	
연령	30대	0.0	0.0	44.4	42.3	13.4	16.076** (.003)
	40대	0.4	2.2	26.0	52.9	18.5	
지역	도시	0.5	1.0	33.0	53.4	12.0	7.771 (.100)
	농촌	0.0	1.7	33.1	43.8	21.3	
맞벌이 여부	맞벌이	0.3	1.4	38.2	44.8	15.3	15.131** (.004)
	외벌이	0.0	1.3	15.4	64.1	19.2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0.0	2.6	30.8	33.3	33.3	22.174** (.005)
	300~499만원	0.0	1.4	29.5	56.8	12.2	
	500만 원 이상	1.0	1.9	44.8	41.9	10.5	

3) 배우자와 갈등 원인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에서 갈등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 및 육아 분담’과 ‘경제적 문제’에 의한 갈등도 다른 항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생활 방식’과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한 갈등이 뒤를 이은 반면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와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었다.

〈표 4-22〉 항목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단위: %)

	전혀 없음	없는 편임	가끔 있음	자주 있음	매우 자주 있음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20.5	54.3	22.7	2.4	0.0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15.9	51.1	29.2	3.2	0.5
배우자의 생활 방식(음주, 늦은 귀가, 잔소리)	6.8	40.7	47.7	3.8	1.1
자녀 교육 문제(학업성적, 생활방식)	5.8	38.0	51.3	4.3	0.6
경제적 문제	5.4	41.6	46.2	5.4	1.4
가사 및 육아 분담	7.4	41.0	43.3	7.4	0.8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5.1	39.9	45.3	7.8	1.9

가) 성별에 따른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성별로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가 높은 항목은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5점 만점에 2.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은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이 2.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이 갈등 정도를 높게 응답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와 ‘자녀 교육 문제’의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의 평점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난 항목은 ‘배우자의 생활 방식’이었으며 여성은 5점 만점에 2.63점, 남성은 5점 만점에 2.41점으로 나타나 성별 갈등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4-23〉 성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단위: %)

		N	M	SD	t/F	p
내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남성	182	2.12	0.741	1.322	.187
	여성	188	2.02	0.709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남성	184	2.21	0.740	-0.175	.862
	여성	186	2.22	0.792		
배우자의 생활 방식 (음주, 늦은 귀가, 잔소리)	남성	185	2.41	0.733	-2.860	.004**
	여성	184	2.63	0.706		
자녀 교육 문제 (학업성적, 생활방식)	남성	175	2.57	0.723	0.179	.858
	여성	172	2.55	0.669		
경제적 문제	남성	185	2.55	0.744	-0.149	.882
	여성	183	2.56	0.738		
가사 및 육아 부담	남성	182	2.50	0.799	-0.782	.434
	여성	181	2.56	0.747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남성	185	2.56	0.751	-1.423	.156
	여성	186	2.67	0.809		

나) 연령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가 높은 항목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30대보다는 40대가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가사 및 육아 부담’(2.53점)에서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는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2.72점)에서 갈등이 자주 있는 편이었다. 항목 중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내 부모/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의 부모/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의 생활방식’, ‘자녀 교육 문제’,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이었으며 연령집단 간 응답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로 30대는 5점 만점에 평점 1.99점, 40대는 5점 만점에 평점 2.35점으로 나타나 30대보다는 40대에서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로 인한 갈등 정도가 더 높았다.

〈표 4-24〉 연령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단위: %)

		N	M	SD	t/F	p
내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30대	144	1.91	0.678	-3.448	.001**
	40대	226	2.17	0.737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30대	144	1.99	0.714	-4.608	.000***
	40대	226	2.35	0.765		
배우자의 생활 방식 (음주, 늦은 귀가, 잔소리)	30대	144	2.38	0.737	-3.051	.002**
	40대	225	2.61	0.706		
자녀 교육 문제 (학업성적, 생활방식)	30대	123	2.36	0.679	-4.084	.000***
	40대	224	2.67	0.681		
경제적 문제	30대	143	2.48	0.680	-1.544	.123
	40대	225	2.60	0.773		
가사 및 육아 부담	30대	137	2.53	0.777	-0.118	.907
	40대	226	2.54	0.772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30대	144	2.45	0.718	-3.245	.001**
	40대	227	2.72	0.804		

다) 지역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지역별로 배우자와의 갈등은 대부분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농촌은 ‘나와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의 갈등 정도가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는 그 외 ‘배우자의 생활방식, 성격이나 사고방식’과 ‘자녀 교육과 가사 및 육아분담’, ‘경제적 문제’에서 농촌보다 갈등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거주자는 항목 중 ‘자녀 교육 문제’(2.68점)에 대한 갈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 거주자는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2.59점)에 대한 갈등 정도가 가장 높았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 문제’에서 나타났다. ‘자녀 교육 문제’가 도시(2.68점)가 농촌(2.43점)보다 0.25점 높아 가장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부모/형제자와의 관계’는 반대로 농촌(2.33점)이 도시(2.10점)보다 0.23점 높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지역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단위: %)

		N	M	SD	t/F	p
내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도시	189	1.96	0.695	-2.933	.004**
	농촌	181	2.18	0.742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도시	189	2.10	0.688	-2.920	.004**
	농촌	181	2.33	0.824		
배우자의 생활 방식 (음주, 늦은 귀가, 잔소리)	도시	189	2.54	0.672	0.741	.459
	농촌	180	2.49	0.780		
자녀 교육 문제 (학업성적, 생활방식)	도시	181	2.68	0.639	3.399	.001**
	농촌	166	2.43	0.733		
경제적 문제	도시	189	2.67	0.668	2.938	.004**
	농촌	179	2.44	0.794		
가사 및 육아 분담	도시	187	2.59	0.716	1.432	.153
	농촌	176	2.47	0.828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도시	189	2.64	0.720	0.642	.521
	농촌	182	2.59	0.841		

라) 맞벌이 여부에 따른 갈등 정도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모든 항목에서 맞벌이보다는 외벌이 부부가 갈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모두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맞벌이 2.56점, 외벌이 2.81점)에서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집단 간 차이는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가사 및 육아 분담’,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해당 항목 중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로 맞벌이 부부(2.14점)보다 외벌이 부부(2.49점)가 0.35점 더 높아 집단 간 갈등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4-26〉 맞벌이 여부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단위: %)

		N	M	SD	t/F	p
내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맞벌이	291	2.04	0.732	-1.535	.126
	외벌이	76	2.18	0.687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맞벌이	291	2.14	0.762	-3.643	.000***
	외벌이	78	2.49	0.716		
배우자의 생활 방식 (음주, 늦은 귀가, 잔소리)	맞벌이	290	2.51	0.754	-0.478	.633
	외벌이	78	2.55	0.617		
자녀 교육 문제 (학업성적, 생활방식)	맞벌이	271	2.54	0.697	-0.780	.436
	외벌이	75	2.61	0.695		
경제적 문제	맞벌이	289	2.54	0.721	-0.627	.531
	외벌이	78	2.60	0.811		
가사 및 육아 분담	맞벌이	284	2.49	0.768	-2.096	.037*
	외벌이	78	2.69	0.778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맞벌이	292	2.56	0.755	-2.485	.013*
	외벌이	78	2.81	0.854		

마) 지역과 성별에 따른 갈등정도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도시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은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농촌 여성 2.70점, 도시 여성 2.65점, 농촌 남성 2.48점)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시 여성은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과 더불어 ‘자녀 교육 문제’(2.65점)의 갈등 정도도 높게 응답하였다. 도시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정도가 2.77점으로 가장 자주 일어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은 ‘내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배우자의 생활 방식’, ‘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로 농촌 여성(2.46점)과 도시 여성(2.00점) 간의 차이가 0.46점으로 가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지역*성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단위: %)

		N	M	SD	t/F	p
내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도시 남성	91	2.04	0.744	3.652	.013*
	도시 여성	98	1.89	0.640		
	농촌 남성	91	2.20	0.734		
	농촌 여성	90	2.17	0.753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도시 남성	93	2.20	0.685	5.707	.001**
	도시 여성	96	2.00	0.681		
	농촌 남성	91	2.21	0.796		
	농촌 여성	90	2.46	0.837		
배우자의 생활 방식 (음주, 늦은 귀가, 잔소리)	도시 남성	93	2.47	0.701	3.203	.023*
	도시 여성	96	2.61	0.639		
	농촌 남성	92	2.35	0.762		
	농촌 여성	88	2.64	0.776		
자녀 교육 문제 (학업성적, 생활방식)	도시 남성	90	2.71	0.707	4.037	.008**
	도시 여성	91	2.65	0.565		
	농촌 남성	85	2.41	0.712		
	농촌 여성	81	2.44	0.758		
경제적 문제	도시 남성	93	2.77	0.739	5.892	.001**
	도시 여성	96	2.56	0.577		
	농촌 남성	92	2.33	0.681		
	농촌 여성	87	2.56	0.885		

		N	M	SD	t/F	p
가사 및 육아 부담	도시 남성	92	2.63	0.737	2.015	.111
	도시 여성	95	2.55	0.696		
	농촌 남성	90	2.37	0.841		
	농촌 여성	86	2.58	0.804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도시 남성	93	2.63	0.749	1.367	.252
	도시 여성	96	2.65	0.696		
	농촌 남성	92	2.48	0.748		
	농촌 여성	90	2.70	0.917		

바) 가구수입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가구수입별로는 500만 원 이상 고소득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갈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은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경제적 문제’, ‘가사 및 육아 부담’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2.45점)와 ‘경제적 문제’(2.70점)에 있어서는 3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집단의 갈등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 및 육아 부담’은 300~499만원 집단이 2.70점으로 갈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8〉 가구수입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단위: %)

		N	M	SD	t/F	p
내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300만원 미만	40	2.25	0.742	1.616	.200
	300~499만원	143	2.08	0.713		
	500만원 이상	104	2.01	0.717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300만원 미만	38	2.45	0.686	3.274	.039*
	300~499만원	143	2.27	0.798		
	500만원 이상	104	2.10	0.770		
배우자의 생활 방식 (음주, 늦은 귀가, 잔소리)	300만원 미만	37	2.51	0.731	0.271	.763
	300~499만원	142	2.58	0.656		
	500만원 이상	105	2.51	0.810		
자녀 교육 문제 (학업성적, 생활방식)	300만원 미만	34	2.50	0.788	1.122	.327
	300~499만원	131	2.63	0.683		
	500만원 이상	103	2.50	0.712		

		N	M	SD	t/F	p
경제적 문제	300만원 미만	37	2.70	0.909	3.658	.027*
	300~499만원	142	2.62	0.769		
	500만원 이상	105	2.40	0.598		
가사 및 육아 부담	300만원 미만	36	2.61	0.688	5.930	.003**
	300~499만원	139	2.70	0.768		
	500만원 이상	105	2.36	0.774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300만원 미만	38	2.76	0.913	1.099	.335
	300~499만원	143	2.67	0.803		
	500만원 이상	105	2.56	0.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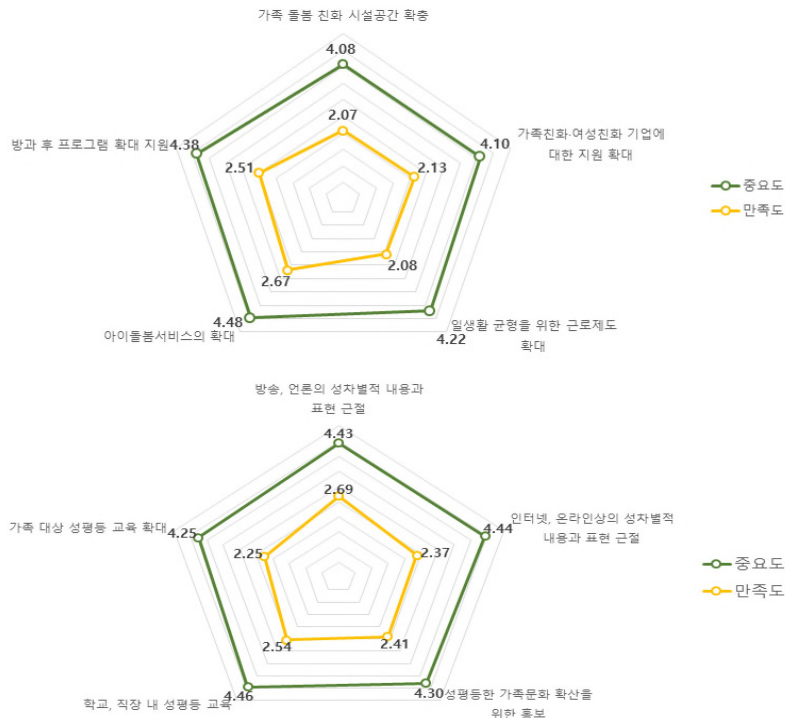
4)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는 5점 만점에 평점 4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족도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이 2점대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가 높은 항목들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가 4.48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 직장 내 성평등 교육’ 4.46점, ‘인터넷, 온라인상의 성차별적 내용과 표현 근절’ 4.44점, ‘방송, 언론의 성차별적 내용과 표현 근절’ 4.4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가족 돌봄 친화 시설공간 확충’(4.08점)이었으나 해당 항목 역시 4점 이상의 높은 평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방송 언론의 성차별적 내용과 표현 근절’이 2.69점에 불과하여 보통에 해당하는 3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가족 돌봄 친화 시설공간 확충’(2.07점)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제도 확대’(2.08점)로 나타났다. 또한 유연근무제 같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제도 확대’는 중요도는 4.22점인 반면 만족도는 2.08점에 불과하여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4-29〉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단위: %)

	중요도		만족도	
	N	M	N	M
방송, 언론의 성차별적 내용과 표현 근절	393	4.43	390	2.69
인터넷, 온라인상의 성차별적 내용과 표현 근절	393	4.44	389	2.37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393	4.30	390	2.41
학교, 직장 내 성평등 교육	393	4.46	389	2.54
가족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392	4.25	389	2.25
가족 돌봄 친화 시설공간 확충 (예. 남성이용가능 수유시설)	393	4.08	388	2.07
가족친화·여성친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393	4.10	390	2.13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제도 확대	393	4.22	390	2.08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389	4.48	387	2.67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지원	391	4.38	388	2.51



〈그림 4-1〉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5)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가) 코로나19 이후 직장 상태 변화

코로나 19 이후 직장 상태의 변화 경험에 대해서는 실직을 제외한 모든 변화에서 아내보다 남편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직은 남편보다 아내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임금 삭감’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시간 단축’ 17.9%, ‘유연근무제’ 16.5%, ‘재택근무’ 15.1%, ‘실직’ 4.8% 순으로 경험률이 나타났다. 반면 아내는 ‘재택근무’가 13.9%로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노동시간 단축’ 13.5%, ‘유연근무제’ 12.3%, ‘임금 삭감’ 10.0%, ‘실직’ 5.2% 순으로 경험률이 나타났다.

남편에게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임금 삭감’은 10명 중 2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상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임금 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남편의 임금 삭감은 가정 경제 악화 심화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표 4-30〉 코로나 19 이후 직장 상태의 변화 경험

(단위: %)

	남편		아내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
노동시간 단축	17.9	82.1	13.5	86.5
임금 삭감	18.8	81.2	10.0	90.0
재택근무	15.1	84.9	13.9	86.1
유연근무제	16.5	83.5	12.3	87.7
실직	4.8	95.2	5.2	94.8

나) 코로나19 이후의 가장 큰 변화

코로나 19 이후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스트레스 증가’가 60.2%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실직/경기 악화로 인한 가족경제 악화’가 24.2%, ‘가사노동의 증가’가 9.4%, 배우자나 아이와의 갈등 증가’가 4.3%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인구특성별로는 성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성은 '실직/경기 악화로 인한 가족경제 악화'의 응답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그 외 모든 분야에 대한 응답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모두 '건강에 대한 염려와 스트레스 증가'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40대가 66.1%로 30대(50.3%)의 응답률보다 15%p 이상 높게 나타났고, 30대는 '가사노동의 증가' 응답률이 15.6%로 40대(5.7%)보다 약 10%p 높았으며 '배우자와 아이와의 갈등 증가' 역시 7.5%로 40대(2.4%)보다 약 5%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은 도시에 비해 '건강에 대한 염려와 스트레스 증가'(농촌 67.5%, 도시 53.0%)가 약 15%p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는 농촌에 비해 '실직/경기 악화로 인한 가족경제 악화'(도시 29.3%, 농촌 19.1%)가 약 10%p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가사노동의 증가'(11.6%)가, 외벌이 부부는 '실직/경기 악화로 인한 가족경제 악화'(34.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도시 남성은 '실직/경기 악화로 인한 가족경제 악화'(33.7%)가, 도시 여성은 '가사노동의 증가'(13.0%)가, 농촌 남성과 여성은 '건강에 대한 염려와 스트레스 증가'(각각 67.0%, 68.0%)가 다른 집단에 비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모든 집단에서 '건강에 대한 염려와 스트레스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5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 집단에서 63.2%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배우자나 아이와의 갈등 증가'와 '실직/경기악화로 인한 가족경제 악화' 응답률이, 300~499만원 집단에서는 '가사노동의 증가'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특성과 지역*성별특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표 4-31〉 인구특성별 코로나 19 이후 가장 큰 변화

(단위: %)

		가사노동의 증가	배우자나 아이와의 갈등 증가	실직/경기 악화로 인한 가족경제 악화	건강에 대한 염려와 스트레스 증가	기타	χ^2 (p)
계		9.4	4.3	24.2	60.2	1.8	
성별	남성	8.7	3.1	26.7	59.0	2.6	3.995 (.407)
	여성	10.2	5.6	21.8	61.4	1.0	
연령	30대	15.6	7.5	24.5	50.3	2.0	18.864** (.001)
	40대	5.7	2.4	24.1	66.1	1.6	
지역	도시	10.6	5.1	29.3	53.0	2.0	8.815 (.066)
	농촌	8.2	3.6	19.1	67.5	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6	5.1	23.2	58.4	1.7	7.902 (.095)
	외벌이	3.8	2.5	34.2	57.0	2.5	
지역*성별	도시 남성	8.2	4.1	33.7	51.0	3.1	23.064* (.027)
	도시 여성	13.0	6.0	25.0	55.0	1.0	
	농촌 남성	9.3	2.1	19.6	67.0	2.1	
	농촌 여성	7.2	5.2	18.6	68.0	1.0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4.3	10.9	26.1	56.5	2.2	15.355 (.053)
	300~499만원	13.8	4.8	25.5	55.9	0.0	
	500만원 이상	7.5	3.8	20.8	63.2	4.7	

다)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증가 경험

코로나 19 이후 가사노동의 증가에 대해서는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39.9%, 비슷하다(보통)는 응답이 59.0%,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1.1%로 나타났다.

인구특성별로 코로나 19 이후 가사노동 증가 경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성별, 연령별, 맞벌이 여부별, 가구수입별 특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2.8%)보다 여성(47.0%)의 가사노동이 증가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32.1%)보다 30대(53.1%)에게서 가사노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집단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농촌보다는 도시의 증가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 부부(25.4%)보다 맞벌이 부부(46.6%)일 경우에 가사노동이 증가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확인해본 결과 도시 여성(47.0%)과 농촌 여성(46.9%)의 가사

노동 증가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 남성(34.7%), 농촌 남성(30.9%) 순으로 가사노동 증가 경험률이 나타났다.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300~499만원의 수입이 있는 집단의 증가 경험이 45.3%로 가장 높았고, 5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 집단의 증가 경험이 3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32〉 인구특성별 코로나 19 이후 가사노동 증가 경험

(단위: %)

		매우 증가	증가	보통	감소	매우 감소	χ^2 (p)
계		7.1	32.8	59.0	0.8	0.3	
성별	남성	3.6	29.2	66.2	0.5	0.5	12.969* (.011)
	여성	10.6	36.4	52.0	1.0	0.0	
연령	30대	10.9	42.2	45.6	0.7	0.7	19.814** (.001)
	40대	4.9	27.2	67.1	0.8	0.0	
지역	도시	6.1	34.8	59.1	0.0	0.0	5.194 (.268)
	농촌	8.2	30.8	59.0	1.5	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9.2	37.4	52.7	0.3	0.3	14.189** (.007)
	외벌이	1.3	24.1	74.7	0.0	0.0	
지역*성별	도시 남성	3.1	31.6	65.3	0.0	0.0	19.761 (.072)
	도시 여성	9.0	38.0	53.0	0.0	0.0	
	농촌 남성	4.1	26.8	67.0	1.0	1.0	
	농촌 여성	12.2	34.7	51.0	2.0	0.0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8.7	30.4	54.3	6.5	0.0	18.637* (.017)
	300~499만원	9.4	35.9	56.6	0.0	0.0	
	500만원 이상	8.5	25.8	54.7	0.0	0.9	

라)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증가 원인

코로나 19 이후 가사노동의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녀의 돌봄 증가’가 30.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외식/가사 도우미 고용 어려움’(25.2%), ‘자녀 외 가족구성원 돌봄 증가’(24.5%), ‘직장노동시간 변화’(17.8%)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특성별로 코로나 19 이후 가사노동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지역별로는 도시의 경우 ‘외식/가사 도우미 고용 어려움’의 응답률이 32.7%로 가장 높은 반면, 농촌은 ‘자녀의

돌봄 증가'가 34.5%로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노동시간 변화'를 원인으로 꼽은 응답률이 19.2%로 외벌이 부부(8.1%) 응답률의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외벌이 부부는 '자녀의 돌봄 증가' 응답률이 40.5%로 맞벌이 부부(29.5%)보다 10%p 이상 응답률이 높았다. 가구수입별로는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직장노동시간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는 응답률이 34.4%로 다른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외식/가사도우미 고용 어려움'은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26.7%로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300~499만원 집단의 경우 '자녀의 돌봄 증가'와 '자녀 외 가족구성원 돌봄 증가'가 각각 32.5%, 29.4%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33〉 인구 특성별 코로나 19 이후 가사노동 증가 원인(다중응답)

(단위: %)

		직장노동시간 변화	자녀의 돌봄 증가	외식/가사 도우미 고용 어려움	자녀 외 가족구성원 돌봄 증가	기타
계		17.8	30.9	25.2	24.5	1.7
성별	남성	17.9	33.3	25.2	22.8	0.8
	여성	17.7	29.1	25.1	25.7	2.3
연령	30대	16.6	32.5	29.8	21.2	0.0
	40대	19.0	29.3	20.4	27.9	3.4
지역	도시	18.6	27.6	32.7	19.9	1.3
	농촌	16.9	34.5	16.9	29.6	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9.2	29.5	25.7	23.8	1.9
	외벌이	8.1	40.5	21.6	29.7	0.0
지역*성별	도시 남성	20.3	29.7	32.8	17.2	0.0
	도시 여성	17.4	26.1	32.6	21.7	2.2
	농촌 남성	15.3	37.3	16.9	28.8	1.7
	농촌 여성	18.1	32.5	16.9	30.1	2.4
가구수입	300만원 미만	34.4	21.9	21.9	21.9	0.0
	300~499만원	13.5	32.5	23.8	29.4	0.8
	500만원 이상	16.7	31.1	26.7	22.2	3.3

마) 코로나19 이후 부부관계 만족도

코로나 19 이후 부부 관계 만족도는 전보다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하고,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은 17.4%로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률의 두 배 이상 높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는 코로나 19 전과 변화가 없다(75.4%)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특성별로는 지역, 맞벌이 여부, 지역*성별, 맞벌이*성별 특성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은 여성보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응답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 역시 큰 차이는 없었으나 40대보다는 30대 응답자들이 코로나 19 전보다 현재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의 경우 변화 없음 응답률이 85.6%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도시의 경우 변화 없음 응답률은 65.3%에 불과하여 농촌보다 약 20%p 낮았으며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이 25.0%로 (농촌의 경우 9.8%)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의 경우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전무하였으며 변화 없음 82.3%, 관계가 악화됨 17.7%로 응답이 나타난 반면 맞벌이 부부는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률이 9.6%, 변화 없음 71.9%, 관계가 악화됨 18.5%로 나타났다.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본 결과 도시 여성이 다른 집단보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낮고,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응답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률은 15.1%,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은 25.2%로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를 성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로는 외벌이 부부의 여성에게서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집단과는 1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외벌이 남성은 관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90.4%로 대부분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관계가 좋아졌다는 인식이 높은 집단은 맞벌이 부부의 여성(11.3%)이었다.

〈표 4-34〉 인구 특성별 코로나 19 이후 부부 관계 만족도 변화

(단위: %)

		관계가 매우 좋아짐	관계가 약간 좋아짐	변화 없음	관계가 약간 악화됨	관계가 매우 악화됨	χ^2 (p)
계		0.5	6.7	75.4	16.4	1.0	
성별	남성	0.5	4.6	78.9	14.9	1.0	3.504 (.477)
	여성	0.5	8.7	71.9	17.9	1.0	
연령	30대	0.7	8.3	72.9	16.7	1.4	1.585 (.811)
	40대	0.4	5.7	76.8	16.3	0.8	
지역	도시	0.5	9.2	65.3	23.5	1.5	21.998*** (.000)
	농촌	0.5	4.1	85.6	9.3	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0.7	8.9	71.9	17.8	0.7	10.690* (.030)
	외벌이	0.0	0.0	82.3	15.2	2.5	
지역*성별	도시 남성	0.0	4.1	71.1	22.7	2.1	34.162** (.001)
	도시 여성	1.0	14.1	59.6	24.2	1.0	
	농촌 남성	1.0	5.2	86.6	7.2	0.0	
	농촌 여성	0.0	3.1	84.5	11.3	1.0	
맞벌이 *성별	맞벌이 남성	0.8	6.8	72.9	18.0	1.5	26.997** (.008)
	맞벌이 여성	0.6	10.7	71.1	17.6	0.0	
	외벌이 남성	0.0	0.0	90.4	9.6	0.0	
	외벌이 여성	0.0	0.0	66.7	25.9	7.4	

바) 코로나19 이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코로나 19 이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변화 없음이 75.7%로 대부분의 응답률을 차지했으나 관계가 좋아졌다는(8.7%) 응답률보다는 관계가 악화되었다는(15.6%)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와의 관계가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79.4%이고 여성은 72.1%이며 여성의 경우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률은 남성보다 약 5%p,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은 남성보다 약 2%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률(13.1%)이 40대(6.1%)보다 높게 나타났고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은 40대(18.3%)가 30대(1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응답의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도시보

다는 농촌에서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의 경우 관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86.1%로 맞벌이 부부(71.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률이 맞벌이 부부가 10%p 이상,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률도 맞벌이 부부가 약 3%p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코로나 19 전보다 현재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응답률은 도시 여성이 14.1%로 가장 높았으며 농촌 남성과 여성이 8%대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도시 남성이 4.1%로 가장 낮았다.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은 농촌 여성이 19.4%로 가장 높았으며 농촌 남성 15.5%, 도시 여성 14.1%, 도시 남성 13.4%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률은 맞벌이 여성(13.8%)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남성이 9.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은 외벌이 여성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대해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은 연령, 맞벌이 여부로 나타났다.

〈표 4-35〉 인구 특성별 코로나 19 이후 자녀 관계 만족도 변화

(단위: %)

		관계가 매우 좋아짐	관계가 약간 좋아짐	변화 없음	관계가 약간 악화됨	관계가 매우 악화됨	χ^2 (p)
계		1.0	7.7	75.7	15.6	0.0	
성별	남성	0.5	5.7	79.4	14.4	0.0	4.007 (.261)
	여성	1.5	9.6	72.1	16.8	0.0	
연령	30대	1.4	11.7	75.9	11.0	0.0	8.298* (.040)
	40대	0.8	5.3	75.6	18.3	0.0	
지역	도시	1.0	8.2	77.0	13.8	0.0	1.056 (.788)
	농촌	1.0	7.2	74.4	17.4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	10.2	71.7	16.7	0.0	11.197* (.011)
	외벌이	0.0	0.0	86.1	13.9	0.0	
지역*성별	도시 남성	0.0	4.1	82.5	13.4	0.0	8.437 (.491)
	도시 여성	2.0	12.1	71.7	14.1	0.0	
	농촌 남성	1.0	7.2	76.3	15.5	0.0	
	농촌 여성	1.0	7.1	72.4	19.4	0.0	

		관계가 매우 좋아짐	관계가 약간 좋아짐	변화 없음	관계가 약간 악화됨	관계가 매우 악화됨	χ^2 (p)
맞벌이 *성별	맞벌이 남성	0.8	8.3	73.7	17.3	0.0	15.529 (.077)
	맞벌이 여성	1.9	11.9	70.0	16.3	0.0	
	외벌이 남성	0.0	0.0	90.4	9.6	0.0	
	외벌이 여성	0.0	0.0	77.8	22.2	0.0	

다. 가족 내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

전라북도 지역 3040세대 설문 응답자들 중 과반 이상이 성차별이나 성별에 따른 역할부여, 기대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가족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는 10명 중 2-3인에 머물러 가족 내 성평등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차별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성, 40대, 도시지역, 수입은 300~499만원인 응답자가 높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어린 시절 성역할 교육에 대해서도 남성, 40대, 도시지역, 가구수입 500만 원 이상이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성역할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압력의 경험은 시기적으로는 40대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성차별이나 성역할로 명명할 수 있는 것은, 명명할 수 있는 인식과 언어를 가지고야 가능하다는 지점과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 남성, 40대의 집단이 성평등한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어서, 노후를 위해 자식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노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한데, ‘부모의 노후에 자신이 필요한가’의 논의와 ‘나의 노후에 자식이 필요한지’의 논의의 대답이 혼재될 수 있으나, 가족 간의 연결을 통한 노후의 안전망을 고려한다는 점은 살펴볼 수 있었다.

설문에 대부분의 응답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으로, 각 문항에서 30대와 40대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재산분배, 가사노동 분배, 성별에 따른 교육에 대한 태도, ‘엄마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편이 좋다’, 자녀교육에서의 엄마의 책임 등의 물음에 있어서 40대가 보수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 대비 성평등적인 지향을 보이고 있었다.

가족 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률이 과반을 넘었지만, 가사 등 집안일, 가족원 돌봄, 자녀 교육에서의 결정권은 아내가 더 가진 경향을 보였고, 주택구입은 남편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수입이 500만 원 이상은 집단의 경우 남편의 의사가 반영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가구 소득에 따른 가족 내 의사 결정권이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가사 등 집안일에 대한 의사결정은 세대 간 차이를 명확히 보였는데, 30대는 가사 등 집안일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내인 경우가 65.8%이고, 같이 한다는 응답이 33.6%인 반면, 40대에서는 아내가 주로 한다는 응답이 82.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같이 한다는 응답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원 돌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우자와의 갈등에 대한 문항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 30대보다는 40대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갈등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구 수입별로는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소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갈등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나 확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만족도는 떨어져서, 5점 척도에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2점 가량으로 기대에 비해 제도의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삭감, 임금 삭감, 재택근무의 경험 등에 있어서 아내보다는 남편의 경험률이 높게 났으나, 실직에 있어서는 부인의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서, 여성의 취약한 직업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증가 경험에 대해서는 30대 여성의 증가한 경험이 가장 높아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의 확대에 의한 돌봄노동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가족 경험

가. 심층면접조사 개요

1) 심층면접 방법 및 조사내용

심층면접은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30~40대 기혼 남녀 1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만 30~49세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족 내 성평등 관련 인식, 가족 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언,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관계 변화,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 개선을 위한 의견, 정책이나 사업제안 등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래 <표 4-36> 심층면접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질문과정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좀 더 자세한 추가질문을 하면서 진행되었다. 면접은 1:1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고,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 장소는 면접자의 선호에 따라, 면접자의 직장이나 면접자 거주지 부근의 카페 등의 장소를 이용하였다.

<표 4-36> 심층면접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가족에 대한 인식	· 본인이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구성 · 결혼시기와 가족 구성 · 본인의 가족 관계에 대한 의견
가족 내 성평등에 경험과 태도	· 성장과정에서의 성차별 경험 유무, · 재산 상속/증여 과정에서 성차별 경험 유무와 태도 · 어린 시절 가족 내 성평등 정도 · 현재 가족 내 성평등 정도 · 가족 관계 전반적 만족도 · 시집(본가)/친정(처가)과의 관계 · 가사활동 참여정도 · 자녀교육, 주택구입, 자산관리, 생활비지출, 가족원 돌봄 등의 결정권
가족/부부 관계 만족도	· 부부 애정도/부부갈등 · 이혼 결심 경험 · 취미생활 공유 · 결혼생활 지속 이유 · 배우자와의 대화/친밀도 · 배우자와의 갈등 원인

구분	조사내용
코로나 이후의 가족 관계 변화	· 직장 상태의 변화 · 가사노동의 부담 변화와 이유 · 돌봄노동의 부담 변화와 이유 · 부부 관계 만족도의 변화와 이유
가족 내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안 의견	· 가족관련 정책에 대한 제언 사항 · 가족 내 성평등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
한국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	· 한국사회의 가정, 직장, 지역사회, 나라의 성평등 정도 · 본인이 여자/남자이기 때문에 경험한 차별이나 불리한 경험 여부 · 인터넷, 방송, 언론에서의 성차별 · 학교, 직장 내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 가족친화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
이상적인 결혼과 가족	· 행복한 결혼을 위해 필요한 요소 ·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 · 배우자가 이 면접을 했다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에 대한 예상

2) 심층면접 응답자

심층면접의 대상자는 지역과 나이를 배분하여 표집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남성 응답자를 찾기가 어려웠고, 특히 농촌지역에서 30대의 기혼남녀를 찾는 일이 어려워 그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다.

〈표 4-37〉 심층면접 대상자

연번	성별	연령	직업유형	지역	학력	가구원	맞벌이 여부	소득
1	남성	40대	건축사	전주	대학원졸	본인, 아내, 아들1, 딸1	맞벌이	800~900
2	남성	30대	사무직	전주	대졸	본인, 아내, 딸1	맞벌이	500~800
3	여성	30대	사무직	전주	대졸	본인, 남편, 딸1 (주말부부)	맞벌이	500~600
4	여성	30대	연구직	전주	대학원졸	본인, 남편	맞벌이	600
5	여성	30대	사무직	전주	대학원졸	본인, 남편, 아들1	맞벌이	500~800
6	여성	30대	프리랜서	전주	대졸	본인, 남편	맞벌이	300미만
7	여성	40대	사무직	김제	대졸	본인, 남편, 아들1, 딸2	맞벌이	600정도
8	여성	40대	사무직	전주	대학원졸	본인, 남편, 아들1	맞벌이	300~500

연번	성별	연령	직업유형	지역	학력	가구원	맞벌이 여부	소득
9	남성	40대	전문직	전주	대졸	본인, 아내	맞벌이	500
10	여성	40대	주부	전주	전문대졸	본인, 남편, 딸3	외벌이	300~500
11	여성	40대	주부	전주	대졸	본인, 남편, 딸2	외벌이	연봉 5천
12	여성	40대	농업	정읍	고졸	본인, 남편, 딸3	맞벌이	300
13	남성	30대	농업	정읍	대졸	본인, 아내, 아들1	외벌이	300
14	여성	40대	농업	정읍	고졸	본인, 남편, 아들1, 딸1	맞벌이	300~500

나. 심층면접 응답에서 나타난 가족 경험

1) 가족에 대한 인식

가) 가족범위

심층면접을 시작하면서 ‘가족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대답은 “양가 부모님, 아내와 저의 직계가족까지, 양가 부모님과 제 형제, 그리고 아내의 부모님과 형제까지”라고 대답한 경우였고(심층면접 2), 본인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남편과 자식만을 떠올리는데 비해, 남편의 경우는 우리가족이라고 하면 시댁식구까지도 포함할 거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심층면접 5, 심층면접 7). 남성 응답자 중에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경우나, 시댁식구가 가족은 아닐지라도 남편은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가족이라면)지금의 남편은 또 저희를 생각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머남도 생각을 할 거 같아요 (심층면접 10)

저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저희 가족만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항상 마주하며 있으니까. 저는 작은 저희 가족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딱 우리 가족 네 명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님.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주말에 꼭 가야되니까 (심층면접 11)

남편의 경우는 혼자된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언급하며, 부모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거나, 시댁과 가깝게 살거나 혹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자녀 돌봄을 도와주는 경우(심층면접 3)나, 같은 건물에서 살면서 다른 층에서 거주하거나 혹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경우(심층면접 8, 심층면접 5, 심층면접 13, 심층면접 1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과는 별개로 가까운 가족으로 활동하는 영역에는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으로 인해, 독립적인 본인의 삶에 대한 태도나 추구와는 달리 시댁식구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특히 가족 친밀도가 큰 가정의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원가족과는 다른 친밀한 가족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남편의) 부모님의... 좀 다른 이야긴데 제 개인적인 삶을 추구했는데 결혼으로 인해서 갑자기 가족의, 가족 위주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몸소 실천하며 내조, 시댁식구들과 관계를 맺게 되더라고요.....사실 남편하고 시댁식구는 출산 전에는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오히려 출산 후에 제가 심적인 부담이 정말 많이 커진 게... 아기를 낳고나서 제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으니까 구직이 되면 복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시어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왕래가 더 빈번해지고 육아는 육아대로, 일은 일대로 어머니께도 감사하면서도 부채감도 있고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출산으로 인해서...(심층면접 5)

나) 가족경험: 어린시절 차별과 성역할 교육

어린시절의 성별에 따른 차별과 같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조부모의 경우는 그랬지만 적어도 부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면접자들의 형제자매 구성에 대한 대답에서, 4녀 1남이거나 6녀 1남의 경우를 만날 수 있었다.

엄마랑 아빠는 차별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할머니가 맨 처음에... 제가 81년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아선호사상이 더 많고 하다보니까, 할머니가 저 낳자

마자 떠들러보더니 성별이 여자니까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생 낳고
는 엄마 밥도 해주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제 서러워서 저한테 한
번 얘기하셨는데 엄마랑 아빠는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찌됐던 간에.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심충면접 11)

근데 저희 형제가 딸들이 많아요.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이 막내예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 속에는 할머니는 약간 그제 있었어요.
동생을 위한 게 있었고 아무래도 남자가 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꼈을 수
도 있는데. 제가 성인이 됐을 때까지는 부모님한테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어요.
저는 그랬어요. (심충면접 10)

저는 오남매에 네 번째 딸이에요. 제 밑에 남동생이 있는 거죠. 아주 귀한
아들이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도 아빠도 장남 장녀였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70대 후반이니까, 그 시절에는 양자를 삼아서라도 아들
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셨던 분들이서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하셨죠. 그
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우셨대요. 이번엔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이어 가지고. 그리고 저는 옆집 산파 할머니가 받아주서 가지고, 산부인과에
서 낳은 게 아니고. 이제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거는 남동
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몰랐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아들이
라고 해서 아빠도 그렇고, 특별하게 제가 느꼈던 건 없었어요. 옷을 사더라도
항상 똑같이 옷을 사서 주셨고…. 엄마가 지금도 이야기 하시는 게 아들이라고
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를 더 해준 적은 없다고.(심충면접 4)

저희 친정도 시골 농사지었고, 저희도 2남 4녀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
이 살았어요. 대가족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넷째예요. 남동생은 둘이었
고…. 할머니가 그런 것(아들을 바란 것)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엄
마도 딸 넷 낳다보니까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
시는 아들이 1번인 시대라. 그렇죠. 조금….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밥상을….
밥을 먹을 때 지금은 한 상에서 같이 먹잖아요. 그때는 상이 두 개였어요. 할아
버지, 아빠, 할머니, 남자아이들 둘. 저희 같은 경우엔 엄마, 딸들, 큰 집이나
작은아빠라든지 어른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먹었거든요. 그
분까지 해서 같이. 따로 먹었어요…. 아무래도 반찬이 다르다기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쌀하고 보리를 섞어서 먹지만 우리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쌀을 드리고 고기도 하나 더 드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상이 조금….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할머니는 아들을 굉장히 예뻐했어요. 잘 해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특히나 시골이 여섯 키우기가 힘들었어요. 농사만 지어서. 점점 아빠도 규모가 커지긴 했는데, 저희 키울 때 어렸을 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업과를 나왔어요. 종합고등학교 상업과 나와서 바로 취직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지만) 저희 엄마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라고 따로, 딸이라고 따로 차별하는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할머니가 좀 아들을 예뻐 해줬던 거는 있었어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심층면접 10)

이들의 경험은 세대를 넘어오면서 자식 중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력에는 따랐지만, 부모들이 그 자식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면접 당사자들의 형제 자매에 대한 관계에서는 한쪽 성별만 있는 경우는 전혀 없었는데 비해, 자식 구성은 다양함을 보였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물론 크게 서운한 점은 아니지만, 작은 차별을 경험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엄마가 오빠를 저보다 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두는 거는 있었던 거 같아요…. 일을 따로 저만 많이 시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뭔가를 꼭 챙겨줘야 하거나, 특히 먹을 거 이런 거에서 조금 더….(심층면접 7)

혹은, 논리적으로는 누나이기 때문에 동생을 챙겨야 한다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언급을 찾아볼 수 있었다. 자신은 누나이기 때문에 동생 돌봄 역할에 대해 강요받았으나, 사실 여동생이었던 경우도 유사 경험을 한 주변의 사례를 통해 누나의 역할은 단순히 연장자의 역할만이 아닌 여성에게 주어지는 규범으로서의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한테서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엄마는 확실히 동생이고 아들이라서 그런지 집안일 분배에 대해서 저한테 조금 더 부담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다지 많이 못 느꼈는데. 사소한 것 있잖아요. 동생이니까 니가 더 배려해주고, 차려줘야지 그런 것들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심층면접 5)

아들이어서 기대를 받고 자란 경험도 언급되고 있었다. 장손으로의 기대와 스스로 그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언급과 동시에, 장손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면제받고 살아왔다고 회상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 장남이 저희 아버진데. 위는 첫째 고모, 둘째 고모 있지만 장남이다 보니까. 그 장남의 장손이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나 기대치는 좀 있으셨죠. 물론 그런 거를 굳이 충족은 안 많이 시켜드렸지만... (혜택도) 있죠. 어떻게 보면 첫째다보니까 전 부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안 시키시더라구요. (심층면접 9)

차별의 경험에 대한 질문과 연계되어 본인의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성별의 차이에 염두에 두는지를 질문했다. 성별에 따른 차별에 대한 관점이라기보다는, 남자아이 혹은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더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실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남자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책도 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만화영화라든지 동화책에 성역할이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고 특히 저희 남편, 아빠와는 다른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남자도 특히 제 남매보다 저희 남편은... 모르겠어요. 아들과 딸을 그렇게 길러서 그런 것 같진 않고, 어머니는 아들이든 딸이든 월 시키지 않으시고 본인이 다 하는데, 딸은 이상하게 공감능력이 있어서 엄마 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커왔더라고요...(심층면접 5)

생활 규범에 있어 아들과 딸의 차이는 아직은 나이에 따른 차이지만, 자라고 나서도 통금시간 같은 것에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성별에 대한 차이이기보다는, 저는 이제 나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나 남자아이가 중학생이 돼서, 약간 개한테는 조금 더 허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기는 해요. 지금 상황이 또 그 아이는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주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약간 애는 사춘기니까 터치하지 말자, 어느 정도 선에서는 허용해주자라는 부분이 있고. (딸들) 같은 경우는 저랑 매일 같이 생활하니까 지켜야할 규칙은 지키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도 불만이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약간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네. 딸들이. 왜 오빠에게는 허용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느냐, 약간 그런 부분. 성차별이기보다는 나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거 같아요.(심층면접 7)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다르긴 하고. 여자들은 아무래도 조심은 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큰애가 이제 5학년이다 보니까 밖에서 애들하고 놀고도 싶어 하고, 부모 없는 그늘에서.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범죄를 막을 순 없잖아요. 솔직히 마음먹고 하는 범죄는 막을 수 없는데, 조심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여자하고 남자 그런 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 해줄 때. 여자 여서라기 보다는, 예를 들면 여자들이 확실히 힘은 약하니까. 물론 여자가 더 센 사람도 있지만 그건 확률적으로 극히 적은 거고. 저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점은 얘기 해줘요. 힘으로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를 이길 수 없다는 식으로는 얘기 해줘요. 딸만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안전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심층면접 10)

또한, 자식이 딸이어서 미래에 가사노동을 전담할 것을 염려하여, 아무것도 안 시켰다는 경험도 있었다.

우리 딸은 여자잖아요. 여자는 시집가면 손에 맨날 물 만지고 살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는 아예 설거지 한 번 안 시키고 공주같이 키워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가 공주인 줄 알아.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후회스러워요. 설거지를 해주길 하나, 세탁기를 돌릴 줄을 아나.... (하다못해 자기가 먹은 과자 껍데기도) 안 버려요. 그러면 그냥 놔두고 보다가 결국엔 내 손을 치워요. 우리 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많이 하는 아이예요. 엄마 귀찮게 안하고 먹고 싶으면 계란 프라이 해서, 라면 끓여서 밥도 먹고, 챙겨먹고.... 근데 우리 딸은 안 챙겨주면 안 먹어요. 내가 후회를 해요. (심층면접 14)

다) 재산 분배

재산 분배의 문제는 각 가족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친정의 경우는 상속에 있어서 아들 우선을 경험하였으나, 시댁 가족의 경우의 균등한 분배를 보고 지역의 차이로 분석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일단은 아들 우선. 어릴 때부터 먹는 거 차별은 안하고, 커서 집안의 재산이나 상속 부분에서 아들이 우선이고 딸들은 뭐 좀 주긴 하지만 그래도 큰 덩어리는 아들을.... 왜냐면 예전에 친정아버랑 삼촌들이 재산 때문에 좀 친정아버가 힘들었어요. 장남이셨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그런 거를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고. 근데 재산이 퍼진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재산이 뭔가 이어질 수 없다고... (그런데) 시댁 쪽 형님네 같은 경우는 거기 친정이 제가 알기로 8남매인데... 8남매랑 친정엄마랑 균등하게 재산을 나눠가졌다고 해서 놀라웠어요. (심충면접 8)

일반적으로 자라면서 남녀 차별에 받은 적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재산 분배 계획에 있어서도 공평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본인의 재산을 미래에 분배하는 방식이나 혹은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데 있어서도 남녀의 차별보다는 부모의 돌봄 노동을 누가 맡는가 등의 구체적이고 정당한 논리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다.

똑같이 줘야죠. 그런데 그건 있을 거 같아요. 약간 아들딸, 저도 아들딸이 있지만 한 쪽이 약간 좀 더 못 미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다른 식의 방식으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심충면접 1)

그거는 아무래도 같이 살던 신랑한테 주고 간 거죠. 그리고 형제들도 바라지 않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만약에 너무나 많은 재산이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가 배분에 대한 욕심이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10년 정도 같이 살았고...(심충면접 12)

본인이 물려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부모님의 재산이니 부모님 뜻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부모를 가까이에서 봉양하는 자식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농사를 짓는 경우는 부모님이 농사지으시던 땅을 물려받았고, 그에 대해서 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는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또는 우리 부모님이 선택을 하신 일에 다르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제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 돈이기 때문에.(심층면접 10)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재산이 막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친정은 아예 없고 생각지도 않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논이 100마지기 인가 몇 마지가 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있는 게. 근데 어머니가 자꾸 몇 년 전에 저보고 가져가고, 니 앞으로 하라고 자꾸 하시는데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간다고 했어.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만약에,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경제적인 돈을 어떻게 할 거야. 누가. 그래서 어머니 앞으로 놔두시라고. 어머니가 진짜 누웠을 때는 어느 자식이 됐던 간에 한 자식은 부모를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려고 우리가 안 받았어요. 저희 계획은 지금 좀 그런 계획을...(심층면접 14)

부모님 주시면 하고. 농사는 제가 같이 하니까. 누나는 결혼했어요. 아직 형은 안했으니까 벌어서 형도 장가보내야 한다고...(질문 : 사모님 댁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딸이니까 제가 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처갓집도 제가 보니까 풍족한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려야지...(심층면접 13)

자식에 대한 차별을 한다고 인지하거나 혹은 그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우 친정의 재산에 대해서는 선을 긋거나 혹은 결혼한 누이는 결혼했으니까라고 언급하는 것은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명시적으로는 성별에 따른 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의

문제로, 오히려 자녀를 기르기보다는 스스로의 노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아니요. 자녀 때문에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자녀양육과 본인의 노후설계가 같이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시대에는 비용적으로 자녀 양육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도 하고. 제가 자녀가 없기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서 그 둘 중에 택해야 한다고 하면 자신의 노후설계를 더 확실히 하게 하는 게... 피차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스스로 그냥...(심층면접 4)

2) 가사노동 분배에 대한 인식과 실천

가) 가사노동 분배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에 분배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가족 내에서 부인만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구분이라고 하기는 좀 참 난감하네요. 저희 애기 아빠는 아예 집안일은 관여를 안 해요. 뭐가 됐든. 설거지가 됐든, 하물며 청소기를 돌린다고, 화장실 청소를 해준다고, 쓰레기를 가져다 버린다고. 여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도 안하고, 잔소리도 안하고, 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제 나 이거 해줘, 나 저거 해야 돼, 한번 해줘 그런 거는 다 해줘요. 근데 스스로 찾아서 하진 않는데...(힘드니까 청소기 밀어줘 이러면) 밀어줘요. 그 외 일은 안 해. 쓰레기가 차면 “가지고 나가” 하면 “응” 그런 건 해. 근데 자기가 보고 스스로 그런 건 없어요. 애기 아빠가. 사는 데는 지장은 없고.(심층면접 14)

남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일을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제로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면서, 자신의 사회생활은 거의 포기한 남성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야 할 상황이 되면 하는 거지, 따로 역할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책임이라는 게 할애하는 시간이 서로의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반반이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내는 일찍 퇴근하니까 저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긴데, 저는 일단 퇴근하면 거의 온전하게 가족과 함께 하니까. 금요일 퇴근하면 월요일 출근할 때까지 같이 있어요. 거의 매주…. 지금은 사회생활은 없어요. 친구 한 달에 한 번도 안 만날 때 있어요. 직장동료들이랑 같이 저녁에 자리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미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긴 했어요. 왜냐면 초·중·고·대학교 다 나오고, 직장인 돼서 10여년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아는 분 많은데, 많이 활동도 했고…. 그런데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그게 다 힘들어서, 지금은 포기상태예요..(심층면접 2)

그러나 많은 경우는 부인이 더 많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남편이 1년간 직장으로 다른 지역에 가 있어 주말부부를 하고 있어 너무 편하다는 고백도 들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식사 준비하는 게 더 간소해지고. 아무래도 남편이 있으면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데 그게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집안일 하는 건 똑같은데, 음식 만들고 이런 게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남편 있으면 국이라도 하나 더 끓여서 내야 되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게 많이 편해서 그런지 1년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계속 온다고 하고 있어요.(심층면접 11)

가사노동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가사노동을 한 명이 전담할 경우, 그 전담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된다고 언급하며, 가사노동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실천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저희는 이거를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각자 잘하는 거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자. 예를 들면 요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거의 90이라고 하면 남편은 10도 안 되는…. 거의 라면정도 끓여먹는 수준이에요. 그랬었는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만약에 제가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라도 살림이라는 집안일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다 같이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이런 카테고리 들을 만들어서 대략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서는 어떤 체크포인트를 두고 해야 되는 지들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남편이 더 잘하는 부분은 남편에게 좀 더 많이. 예를 들면, 빨래개기 이거는 남편이 훨씬 잘하거

든요. 신기하더라구요. 옷을 되게 각잡게 잘 접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하거든요. 이제 세탁기에 빨래거리를 분리해서 넣는 거는 제가 해요. 청소는 그때그때 각자하고, 재활용 쓰레기도 발생하는 대로 바로 바로. 세금·공과금은 제가 그냥. 돈 관리는 제가 다 해요.(심층면접 4)

다른 응답으로는 자신이 양육을 책임지고 있으니, 남편이 가사노동을 자신보다 많은 부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이 면접 응답자의 경우, 그런 희망이 있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돌봄노동과 가사일을 도와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가사노동) 음, 이거는 동등하게 말고 저쪽에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양육은 제가 더 부담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주말부부예요. 저를 이해하신다고 하면, 제가 어쨌든 평일에는 케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주말에 신랑이 와서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는 평일에는 집안일을 전혀 안하거든요. 반찬 정말 야기 것만 하고, 심지어 사 먹이고 해서. 저의 피로도가,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그 이상의 뭔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정확히 할 일만하고 직장 나와서 직장일 하니까. 나와서도 할 일만 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주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주말에 집안일이 몰려있어서 제가 아이를 볼 때는 신랑이 하거나, 신랑이 아기를 보고 있을 때는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집안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심층면접 3)

그러나 실제로는 부인에게 많이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의식과 실천에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질문하니 부인과 본인이 맞벌이기는 하지만 일의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음…. 사실 저희 안사람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은연중에 그 느낌이 더 큰 거 같아요. ‘일하는 나의 빈도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조금은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제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안 사람은 공무원이거든요. 매 정시에 퇴근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더 많으니까.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그런 보호 상에서는 좀 남자로서 역할이…. 사실은 가정과 함께 활동하는 것 보다는 뭔가를 벌어들 주고, 경제적인 책임들이 크다보니까 그것에 더 가깝

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특성상 일이 야근도 많이 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 상에는 당연히 좀 '안사람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심층면접 1)

생각은... 생각은 무조건 반반인데, 실천은 다르더라고요. 남녀 차이도 있고 업무강도가 누가 더 세고, 누가 근무시간이 더 길고, 누가 더 회사에 많은 시간을 매이게 되느냐 그거 차이도 무시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돈 벌어오는 것 차이도 생기게 되고... (심층면접 5)

나) 가사노동 분배 의식과 실태의 간극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생각은 반반으로 나누어서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인이 많이 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리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동네에서 아무래도 저도 없다가, 딸들 엄마들 만나고 하면서부터 조금 생각이 틀려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상상을 안했었죠. 그런 것 자체를. 그냥 항상 남편 말 들어야 되고, 애들한테 잘 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이런 게 제 주 업무라고 생각했었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왜 반기를 드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신혼 초 지나고, 애 둘 생기고 나서는 많이...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이제까지 잘해왔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니가 아줌마들 만나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다 이거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내 내면에서 말을 못 했던 거를 한 번 남편한테 이야기한 건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심층면접 11)

특히 구체적으로 음식준비, 청소, 재활용, 공과금 납부, 가족 기념일 챙기기 등의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누가 하는지 물어보면서 깨닫는 경우도 있었다.

제가요. 얘기하다보니까 제가 다 하고 있네요... 갑자기 화가 나네요. (웃음)
(심층면접 6)

남편의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가사노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하고 아기 없을 때까지는 설거지를 5번 해봤나? 5번도 안 해봤을 걸요. 근데 오고 나서는 제가 저녁마다 하긴 하는데. 그리고 와이프가…. 매일 농사일 하고 하면 8시, 늦으면 10시도 왔었어요. 그니까 안시키더라고요. 고생한다고. 이제는 애기 있으니까 좀 하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심층면접 13)

남성 응답자들은 스스로 분리수거를 맡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비해, 여성 응답자는 분리수거에서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그 전부를 하는 것인 듯 착각한다고 언급해,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재활용쓰레기) 그렇죠, 이거는 해야죠…. 분리까지는 안 해요. 근데 버릴 때 그거는 분리되어 있는 거를 버리는 거죠. 분리수거함을 와이프가 만들어 놔요. 거기에 버리게끔. 요구르트를 먹었으면 씻고 거기에 버리고, 나중에 쌓이면 버리고. (심층면접 9)

저는 솔직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거의 제가 다 하는 편이에요. 남편은 분리수거 정도? 가져다 버리기만. 제가 다 해놓으면 그대로 가지고 가서 버리고 오기만 하는 것. (심층면접 11)

가족 내 다른 성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함에 있어, 실제 얼마나 아내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자신이 개입해야 하는 일로 남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10정도까지의 완벽한 걸 원한다 예를 들어서 우유를 하나 먹었어요. 애가 컴퓨터를 하면서 먹었어요. 그럼 저는 그 우유갑을 뒷배란 다 분리수거하는 것까지를 원하는데, 애가 하는 거는 안치우거나 아니면 식탁에 까지 놔요. 밥을 먹고 나는 싱크대에 놓고 물을 넣어서 불려놔야 되는데 애가 하는 거는 일단 싱크대 가져다 놓는 것 까지. 아니면 식탁에 그대로 있거나. 그 정도죠. 제가 원하는 1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편도 비슷해요. (심층면접 8)

또한 가사노동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지만, 큰 명절이나 가족 구성원이 많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장손으로 태어나서 집안의 명절이나 제사에서 전혀 하지 않던 남성이 결혼하고 나서 변화하는 경험의 고백이나, 시댁에서 노동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여성에 역할 기대가 여전히 확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해서... 예전에는 진짜 안 부쳤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다보니까 요새는 제가 전을 부치고 있더라구요... 사실 이제 와이프가 가면 내가 일을 다 할 거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가기 전에 약속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가기 전에 적어도 이거는 해줘라 이런 것들. 그래서 하죠.(심충면접 9)

확실히 출산하고 나서 육아에 대한 걸로. 엄마도 엄마가 처음부터 엄마로 태어난 게 아니고 아빠도 그런 것처럼, 서로 처음인데 엄마의 육아가 비중이 확실히 높고. 또 저는 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댁과의 빈번한 만남으로 인하여 이 피로가 가중되면서 오는... 그러니까 그제저는 조금 늘어져 있고도 싶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부지런하시다보니까 어머니가 쉬시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 게 저한테 뭘 해라라고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끊임없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뭐랄까 그런 일을 여자만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나 남편은 쉬고 있고. 아기 이유식 먹어야 될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지 아들은 안 부르시거든요. 그런 것들...(심충면접 5)

실제 전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남편의 노동강도가 높다보니 아이 돌봄을 나눌 수 없어, 전업을 선택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애는 약간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은연중에. 그러다가 둘째까지는 계획을 했었고, 둘째 낳고 조금 크고 어린이집 가면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싶었는데 셋째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셋이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잠깐 알바도 해봤는데 셋째가 어린이집 다니면서부터 애들 세 살 때까지는 집에 있었거든요. 좀 늦어졌는데 알바해보니까 이거는 엄마하고 애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빠가 아무래도 정

시 출근, 정시 퇴근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애들하고 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층면접 10)

전업으로 있다보니, 실제 가사노동을 분담하고자 해도, 남편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언급도 볼 수 있었다.

항상. 항상 차려진 밥을 먹고, 항상 치워져있는 집에 와서 있고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한 번씩 요즘에는 남편도 하잖아요. 집안일을 할 때 있는데, 맘에 안 드는데 그래도 시키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냐고, 니가 잘하는데... 청소기라도 밀고 있어야 그러면 “집 깨끗한데 왜 밀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기싫으니까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켰어야 되는데... (심층면접 11)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딸들에게 맞벌이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여자도 결혼해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도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설령 같이 산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한쪽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도 이왕이면 전문 직업을 구하면 좋고, 결혼을 하더라도 니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애들한테 얘기해요. 맞벌이 하는 거는 좋은 건데, 집에 와서도 맞벌이가 안 되니까. (심층면접 12)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일의 대부분이 기계로 진행되지만, 실제로 사람 손이 필요한 부분은 여성들이 많이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일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농사일 같은 경우는 기계로 하는 일은 거의 신랑이 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기계를 못 다루니까. 실은 요즘 농사일이 다 기계예요. 밭 갈고 비닐 씌우고 심는 것도 다 기계로 해요. 밭고랑 하는... 대부분 시골은 여자 분들이 많이 해요. 콩 심는 것도 대부분 여자. 저희가 고추 농사를 짓진 않지만 고추 따는 것

도 여자. 기계로 하지 않는 거는 크게 삽질을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고는 거의 제가. 기계가 작업이 들어간 다음에 심을 때 사람 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때 잠깐 하고. 그다음 계속 돌보고….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수확할 때 필요하지 그 외에는 여자 분들이 필요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기계작업 빼고는…. 저희 집은 그래요. 농담 삼아 우리가 아는 분한테 우리 신랑은 조선 왕조 500년에 나오는 남자라고, 조선시대에 있는 남자라고 말할 정도로….(심충면접 12)

3) 가족 내 결정권

가) 자녀교육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엄마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여졌다. 학원 등을 결정하고, 보내는데 있어 우선 정보의 흐름이 엄마 쪽으로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심충면접 중 3명 면접 대상자가 주말부부를 하고 있었는데, 3명 모두 남편이 떠나있고, 아이와 같이 지내는 것은 부인으로 자녀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원을 어디 다니거나 제가 보내거나 이런 거는 거의 전적으로 제가 하죠. 신랑이 타지에 있기도 하고.(심충면접 8)

“월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근데 저희가 둘이 맞는 게 뭐냐면 학원을 어릴 때부터 보내는 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체능은 괜찮은데…. 근데 지금은 애가 크니까 지금은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혼자 해보겠다고 해서…. 그런 것부터 얘기는 해요. 제가 먼저 정보를 알게 되니까 제가 대체로 먼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심충면접 10)

내가 다 하죠. 애기 아빠는 안 해요…. 그냥 옆에서 지켜봐요. 내가 뭐라고 잔소리해도 그냥 이려고 있어요. “잔소리 왜 하니”, “애 왜 힘들게 하니”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하거나 말거나 자기 할 일 만해요. 그게 좋아요.(심충면접 14)

자녀 교육 문제는 사실 대화의 중요 주제로 언급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상호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의 제가 많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편이고. 의견을 남편한테 물어보죠. 애한테 뭘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얘기를 해서, 제가 학원을 알아보고 애한테 맞는 거 같다고 얘기한 다음에 결정을 하죠…. 근데 결국엔 제가 이겨요. 그 거는. 요즘에는 학원을 안 보낼 수 없잖아요. 남편 말로는 중학교 가서 보내라고 맨날 항상 이랬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놀아야 된다고. 우리 때도 놀았다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놀면 아무래도 뒤떨어지다보니까…. 자기도 이제 조금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 듣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내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뭐 학원을 벌써 보내 이런 식이었는데. (심충면 접 11)

나) 주택구입, 투자나 재산관리

주택구입이나 투자 등의 큰 비용이 드는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같이 의논을 한다는 대답이 많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었고, 부인이 원하는 집이나 차를 구매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신차 구입이라고 하면 원하는 차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고, 개별소비세 라든지 현금으로 필요한 것들은 얼마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써놓으면 남편이 확인을 한번 해보고, 어떤 것들이 좋을지. 주말에 같이 시승하러 가본다던가….(심충면접 4)

주택 구입은 저희 안사람이 가자고 해서 지른 거고….(자동차는) 그것도 그냥 안사람이 사고 싶다고 해서 제가 계약해주는 편이고…. 뭔가 비용적인 경제 부분 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해결해주는 편이거든요. 그 대신에 가사나 나머지 일들은 조금 안사람이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해요. (심충면접 1)

농촌의 경우, 실제 농기구나 땅의 구입 등의 금액이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남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항상 애들 아빠가 저한테 먼저 이야기해요. “기계 사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그걸 당신이 왜 사야 돼?” 그러면 “이만저만 하니까, 힘도 들고 커서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해. 당신이 몸이 덜 힘들어야 되지. 일 하는 사람이 쉬워야 되니까 하나 사”. 항상 아빠 하는 걸 지지하죠. 무조건. (심층면접 14)

다) 생활비 지출

생활비 지출에 있어서는 생활비 관리 애플리케이션이나 보험 가족 공유기능 등을 통해 서로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알고 있다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통장은) 합쳤는데, 어플로 둘 수입, 지출 하는거 실시간으로 공유해요... (생활비 지출은) 다 기록해요. 모든 걸 다 기록해요, 어플로.(심층면접 2)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동 통장으로 합치지 않고, 분야를 나누어서 계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공동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일정 부분은 남편 계좌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제 계좌에서 나가는데, 거의 보험은 제계좌에서 나가게 되어 있고. 생활비 같은 경우는 거의 남편이 하고, 저도 가끔 따로 하기는 하고.(심층면접 7)

기숙사비는 아빠가 내지만 아이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는 제가 담당해요. 제가 제 거 따로. 저 같은 경우도 시골에서 일을 하잖아요. 부수적인 수입으로... 남편이 100% 한다,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시골도 그래요. 생활비는 각자. 저희집 같은 경우는 각자. 제가 낼 수 있는 부분은 내고, 남편이 낼 수 있는 부분은 내고. (심층면접 12)

4) 배우자와의 갈등

가) 배우자와의 갈등 원인

배우자와의 갈등은 성격차이, 생활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지만, 육아가 시작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확실히 출산하고 나서 육아에 대한 걸로. 엄마도 엄마가 처음부터 엄마로 태어난 게 아니고 아빠도 그런 것처럼, 서로 처음인데 엄마의 육아가 비중이 확실히 높고. 또 저는 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댁과의 빈번한 만남으로 인하여 이 피로가 가중되면서 오는.... 그러니까 그제저는 조금 늘어져 있고도 싶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부지런하시다보니까 어머니가 쉬시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 게 저한테 뭘 해라라고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끊임없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뭐랄까 그런 일을 여자만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나 남편은 쉬고 있고. 아기 이유식 먹어야 될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지 아들은 안 부르시거든요. 그런 것들....(심층면접 5)

부부 갈등의 원인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관계의 문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살아온 방식과 가족 관계의 차이는 결혼 초기에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작동하기도 했던 것이다.

초기에는 시댁....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초기에는. 남자는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하면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든 뭐든 자기의 위치를 두벽두벽 걸어가는 되는데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전문직을 갖고 애를 한 명을 낳거나 아예 안 낳거나 하면 다른 삶을 살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크게 싸운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시댁 문제로는 조금 다뤘던 것 같아요. (심층면접 10)

시댁은 30~40분 가야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신혼 초에 더 심했거든요. 그제. 남편 회사 끝나고 6시에 오면 밥도 안 먹고 가는 거예요. 2박 3일을. 일요일에 저녁밥 먹고 왔거든요. 지금은 애가 하나 되고, 둘

되고 하니까 가는 횟수도 좀 줄어 들고 자고 올 거 안자고 올 수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남편하고 있을 때 다 남편한테 맞춰주는 스타일이었는데 (심층면접 11)

이미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자라온 부모님의 양육방식과 여기의 양육방식이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이 자녀인 남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랑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40 평생 부모님이 말 그대로 끼고 산거죠. 대학도 어쨌든 (집 근처)에서 다니고 했으니까. 크게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가 그늘이 되어줄 수 있지만 자녀들을 크게 키우고 싶으면 그 그늘을 없애줘야 된대요. 저는 매우 독립적인 삶을 산 사람이여 가지고, 그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같이 사는 상황 자체가 normal하진 않다고 말하면 의아해 해요. 그게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그 핵심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심층면접 4)

가족의 갈등에서 부부간의 문제가 아닌, 부모와의 관계가 더 큰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아들이 귀촌하여,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와의 농사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큰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안 맞아요. 옛날 분 마인드가 있어서 젊은 애들이나 저하고는 안 맞죠…. 농사일이 힘들고 이런 거는 다 힘드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안 맞죠. 아버지는 어렵게 해서 일궈온 거고. 저는 이제 들어와서 다른 것 보면 기계화되고 하니까 기계도 투자할 건 투자해야하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요. 몸으로 고생해서 하면 되지, 기계가 얼마데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훨씬 몸이 편한데, 한편으론 기계 값이 1억이 넘어가니까…. 쉽게 못 바꾸죠. 저도 바꾸고 싶어도.(심층면접 13)

부부 사이의 갈등은 실제로 해결이 된다고보다는 서로에 대해 잘 알면서 더 이상 그 문제로 트러블을 만들지 않는 회피의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기도 했다.

요즘에는 없는 기간이네요. 남편과의 갈등이 요즘에는 조금…. 어느 정도 남편도 약간 한 발짝 물러선 부분이 있고, 저도 약간 한 발짝 물러선 부분이 있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항상 같은 문제로 같은 갈등이 생기는 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돼서,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무마가 돼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일 때문에 다음에 또 일어나서…. 저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는데 남편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싫어해서 가능하면 이제 그냥. 저는 완벽하게 마음이 해결된 상태에서 화해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해결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심층면접 7)

포기를 한 거죠. 저 사람은 안하는 구나. 저도 이제 내일 모레가 50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갱년기 증상 비슷하게 올라오니까 가끔은 내가 왜 이려고 살지 이런 생각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기도 하는 사람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골은 대부분 아직은 저희가 가장 젊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남자 어른들이 밥을 해주거나, 특별하게 어른들도 그러시지 않으시는 분들이고. 대부분 여자들이 다 하죠. 시골 어른 여자분들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골일이 굉장히 맞벌이거든요. (심층면접 12)

결혼 초기에는 남편의 늦은 귀가나 음주 등의 문제가 갈등의 소재가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남편은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여성들은 오히려 활발한 사회생활이 나타나면서 긴장감이 나타남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때는 여기가 신랑 고향이니까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은 결혼 안한 친구들도 있고, 젊고 체력이 좋으니까 늦게 귀가하고, 그래서…. 그때 부부싸움하고 그런 거를 아들이 기억해요. 아직도. 그때 5살, 6살 이 때 엄마아빠 싸우고 자기 할머니집 가서 자고 오고. 또 어린이날 싸워가지고, 애기 아빠가 애기 데리고 갔는데 어린이날 그런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할아버지랑 싸웠대요. 그거를 아직도 애가 기억해요…. 오히려 초반 그런 건 있는데, 나이 먹고는 이제 나가 놀라고 해도 힘들어가지고 10시, 11시 되면 귀가, 너무 빨리 귀가하고. 안 나가려고 하니까 남자들이. 주위에 있는 와이프들이 애기 들어보면 자주 집에만 있으려고 그런다. 걱정이다. 퇴직하면 어떻게 하나. 자기는 등산도 다니고, 혼자하고 이런걸 좋아하는데 걱정하는 와이프들도 있고 그래요. “그 선

배 왜 연락 안해? 아는 형한테 연락해라” 그러죠. 남자들은 사회생활이 주는데
여자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심충면접 8)

나) 이혼 고려 경험

갈등이 극대화되었을 때 이혼을 고려했지만 그 문제를 다스리는 방안을
찾아가는데,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방안이 언급되기도 했다.

저는 유튜브에서 법륜스님을 좀 듣는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서 ‘아, 이럴 수
도 있겠구나’. 법륜스님 듣다가 또 다른 분 것도 들었다가, 김창완 교수님 것도
들었다가. 그런 강좌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다
가...(심충면접 7)

5) 가족 간 대화와 취미생활 공유

가족 간의 대화에 대해 다양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 자녀에 관한 이
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한다는 경우나 대화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응답이
있었던 반면, 공통 일기를 공유한다는 경험도 볼 수 있었다.

제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는 뭔가를 메모하면서
정리해가지고... 저희의 생각 나눔 공유노트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뭔가 생각나
는 것들은 그때그때 메모하고,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
이... 왜 그러냐면 저도 신기했었는데, 언젠가 기사에 부부간의 일상적인 대화
가 15분 이상을 넘여가지 못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생활 속의 대화 정도
만 하는 거지 깊이 있는 삶의 고찰, 이런 대화는 극히 적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 가족으로서 단기, 중장기적인 목표와 발전방향,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수시로 체크하거든요. 우리의 결혼생활의 만족도
가 어떤지, 오늘은 행복한지, 이런 것들. 제가 초반에는 되게 자주 물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구요. 그걸 자주 물어보는 게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체크하는건지에 대해서... 당황하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엔 안 물어보는데 노트
에 같이 상의하죠. 이제 ‘생각 틀’이라고 해가지고 선택의 조건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1안, 2안, 3안들을 써보면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상호간
에. (심충면접 4)

저희가 주로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은 저녁 먹고…. 남편한테도 그 이야기 했는데, 전주천 걷기를 한 시간 정도 하거든요. 건강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 게 단순히 건강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일상을 공유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심층면접 4)

6) 코로나19 이후의 경험

가)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증가 경험

심층면접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는 사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사람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포츠교육을 제공하는 직업 특성상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계속 일하고 있고, 많이 모이는 곳은 안 되다보니까 2월 후반 중반부터 3~4월은 풀로 쉬었거든요. 여기도 거의 한 달째, 2차로 와서 다시 또 쉬게 됐고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이걸로 생활을 하는 부분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남편도 아무래도 (음식점을) 하고 했는데, 그게 많이 안 돼서 점점 힘들어지긴 했지만 3월에 폐업을 해버렸죠. 마이너스 안 되게….(심층면접 6)

코로나로 인한 가사노동의 증가는 실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나타나곤 했다. 인원수가 작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체 등교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혜택이 있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 돌봄이 가중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부인이 많이 느끼고 있었다.

큰 아이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있는데, 한 1~2주 기숙사에 있고, 1주는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는데. 다 출근하는 상황이니까 아이를 관리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인원수가 적은 시골이라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서 계속 학교를 갔어요, 온라인 수업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저희 둘 다 케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 (심층면접 7)

아무래도 너무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주부들은 밥이 제일 그렇거든요. 하루 세끼를 챙겨야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급식을 안 먹고 오니까. 일주일에 한번 가는 애 있고, 일주일에 두 번가는 애 있고. 거의 일주일 내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교차로 가니까…. 그러니까 매일 매일 차려야 되는 건 똑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2020년도에는 그냥 밥만 하다가 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밥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 있으면 아침에 다 간단히 먹여서 보내고, 점심은 남편도 그렇고 다 먹고 오고 그랬었는데. 저녁만 그냥 챙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끼를 챙겨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층면접 11)

힘들죠. 솔직히 아이들 학교 지금 6월달까진가 안 갔을 때는 생활비가 배 들어요. 삼시 세끼 챙겨놔야 되고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식비도 엄청 많이 늘었고요. 조금 힘들었어요.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큰 아이니까 알아서 먹는다고 해도 그 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심층면접 12)

아이들의 식사문제에 더해, 생활에 대한 관리가 온전히 엄마의 몫으로 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부분이 좀 커요. 애가 이걸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케어가 안 되잖아요. (저는) 계속 늦게 들어가니까…. 애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온라인 수업이 처음 올해 시행되니까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50분 수업인데 보통 대면수업을 하면 20분, 30분하면 다시 자는 거예요. “왜 자냐” 그랬더니 끝났다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해가 안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학교 가는 것도 불규칙하고. (심층면접 8)

너무 힘들었죠.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일은 해야되는데…. 아침, 저녁에 준비 싹 해놓고 가요. 그러면 낮에 되면 밥 먹어라…. 그리고 온라인 수업 했을 때. 이 녀석들이 잠을 자서 온라인 수업을 못 들은 거야. 그래서 10시가 됐는데 선생님이 문자가 왔네. 온라인 수업 출강을 안 했대. 근데 일하다 말고 어떻게 전화를 받아. 안 받지. 하다하다 못해 친구한테 전화했죠. “혹시 애기들 집에 있냐? 있으면 미안한데 우리 집 가서 애기들 좀 깨워줘라”. 친구한테 해놓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는데 우리 애기가 전화를 받았어. 전화를 받으니까 현관문 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하고 통화 먼저하고 벨이 울리고…. 그때 한번. 그러고 나서는 없었어.(심충면접 14)

나) 가족 관계 만족도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녀와의 갈등이 강화되는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는 케어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 때는 잔소리가 조금 많아져서, 아무래도 큰 애들이라 약간 그런 있었던 것 같아요.(심충면접 7)

아이와의 관계 코로나 이후에 안 좋아졌죠. 그나마 제가 집에 많이 없으니까 애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제 주위나 친척 오빠네 얘기 들어보면, 좁은 공간에 아이 둘이랑 셋이서 있고 그러면 서로 감정이 부딪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집에 있을 때 애랑 부딪쳤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이게 다툼이 생기는 것 같아요.(심충면접 8)

7) 한국 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가) 한국사회의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의 성평등, 특히 직장 경험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보여지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언급을 볼 수 있었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평등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불합리함이 좀 들기는 하죠…. 그렇죠.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근태에 관련돼 가지고는 많이 좋아졌죠. 육아휴직도 생기고, 보육휴가도 생기고, 이번에 모성보호시간도 쓸 수 있게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채용이나 그런 거는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도 하고 하지만…. 일단 채용에서 장벽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에서 승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잘…. (심충면접 2)

또한, 세대에 따라서 인식이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스스로를 조금 나이든 세대라고 생각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미덕과의 차이를 언급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사람이라 민감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우리 때는 그런 거를 나의 어떤 가정적인 이유나 아이 때문에 직장 생활에 영향이 가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프로답지 못 하다라는 생각이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전 직장에서) “아이도 있으니까 9시 반까지 출근해”라고 했을 때 저는 괜찮다고.... 아이 얼른 짐 싸서 먹이고 어린이집 맡기고 출근하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고, 당연한 권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저희 나이 때나 저보다 좀 나이 아래 연배들도 그런 생각이 더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핑계 댄다고.(심층면접 8)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경제력이 비슷하고, 남자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등한 경험으로 가족 내의 불평등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큰 사회이고, 그 가치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회고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저희 부모님은 같은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경제가 똑같았던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한테 뭐를 주실 때도 오빠가 있는데 똑같이 주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랄 때는 제가 차별받고 있다고 못 느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물론 저희 엄마가 집안일을 하셨을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고 직장에 들어와서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여자라서 아기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부담이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심층면접 3)

가족 내에서 경험한 차별에 대해서, 시가 식구들과의 만남에서 여성들만 일을 하는 경험을 하고 당혹감을 느끼거나, 혹은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집 안에 남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는 태도가 다른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다못해 특히 친정 쪽은 명절 때 친척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서로 모이거나 이런 것도 없고 집안일도 저희 엄마가 웬만하면 최소의 선에서 하자는 주의기 때문에. 전형적인 엄마로서 희생하는 엄마도 아니셨는데. 결혼을 하니까 그걸 정말 여실히 느끼고, 항상 느끼는 게 ‘왜 여자들만 저렇게 집안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고…. 사회에 나가서도 확실히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여자들에게 있는 유리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구요. 사소한 것 만해도 저희 남편이 체구가 되게 작아요. 저만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는 게 분명한 것 같긴 한데, 집에 하다 못해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보수를 하러 와도 남편이 있을 때랑 저만 있을 때랑은 다르거든요. 덩치가 큰 남자가 아닌데도 남자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심층면접 5)

가족 문화에 대한 분석에서 다문화 가족을 방문·상담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응답자의 관찰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에서의 가족 내 성평등의 문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이 같이 있는데, 저는 다 통합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한번 방문한 다문화가정이 있기는 했는데, 한 다섯 가정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 가정 정도는 평등하다기보다는 다문화 분들이 그래도 만족도가 70~80%정도 되셨는데, 두 가정 정도는 남편이 조금 평등하기보다는 굉장하...(가부장적이고 권위를 내세우는?)....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골 쪽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심층면접 7)

농촌지역 사회의 여성 발언권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북지역 농촌의 노인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언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적어,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 문화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를 할 때 보면 나타나요. 이게 오래된 여자 어른들의 습성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마을에서도 좀 부딪힘이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 분들 의견을 많

이 따라가더라고요. 여자들이 나와서 회의에서 얘기한다는 게 아직 시골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자 이장님도 있긴 있는데…. 가만히 저도 회의 참석을 안 했어요. 신랑이 나가기 때문에. 요새 하도 동네가 시끄러워서 나가봤더니 여자 어른들은 얘기를 안 해요…. 네.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진짜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 큰 일들은 남자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여자 분들도 똑똑하신 어른들도 많고 하는데, 왜 남자 분들 의견만…. 그리고 조금 이런 말하기 그런데. 여자들이 나서면 조금 기가 썩다, 드세다 아직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골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심층면접 12)

나) 성평등 교육이나 사업 경험

성평등 교육이나 사업에 대한 경험 중 가장 많은 것은 성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법정교육의 경험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한다는 규제는 오히려 형식적인 참석만을 이끌어내는 문제점이 있기도 했고, 특히 강사의 역량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기도 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등은) 법정교육이니까 하는거죠…. 그런데 강사분에 따라서는 시간 남짓 되는데…. 약간 강사분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심층면접 2)

회사 내의 다른 사람들의 육아시간 사용 등에 대한 불만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진행된다면 그런 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점에서 많은 지지를 볼 수 있었다.

일을 태만한다든가? 자기 권리만 찾고 할 일을 안 한다? 네.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일을 핑크 내면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육아시간 써가지고 2시간 일찍 퇴근시켜주는 것보다는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단순히 근무시간 줄여줬다고 끝날게 아니라, 업무량도…. 그런데 다른 동료들도 연관된 거라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업무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시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침 등원은 엄마가 하고 오후에는 하원시키고 아이들 케어하려고 썼는데, 업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시더라고요. 9시 출근이 아니라 8시, 7시 출

근해가지고 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 이제 육아하고 있으니까 양해해달라, 양해해줄게 그것보다는….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쓰면서 조금씩 보완해나가야죠. 그리고 하면서 다 지나가신 분도 있지만 앞으로 겪게 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서 앞으로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심층면접 2)

8) 가족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가족 성평등 확대를 위한 사업에 대한 의견으로 부부교육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혼 전에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는 것과 같이 혼인신고를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국가가 결혼은 장려하고, 이혼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질 것을 장려하는 태도에서는 실행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부부관계를 맺는데 있어 조금 더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아바학교인가 있잖아요. 몇 주짜리 교육이 있는데…. 1회성 강연 말고 적어도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그 교육을 1달 이상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이 낳기 전에는 부모교육도 미리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완주 같은 경우에는 완주에서 결혼하면 신혼부부에게 얼마 주고 일 년 뒤에 얼마 주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조건 없이 뭔가 행위만 하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자기 여건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아바가 되기 위한 조건, 아내가 되기 위한 조건들. 이게 재산이나 그런 자격조건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 만들어서 서로를 좀 알고 아이에 대해서 알고 했으면, 싸우긴 싸우지만 그래도 덜 싸우지 않을까. (심층면접 2)

이혼을 할 때 이혼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 부부들한테도 혼인신고를 해서 접수될 때까지의 어떤 교육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결혼도 신혼 때와 출산, 육아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 집안일에 대한 것들, 성교육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교육기관이 형식적으로라도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심층면접 5)

부부교육을 통해서, 비록 듣기 힘들지라도 상황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왜냐면 우리가 다큐를 보거나 아이에 대한 교육을 TV에서 하거나 보러 갈 때 엄마들이 갈 시간들이 더 많고 시간을 내더라도 엄마들은 많이 내는데, 아빠들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을 이해하는데 서로 들으면, 물론 남편 입장에서 듣기 안 좋은 소리도 있고 여자 입장에서 듣기 안 좋은 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약간 그거를 같이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심층면접 10)

또한 교육을 통해 서로를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제 마음을 어느 정도 표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딱히 얘기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니가 뭘...’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닌데, 왜 남편은 이런 걸 가볍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까 이런 게 있어서. 부부의 대화가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서로 심도 깊게 할 수 있는 대화는 많이 안했던 것 같아요. 사이는 좋고 애들 얘기, 부모님 얘기는 다 하면서 실상 중요한 얘기는 거의 안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얘기로. 남편이 저를 아예 배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할 때마다 나도 어느 정도는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본인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차단하더라고요. 네. 많이 서운했어요. 그런 데에서는 제 의견을 안 들어주려고 하니까. 같이 결정해서 하면 좋는데 그런 걸 안하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심층면접 11)

가족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가족상담도 많이 있기는 한데, 약간 그런 부분도... 무료 가족상담도 많이 있기는 한데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싫은 것 같기도 하고, 나하고 이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왠지 전달될 것 같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보

면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창피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남편하고 부부문제 있을 때 저도 그런 부분의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저도 하고 싶은 한데 약간 그런 부분... 이걸 주저리주저리 다 이야기해야 한다는 부분도 살짝...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상담센터가서 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가지고...TV에서 보면 따로 따로 남편을 만나고 와이프를 만나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듣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듣고 해서 비디오를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말한 거였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보고 알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서 상담할 용의가 있는데 이걸 남편에게 권유했을 때 남편이 내가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가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남편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들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해결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나.(심층면접 7)

사실 관계에 문제가 없어서, 딱히 부부교육 같은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남편 대상 음식교육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남편의 응답도 있었다.

일만 안 바쁘면 들어도 괜찮을 것 가진 한데. 근데 저희 부부는 딱히 문제가 없어서... (음식교육) 아니요. 별로. 와이프가 잘해요 음식도. 부모님이 식당해 가지고. 잘하더라고요. 만드는 거는. 결혼하고 만족했어요. 저는(심층면접 13)

성평등에 대한 교육은 부부대상만이 아닌 초중고생들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볼 수 있었다. 어른들이 아닌 어린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반이라는 지적이었다.

평등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다 큰 사람들한테 평등, 평등 얘기해봤자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박힌 사람들이라 쉽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교육에서부터 바뀌어야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실은 남자아이를 키울 때 평등을 키워야 했는데, 어머니로서. 저는 남자아이들을 안 키워봐서 그런 게...(심층면접 12)

육아휴직기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부터 법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런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주장이었다.

저희 직장은 육아휴직이 1년인데, 저는 3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남녀평등고용법이 바뀌니까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무조건 해야 하거든요. 공공기관부터 3년 하면 되거든요. 물론 1인 기업도 있고, 소수 기업도 있고 그런 소수 기업들은 3년을 법적으로 하면 고용주가 부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기업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3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공공기관은 3년…. 가능한 대기업부터, 공공기관부터 (심층면접 3)

계약직의 경우는 같은 근무지에 있으면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엄마가 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닌가 자책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실제 제도의 도입과 혜택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약직에도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하던데…. 근데 사실 저는 출산휴가 보장받은 게 다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유연근무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쓰려면 월급이 삭감돼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는 그게 많이 아쉽고, 그런 직장을 제가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도 많이 했어요. 내가 엄마로서 조건을 잘 만들어 놓지 못하고 아기를 이 세상에 내보낸 것에 대한. 남편도 오히려 그 회사 내에서 여자 직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고 유연근무를 쓸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업무 부담이 남아있는 남자 직원들한테 오면서 육아 휴직을 한명이 가면 남편의 업무강도는 더 늘어나고…. 대체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가중이 되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결혼 안하고 애기 없는 직원들한테 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서로 갈등 조장이 되기도 하고…. (심층면접 5)

다. 심층면접 결과

가족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던 경향성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혹은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족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누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 부양, 특히 남편의 경우는 본인의 부모를 언급하고, 부인의 경우는 남편의 책임감을 통해 시부모에 대한 압력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성차별 경험에 대한 논의는 차별은 없었다는 서술과는 달리 가족 구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들 선호의 경향성은 어떤 방식의 실천을 차별로 규정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가사노동의 분배에 대한 인식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인이 가사노동을 많이 책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에서도 부인의 노동 강도가 낮다는 언급을 많이 들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일·생활 양립의 압력 속에서 노동 강도가 낮은 일을 선택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에게는 가계부양에 있어 주변부적인 위치를 부여하면서 이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의 많은 영역에서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 구분되어 있어 농사일의 많은 부분을 맡고 있음에도 가사노동도 전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언급을 들을 수 있었다.

배우자와의 갈등은 육아가 시작되면서 확대되는 경험을 들을 수 있었고, 오히려 40대로 접어들면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기보다는 갈등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일정정도는 포기하면서, 서로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의 확대 경험은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의 식사가 온전히 엄마의 몫으로 되어, 급격한 가사노동의 증가를 경험한 경우를 볼 수 있었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계의 악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한국사회, 직장, 가족의 성평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고, 특히 농촌 사회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권의 남성 어른들의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가족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상에 맞는 성평등 교육이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특히 결혼하기 전에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결혼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혼인 숫자의 증대가 아닌 결혼 후의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을 듣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공식적으로 부부 사이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상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좀 더 자연스러운 가족 활동 속에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5

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
1.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 확산방안
 2. 가족 정책의 방향성

제 5 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 확산방안

전라북도 가족 내 성평등은 많은 부분 개선되어, 가족 내 대화도 많아지고, 성평등 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돌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여, 가족 내 성평등 문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사노동과 돌봄 부담의 증가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특히 일자리 선택에 있어 제약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가족 내 성평등 문화의 변화, 고용과 기업 등 사회 환경 영역의 변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가. 가족 내 성평등 교육사업 확대

〈성평등 관련 교육자 확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성평등 교육이 법정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반드시 들어야하는 긍정적인 조건 하에서, 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종교기관이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경험했던 성평등 관련 교육에서 보수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부부교육 등의 사례는 실제 교육의 수적인 확대의 문제만이 아닌, 성인지를 가지고 가족 관계의 문제를 성평등하게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함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업을 통해 전문강사들이 양성되고 있고, 이런 강사 양성과 성평등 강의의 다양한 개설로 다양한 가족 성원들이, 자신들의 학교, 직장, 주민센터, 지역 도서관 등 다양한 경로로 성평등 관련 교육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관련 수당지급〉

지방정부에서 결혼지원금이나 자녀지원금과 같은 지원금 지급을 하는 방

식에 있어서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 그 지급에 있어 필수조건은 아니더라도, 지급받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족 구성의 변화 시점에서 서로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 기회의 제공은 실제로 부부교육이나 상담에 대해, 가족 관계가 좋지 못함에도 그런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가지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기〉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나고 있듯이, 부부 사이에 대한 남성의 만족도는 여성의 만족도보다 높았고,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낮은 편이었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나온 “저희 남편은 조선시대 500년을 살고 있다” 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 남편이 불만의 대상이 되었든 혹은 관대한 모습으로 묘사되든지 간에 실제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있어 소극적인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가사활동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내 다른 성원들이 하고 있었던 가사 노동을 경험함으로써, 타인의 어려움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활동 관련 지원정책

〈일자리 확산〉

가족 내 성평등 실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맞벌이의 경우와 소득이 높은 경우 가족 내 분업을 나누어 해야 한다는, 그 실천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실제 여성이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은 가족 내에서 여성이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구조를 재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

들의 일자리 유지와 여성고급인력 맞춤 육성 및 공급 전략 등의 확대는 절실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친화기업의 확대〉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한 기업(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 보육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와 부모 돌봄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의 부양가족 지원제도, 건강·교육·상담 프로그램의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관계 증진제도 등의 다양한 가족 관계의 개선 및 워라벨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에 인증 표시가 가능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시 가점,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전북지역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전국 3,833개사 중 117개사에 머물고 있는데(천명옥 2020),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상상력〉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내 유연한 방식의 근무제 도입과 확대를 실험해보는 한 해가 되었다. 재택근무의 확대, 비대면 회의의 급증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근무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은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두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며, 그 제도가 간과하는 혹은 당연시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의 확대는 가정에서 모두 같이 지내는 시간을 늘렸지만, 가사노동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시간의 증가는 여성 노

동의 가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한 돌봄 영역에서는 대면적 소통이 필수적이므로, 긴급상황에서의 돌봄공백, 위기가정과 독거가정 등의 취약성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에 근거한 노인케어 센터와 같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과 같은 마을의 돌봄 센터의 활용 같은 방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김영주 2020).

다.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초중고 양성평등 교육 실시〉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설문과 심층면접이 30-40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성평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만큼이나 초중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이는 현재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편이나 부인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미래세대의 모습을 다르게 상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직접 불만을 보이지 않았지만, 자식이 자신과 같은 결혼생활을 한다면 그런 결혼은 시킬 수 없고, 이혼을 시키겠다는 응답은 의미심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문화 변화는 가족 내의 변화와 동시에 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가족 성평등 문화 확산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역 내의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자발적 부문 등 사회의 각 영역이 서로 소통하고 상호 학습을 통해 성평등 확산을 위한 공통의 과제를 발견하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전라북도의 지역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을 선도할 수 있는 젠더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나타난 3040세대 안에서의 격차와 도시와 농촌 간 지역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단일한 해법 대신에 그 대상에 맞는 적절한 사업과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2. 가족 정책의 방향성

〈가족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족 중심주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서 기본적으로 가족 생활주기 발달과정에 따른 지원이 요청되지만, 이상적인 가족의 경로에 대한 가정에 따른 지원은 실제로 인구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의 문제나 혹은 그 수적으로는 적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포용국가의 방향성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가족군들을 소외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한 가족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및 다양한 가족에 맞는 맞춤 지원과 접근을 통해 가족 성평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합적 접근이 아닌 대상에 따른 정책 지원의 문제〉

가족 정책은 대부분의 지원이 보육을 비롯 청소년, 다문화, 복지정책, 노인관련 정책 등의 대상에 따른 정책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시행의 주체나 정책의 맥락이 통합적으로 파악되어지기보다는 대상별로 지원을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이런 대상에 대한 다양한 단체를 통한 지원 방식은 공급의 중복이나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행위주체 간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 가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해법 역시, 부부관계의 개선 및 상호 이해라는 방식으로만 해법이 제시되기보다는 다양한 가족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가족 내의 다양한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등한 문화와 관계를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KBS뉴스. 2020. 1. 22. “‘시댁→시가’ ‘안사람→배우자’...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 제작”
- 국민일보. 2020. 5. 20. “‘코로나 블루’... 국민 절반이 불안·우울감: 정신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 미쳐”
- 김현미. 2020. 5. 6. “두 달여 ‘멈춤’에 심화된 성차별” 『한국일보』
- 신경아. 2020. 5. 19. “팬데믹 위험도 짙어진 여성노동자, 그들 목소리를 들어라” 『한국일보』
- 여성신문. 2020. 5. 8. “코로나 시대, 세계 곳곳 ‘임신중지 전쟁’...한국도 ”부르는 게 [값“
- 일다. 2020. 5. 22. “코로나 시대 뒷받침하는 ‘돌봄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뒷전: 언제까지 여성 몫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남길 것인가”
- 전희경. 2020. 5. 14. “여성에 집중된 ‘건강 약자와 돌봄’... 모두가 책임져야 젠더 정의”. 『한국일보』
- 천관율. 2019.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인』 604
- 프레시안. 2020. 5. 16. “코로나19, 왜 여성의 위기가 되었나”
- Koikari Mire. 2019. “Re-msaculinizing the nation: gender, disaster, and the politicis of national resilience in post-3.11 Japan” Japan Forum 31(2), 143-164
- United Nations. 2019.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Women”
- 강경숙·김선희. 2017. 『제주 지역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은애·고은비. 2019.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고용노동부. 2017.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18-22』
- 김영란·선보영·김필숙. 2018. 『가사노동시간 측정 및 행동평가 기준의 젠더불평등성 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미. 2014. “젠더와 계급의 교차성 관점에서 본 일-가족 양립정책”. 『사회과학 연구』 31(2), 1-26.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 김영주. 2020. “토론문”, 『제4회 전북여성 미래포럼』 2020. 11. 25.
- 김종철·정숙정. 2015.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인식 및 생활실태 조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노혜진. 2012. “가족 안에서 여성은 어떻게 빈곤을 경험하는가? 빈곤가구 내 성별 불평등”.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6(2).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 배옥현. 2016. 『경상북도 남성의 가족생활 및 역할에 관한 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배은경. 201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32(1) 1-45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0.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여성가족분야 대응전략』
- 성지혜. 2017. 『대구 남성의 일가정양립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여성가족재단
- 성지혜. 2019. 『대구지역 신중년 부부의 결혼생활 실태와 정책 대응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 성지혜. 2019. 『대구지역 신중년 부부의 결혼생활 실태와 정책 대응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 신경아. 2016.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젠더정책의 오해와 이해”. 『한국여성학』 32(4) 1-36
- 안미영. 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112 13-40
- 여성가족부. 2015. 『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1.2점 오른 72.9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12. 23일)
- 이재경·김경희. 2012.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28(3) 1-33
- 임현정·박지영. 2018. 『부산지역 가족 내 성평등 실태와 개선방안』.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주재선·김영란·박송이·이진숙·양준영. 2019.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여성가족부

천명옥. 2020.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및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 방안”,
『제4회 전북여성 미래포럼』 2020. 11. 25. 토론회

통계청. 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통계청. 각년도. 『생활시간조사』

기본연구 2020-05

전북지역 가족 성평등 실태와 성인지성 개선 방안 연구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09-4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